

# 건축사 건축

칼럼 국가건축정책의 우선적 과제  
시론 건축계, 뭉치면 죽고 헤어지면 산다?  
건축이 그립다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496**  
<http://www.kira.or.kr>  
**201008**

# 국가건축정책의 우선적 과제

Prior subject of National Architecture Policy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10년 6월30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기회의 한국건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글은 그날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토론회의 결론으로 주장한 아래 내용들은 국가건축정책에 바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건축인들 모두가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발전을 통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1. 국가건축정책의 시행을 위한 원론적 시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다음의 내용들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할 분야들이다.

1)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이다. 많은 이들이 건축국, 건축청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방의 행정조직은 아예 건축과, 건축팀 마저 없애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율리 건축관련 기본 통계자료를 위하여 통계청이나 국토해양부에 통계과 또는 局이 신설되어야 한다. 2) 민간전문가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최고의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해 본다. 3) 국가적인 건축인력과 업무실적관리 System은 건축정책입안, 교육 등을 위하여 바로 갖춰야 한다. 이런 정보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4) 올바른 건축인식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은 절대적이다.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꿈을 국민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2. 시급한 제도개선 시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축사 보수 및 대가기준은 민간의 경우 20년 전의 수준이다. 공공기관이 원하는 납품내용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대가는 선진국의 절반 남짓하다. 현재의 건축사업계는 전멸 일보작전이다. 이는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노력하는 건축사마저도 생존이 어려움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최소한 생존의 걱정은 없도록 국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2) 설계 발주제도는 건축생존과 발전의 근간이다. 일괄입찰(단기), 현상공모, BTL 방식, 입찰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창작을 하는 건축설계의 본질은 쌓 것을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작품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연구되고 제안된 내용으로 빨리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 3) 현재의 PQ제도는 발주자의 편의와 실적 있는 기존업체를 위한 제도이므로 없애거나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신진 건축사들에게 공평한 경쟁기회를 주어야 설계의 경쟁력이 생긴다. 4) 전국의 건축물이 700만동 가까이 있는데 건축물 유지관리제도가 없다. 정기적인 점검과 책임 있는 건축물 관리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5) 건축 인허가제도 중 각종 위원회가 면지는 부소불위의 권한행사는 없어져야 한다. 건축신고제도는 절차적 편의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이라는 목표와 역주행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여 탈바꿈되어야 한다. 6) 공공건축사제도를 도입하여 비전문가 공무원으로 인한 업무적 비효율은 없어야 한다. 건축 최고 전문가인 건축사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다. 7) 과다 배출되고 있는 5년제 건축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정원은 1,000명 미만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건축전문인력의 교육과 수급은 정부가 지원하고 조정해야 한다. 8) 친환경건축 설계와 시공을 위한 전문사방서, 표준상세도는 하루빨리 연구되고 제작, 보급되어야 한다.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친환경건축은 최신재료와 기법을 추구하기에 선진건축의 대표로 분류되므로 세계경쟁력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시급한 과제다. 9) 마지막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를 위한 소형 건설업체도 가 도입되어 소형건축물을 책임 있는 자격자가 시공해야 한다. 건축설계는 물론 시공도 전문가가 해야 한다. 또한 행위자가 책임져야 한다. 건축의 전문성을 망치는 비전문가에게 주는 특혜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건축의식만 고취시킬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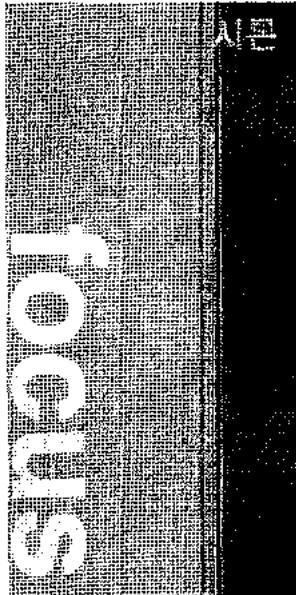
명품 건축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 또한 건축을 통하여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정당한 보수대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의 르네상스를 위하여 건축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다. ■



전영철 / Jeon, Young-cheol, KIRA  
대한건축사협회 상근이사

# 건축계,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Architectural Communities, United We Fall and Divided We Stand?**



기나긴 건축계의 통합논의가 무산되었다. 새로운 통합체로서의 한국건축사협회 출현에 대한 한국건축계의 기대는 일순간 무너져 버렸다. 통합 후, 건축의 질적 향상과 보다 나은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건축의 사회 및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역량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건축계 전체의 주장을 대변하고 권익 실현에 앞장서는 단체가 대두될 것이라는 기대는 그야말로 일장춘몽이었다.

통합 실패 후, 각 단체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인다. 각 단체들이 통합의 혼란함에 마냥 손 놓고 자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금수록 각 단체는 각자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기존의 질서와 영역을 유지하고 인주하려 들 것이고, 이렇게 되면 건축계 전체가 염원했던 바람은 온데 간데 없고 눈앞에 놓인 현실적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조직화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건축계가 보여왔던 모래알 같은 분열의 빛은 더욱 벗어나기 할텐다. 그 결과는 어김없이 부네랑이 되어 우리건축계로 돌아올 것이다. 각 단체들의 통합조차 이루지 못하는 건축계가 어찌 건축계 전체의 핵심 쟁점이나 이해 당사자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제도 개선 등의 사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된다. 또한, 건축계 전체의 민심을 대변하거나 수렴할 일원화된 창구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 목소리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강하고 심도 있게 건축 정책의 제안이나 개선사항 등을 전의하거나 제안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건축계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후배 건축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고 전통일까? 건축을 둘러싼 주변 환경들은 급변하는데 건축계는 왜 이토록 지지부진하면서 빠른 세상의 흐름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퇴행적 행보만을 계속하는가?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고, 한국 건축계의 좌표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분열된 모습은 건축사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이러한 운명을 후배건축가들에게 넘겨 줄 수는 없지 않는가? 이젠 그 기나긴 사슬을 끊어야 한다. 명실상부한 전문가 집단으로 업계의 이익 대변의 정도가 아니라 건축정책의 개선이나 발전방안, 획기적인 대안의 제시 등을 진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통합 단체의 출연이 절실히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건축계가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건축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건축계가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건축가 스스로의 창작활동을 극대화함으로써 작품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제도의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여러 여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밸주방식, 과당경쟁구조, 하도급구조 그리고 최저가낙찰제 등의 열악한 환경들은 지금까지 건축가의 작품활동에 여러모로 제약을 가해왔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건설회사와 종속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발생하는 열악한 기반이나, 변호사처럼 일한 만큼의 시간당 자문비 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취약해진 건축인들의 위상에는 분명 문제가 많다. 명확하게 규정된 설계비 단가 조차도 없거나와, 4% 수준은 고사하고 2~3%이하의 설계비를 받고 일하는 것이 지금 우리 건축계의 현실이다.

현실은 더욱 냉담하다. 건축사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고 건축사의 역할과 정체성도 위험을 받고 있다. 또한, 건축관련이 해진 단 간의 업역(業域)관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다른 전문 분야는 업역의 확장을 하나의 큰 기회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 건축계는 어떠한가? 오히려 업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극단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건축사의 역할이 건축물 도면의 인허가 작업 및 건축물 완성을 위한 조정자 정도로만 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분명 건축계는 자신들의 입장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어떤 위기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할진대, 상황이 이렇게 된 테에는 건축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 단체가 단순히 전문집단의 이익만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편협적이고 편향적인 집단이기주의 단체로 거듭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단체의 외향적 확대, 즉 네치 키우기는 더더욱 아니다. 통합으로부터, 건축계가 이익 및 가치집단으로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업역의 정체성을 되찾으며, 나아가 건축계와 관련한 여러 난제들을 풀어갈 단서를 마련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건축계의 통합,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축인의 사명이고 운명이다. 그동안의 통합노고를 시간 낭비로 볼 필요도 없다. 산고의 아픔 없이 어찌 수십 년간의 케케묵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통합 무산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보다는 전 건축계의 기대를 아우르고, 통합의 정당성을 설명, 설득하여 전 건축인의 참여 속에 통합을 위한 힘을 결집하는 것이 먼저 일 것이다. 지금이 바로, 다시 한번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새롭게 짜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본다. ■



박진호 / Park, Jin-ho, HKPA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인하대 학사, UCLA(미)  
• 건축학 석사 및 박사  
• 하와이주립대(미) 조부  
• 교수(충신교수)

# 건축이 그립다

## Longing for Architecture

베를린, 파리, 바이마르, 마르세유, 모스크바 등과 같은 도시에 관하여 글을 많이 쓴 발터 벤야민은 “모든 도시는 아름답다”고 했다. 한동안 건축하는 이웃들을 만나면 마주보고 앉아, ‘우리가 사는 도시는 아름다운가’를 물었다. 도시를 말하지만, 그 안에는 건축과 공간 그리고 도시민들과 그들의 삶의 흔적이 들어있었다. 사유로 나누는 건축과 도시 풍경이야기는 전공 다른 이들의 경계를 잇는다리 역할도 해주었다. 무엇보다도 디자인과 철학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건축하는 욕망, 건축과 자본, 건축과 춤, 건축과 영화, 건축과 연극, 건축과 글쓰기, 건축과 정치 등으로 이야기는 나붓가지처럼 흩어지고, 이어지고, 나아가고, 모아지고 있었다. 건축 주변에는 건축하는 전문가들과 더불어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하다못해 건축과 락 혹은 포크 음악을 견주기도 했었다. 그렇게 골목과 시장, 거리와 주택, 산과 강이 있는 도시를 내용으로 집과 길과 사람을 ‘노래하던’ 나날들이 있었다. 전공이 서로 다른 우리들은 건축의 모나드와 같았고, 건축은 모든 이들을 다 아우르는 아키(archii)의 예술이었다. 그 시절, 건축은 사유의 길라잡이였다. 건축은 전공을 초월하는 삶과 사유의 집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 시절 나는 건축으로 속 깊은 사람들과 많이 만났고, 건축이 지닌 시간의 주름, 삶의 흔적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건축의 바닥처럼 단단해질 수 있었다.

얼마 전부터 그랬다. 정확하게 몇 해 전부터 그랬다. 건축하는 이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보이지 않았고, 만나는 자리도 줄어들었다. 사는 동네에, 도시 중심에 이상한, 거대한 건축들이 날로 들어서고 있었지만, 건축하는 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연극만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예술이 아니지 않겠는가. 건축은 더더욱 사람이 집을 짓는 일이되, 사람과의 관계를 짓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건축이 황무지가 아니라, 건축하는 이들과의 만남이 거의 끊임없이 되었다. 참 서글프기 그지없다. 그로부터 건축과 건축에 대하여 말하고 노래하고 노는 것이 날로 사무친다. 그 많던 건축 동무들은 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유행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건축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겠다. 삶도 저절로 실내화되기만 한다. 건축과 이별한 것도 아닌데 나는 건축이 그립다. 이는 모두 건축과의 만남이 부재한 탓이다. 하기 싫은 자백이지만, 건축만 그러한 것은 아닐 것이다. 연극을 비롯한 공연예술도 많이 달라졌고, 가벼워졌다. 요즘 연극들은 맨 거짓투성이다. 극장에 가는 일도 즐겁지 않다. 극장에만 연극이 있는 것이 아닐 터이므로, 나는 서재에서 책으로 연극을 읽고, 자연에서 극장의 연극보다 더 훌륭한 풍경을 만나려고 한다. 그러나 어디서 건축을 만날 수 있겠는가?



안치운 / Ahn, Chi-woon  
호서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 중앙대 연극학과, 프랑스 국립 뉴벨 소르본 대학 졸업, 연극학 박사  
· 저서 『연극제도와 연극 일기』, 『연극, 반연극, 비연극』 / 신문집 『길과 집과 사람 사이』, 『옛길』, 『시냇물에 책이 있다』

이제 그만 부수자. ■

#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정태복 / 정회원 (주)부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이충기 / 정회원 (주)거성이엔지 건축사사무소

기성구 동백리에 위치한 본 부지는 부산의 구역 중 동부 생활권으로 해양산 일과 관광가점에 위치한다. 바다와 봉지라는 수변환경과 소화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한 설계의 기본 방향을 잡고 공공시설로서 건물이 지녀야하는 조형미, 개방감, 입체감 등도 이에 부합되게 계획하였다. 연구시설의 핵심인 연구소 본관과 실험실습동, 그리고 교육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구성하고 주변환경과 부합되는 연구소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교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연구시설 건립을 목표로 하였다.

배치개념은 크게 단기계획시설과 장기계획시설로서 세분화했다. 단기계획시설은 전체마스터플랜의 승식시설로 본관동, 교육동, 실험실습동으로 나누고, 단기계획시설로서의 원결심과 아이덴티티를 부여했다. 그리고 향후 장기계획시설 건립시 전체단지와의 조화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평면계획은 본관동, 실험실습동, 국제회의장, 교육동, 데크 등으로 나뉜다. 본관동은 행정, 실험, 강의 등을 담당하고 상하부 오픈된 공간으로 복도 및 로비에 채광이 유입되어쾌적한 공용공간을 제공한다. 실험실습동은 해양생물을 이용한 의약품과 생활용품 등을 실용화하기 위한 설비시설로서 Pilot Plant 및 수소실, 장비보관실, 양수실 등을 배치했다.

입면계획은 바다와 어울리는 Mass 및 입면 디자인을 계획하고, 수평적 요소인 커튼월의 가벼운 이미지에 화강석의 단단한 매스감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단면계획은 각 층별 기능에 따른 합리적인 층고로 계획하고 본관동의 3개층과 국제회의실의 2개층을 수직적으로 Open시킨 흘 공간을 계획했다.

This building site in Gi-Jang Gun, Dong Baek Ri facilitates Eastern-Busan life zone for Ocean Industry and Tourism. It has set its basic plan not only to harmonize with environment such as ocean and plains near it, but also to contain aesthetic value of a sculpture, openness, and three dimensional effect that a public facility must have. The main research building, practical building, and education building are organically connected in order to raise research efficiency, and make employees to commune with nature through environment-friendly research institute.

The concept of placement is divided into short-term plan facility and long-term plan facility. The short-term plan facility is a general master-plan that splits into the main building, education building, and practical building, and provides integration and identity as a short-term planned facility, and it is planned with consideration of the harmony and connectivity between the whole estate and long-term plan facility after-wise.

The ground plan is divided into the main building, practical building, conference hall, education building, and deque. The main building takes administration, practice, and lecture. It also provides common place with the light from hall way and lobby that are opened in upside and downside. The practical building has Pilot Plan, water tank, equipment room, and pumped storage to commercialize medical supplies and living goods made up of marine life. The elevation scheme is to plan a Mass and design matching with ocean, and to harmonize the light image of horizontal curtain wall and the firmness of granite.

The functions of each floor were considered rationally for cross section. Also, the hall space that opens vertically 3 floors of main building and 2 floors of conference building is also planned for cross section. ■

Architects: Jeong, Tae-bock; KIRA + Lee, Hong-gi, KIRA

Project Team: HyangBo, Gi-ryong · Ju, In-cheol · Gong, Bo-sun · Jeong, Guk-heon · Bak, Sun-ok · Kim, Jung-hwa · Jin, Jung-hee · Lee, Ho-dong

Client: Busan Metropolitan City Location: Busan Gijang-gun Igwang-myeon Dongbaek-ri 295 Site Area: 67,320.00m<sup>2</sup>

Building Area: Main building\_1,697.19m<sup>2</sup> · Education building\_1,170.98m<sup>2</sup>

Gross Floor Area: Main building\_4,355.46m<sup>2</sup> · Education building\_1,687.04m<sup>2</sup>

Building to Land Ratio: 5.69%

Floor Area Ratio: 8.69%

Structure: R.C.

Structural Engineer: Min SKT

Engineering Co., Ltd.

HVAC Engineer: Sebo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Sejong technology Co., Ltd.

General Contractor: Gangnam Eng. & Const Co.

Building Scope: B1, 3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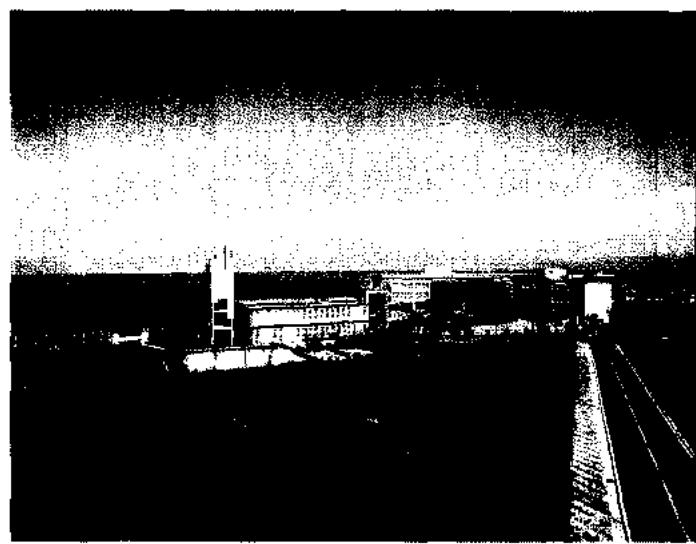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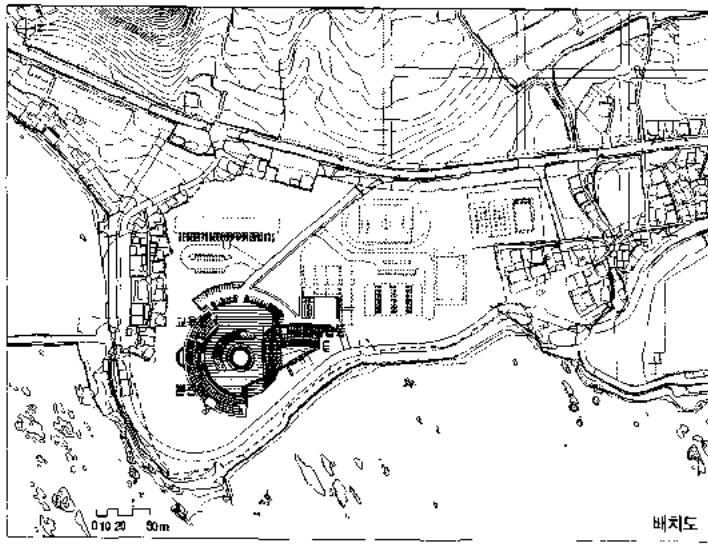
Finishing Materials: THK16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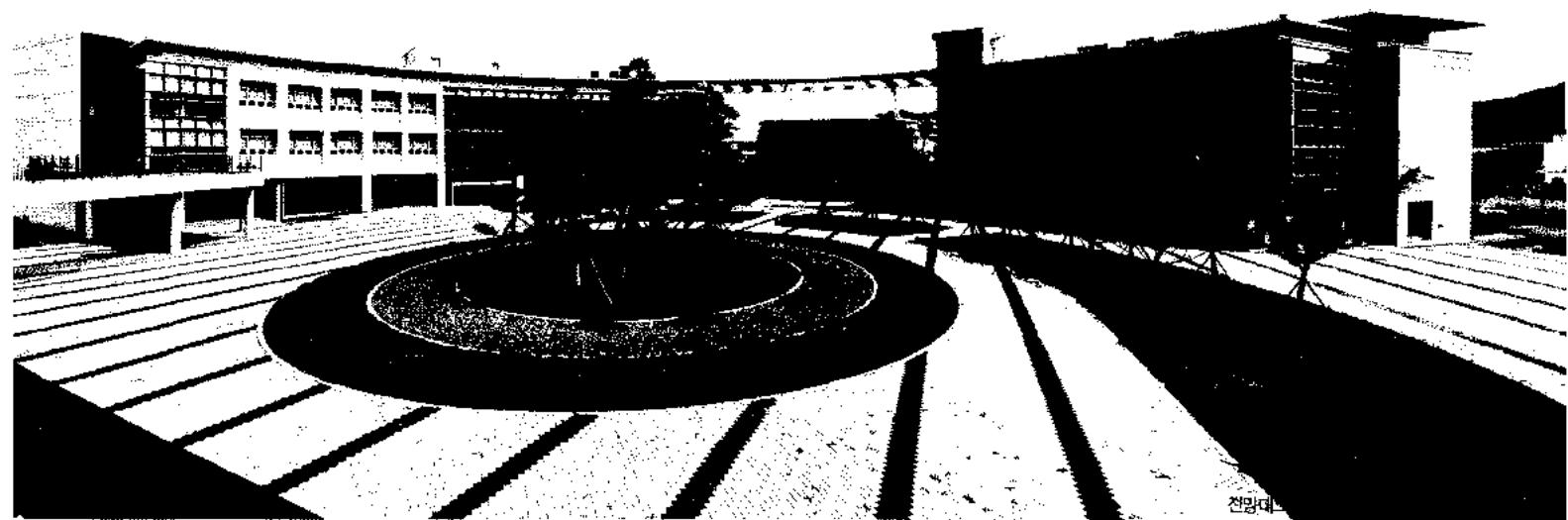
Double Glazing: THK30 Granite, Exposed Concrete

Photographs: Yi, In-mi

Cost: 12.1 bn KR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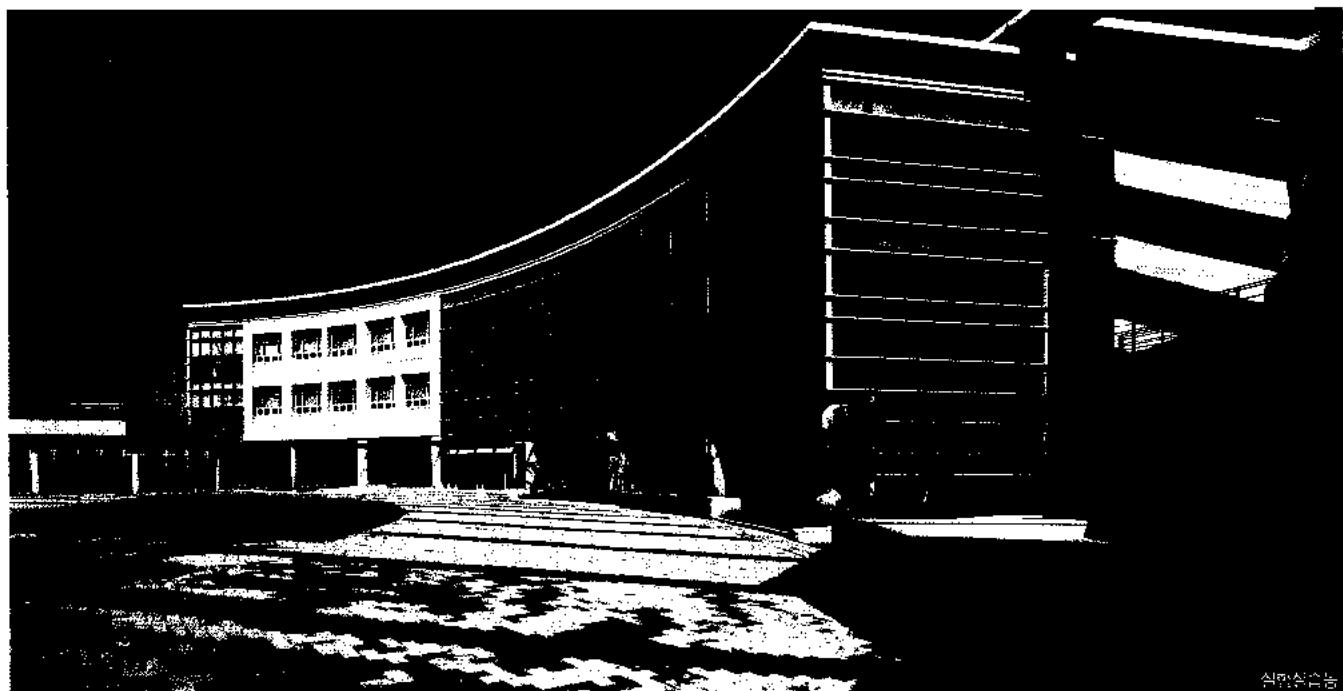
천장대



국제회의장 일부데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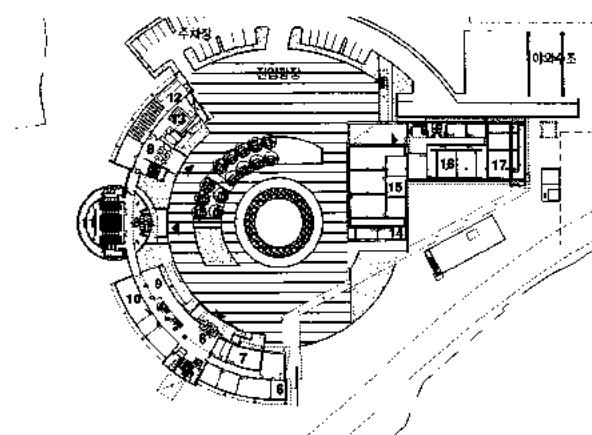


예술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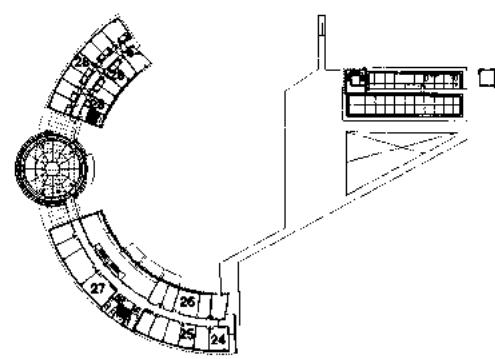


설계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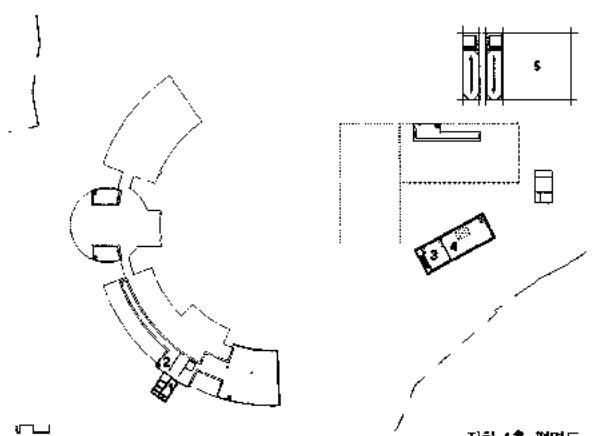
01_ 오수정화조	05_ 음	15_ 냉장실	22_ 영상실/공동체미나실
02_ PIT	09_ 대미상당실	16_ 수조실	23_ 어린이집설계수준실
03_ 흔드실	10_ 공동기기실	17_ 순환여과 수조실	24_ 외래교수실
04_ 이수취리실	11_ 국제회의실	18_ 수산가공유동설험실	25_ 전문연구센터실
05_ 아침수조(토목공사)	12_ 기계실	19_ 공동강의실	26_ 도서자료실
06_ 수산양식 및 환경기술실험실	13_ 전기실	20_ 생물자원배양실	27_ 행정실
07_ 수/해양 생활공학실험실	14_ 사무실	21_ 선당	28_ 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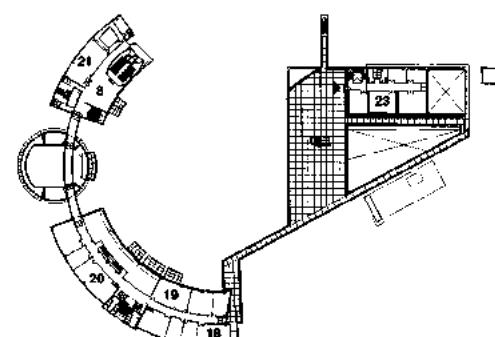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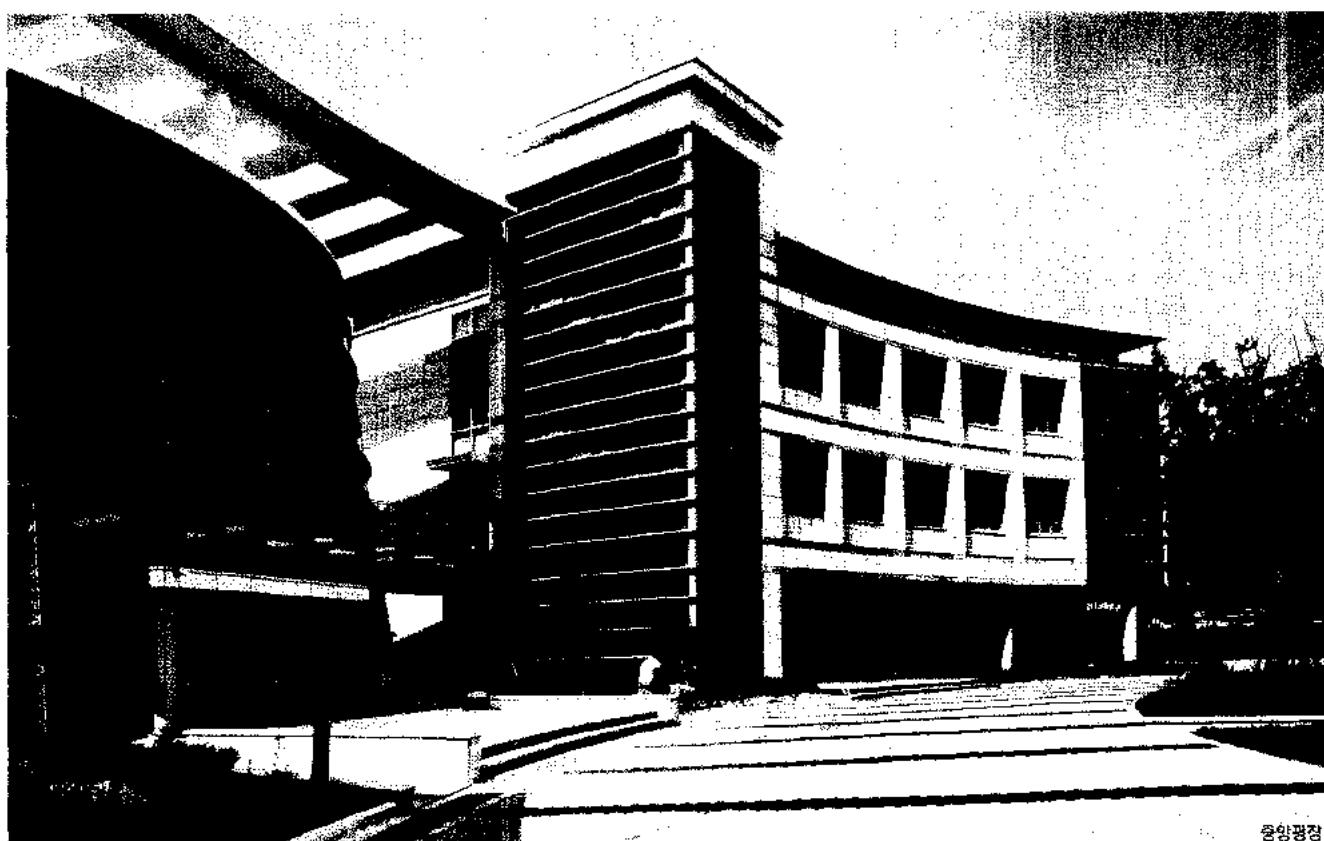
## 석남습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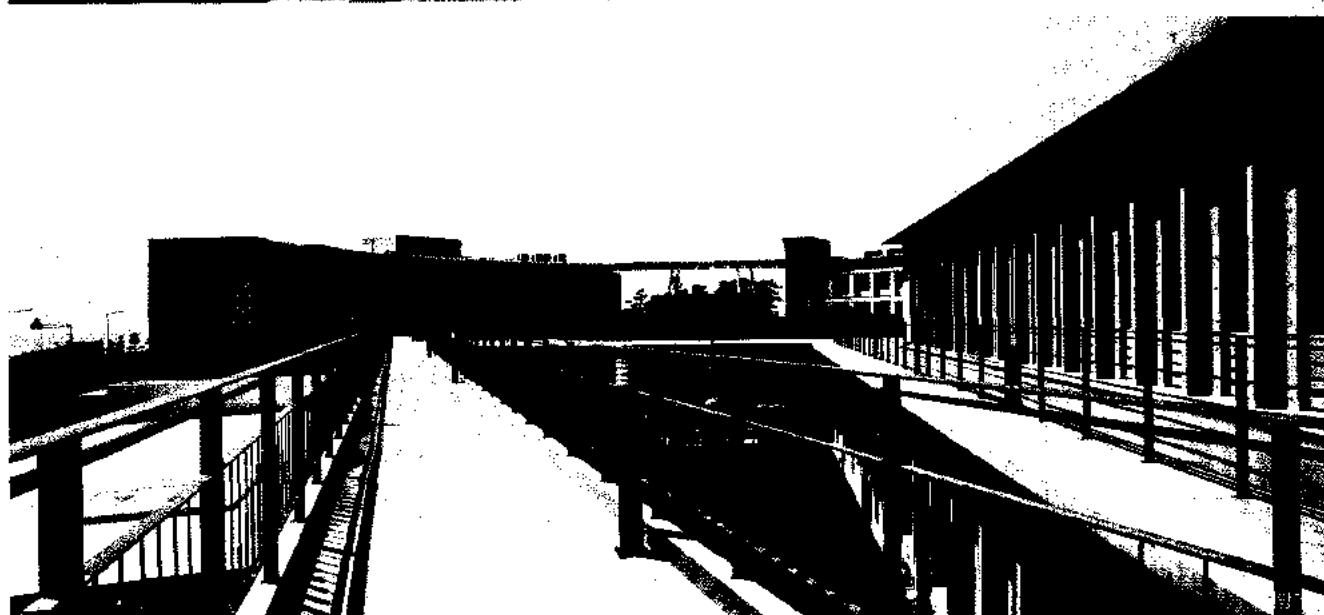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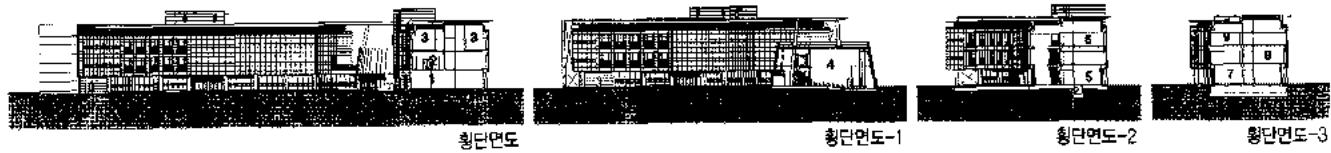
우측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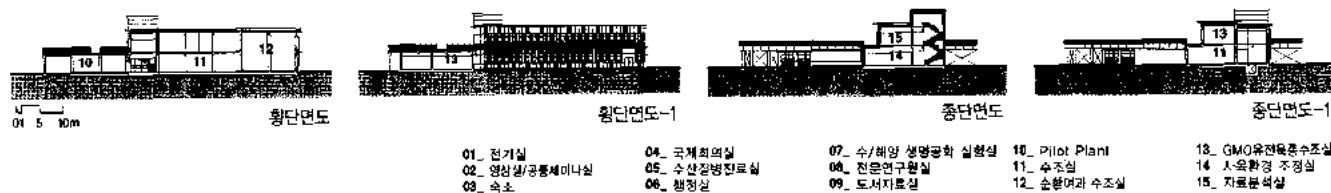


중앙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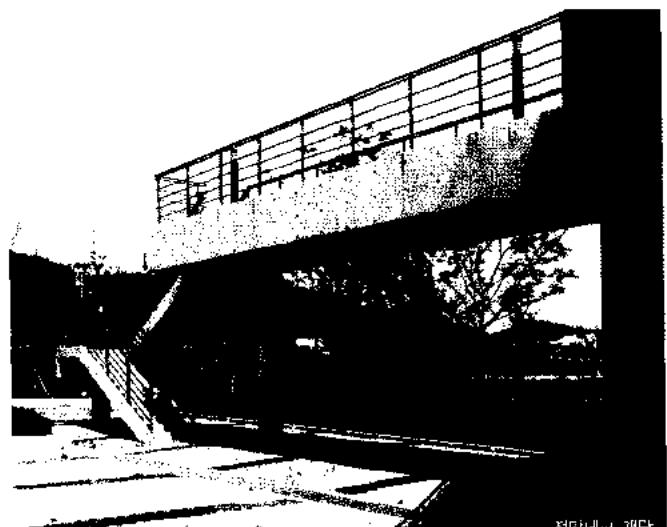




## 실험실습동



실험실습동 데크에서 바라본 전경



전망데크 계단



화이장 나무

# 양곡 비전센터

## Yang-Kog Vision Center

최종규 / 정희원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현재의 대지는 종교시설 즉 교회용도는 허가가 가능하지 않아 문화시설 즉 공연장의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사실 교회로 추진되었다면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설계되었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교회용도라는 협의의 목적을 가진 기능이 아니고 공연장으로 하게 되어 내심 우리는 작업 기간 내내 즐거웠다. 창원시민을 위한 공연장이라는 색다른 목표가 부기되었기 때문이다.

위치\_창원 외곽지에 위치하여 진주로 빠져나가는 준 고속도로 끝자락에 면해있어 한적하다.

대웅\_전면도로는 차량속도도 빠르고 번잡하여 도로에 면하여 7층높이의 교육관을 도로에 평행하게 대웅시켜 조용한 안마당을 만들었다.

진입\_큰 도로에 면한 교육관의 일부를 크게 잘라내어 대문을 통과하여 안마당으로 그리고 안마당에서 다시 교회로 진입하는 수순을 택하였다.

주차진입\_큰 도로에서 직접 건물 한쪽끝부분에 차량진입을 만들어 사람과 차량동선을 분리하였다.

본당\_4,500명 수용이 교회의 요구조건인데, 공용공간이 부족한 것을 감수하며 건축주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공간의 크기를 갖추었다.

입면\_입면은 이러한 몇 가지 자연스런 분석 하에 구성된 건축의 표현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재료는 독일산 FC매널로 기존 교회의 붉은 벽돌과 조화되는 진흙색의 컬러로 선택하였다.

결론\_결국 교회는 교회라는 본래의 목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건축물보다는 중성화된 공연장이라는 문화시설에서 설교가 행해지는 이중적 목적을 가진 건축이 되었다.

교회의 표시는 이중 상부 휴게공간인 데크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The Church have been designed for the purpose of theater because the site of land use is not allowed for the religious institution, or place of worship, if it would be allowed as a church, design strategy could be different. We enjoyed throughout the work is that we designed not only typical church, but also we could concern about different objectives for the building as a public-theater for Changwon citizens.

location\_The land was located on the outskirts of Changwon, the edge of the highway to Jinju therefore it is quiet.

Strategy\_7 stories high education center is placed parallel with the main street to prevent the noise street and create quite courtyard.

Entry Sequence\_The section of education center is cut off to provide main gate. This gate guide people to courtyard, and enter the church in.

Parking Entrance\_The parking lot was located on the side of the main road which allows cars to enter directly from the main road. Therefore, pedestrians were not interrupted by vehicular circ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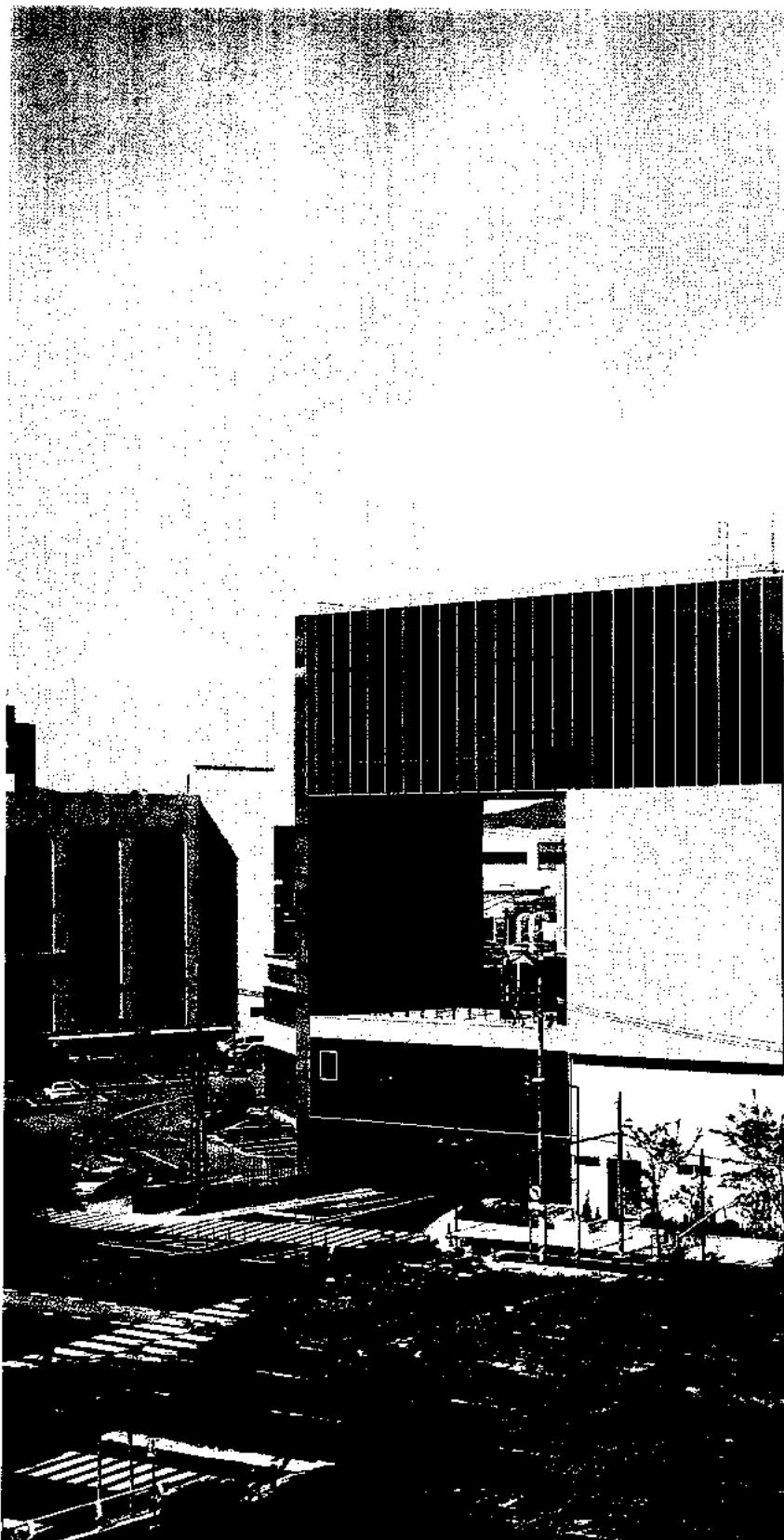
Main Building\_The public space for the 45,000 people, is reduced to accomplish the original request of the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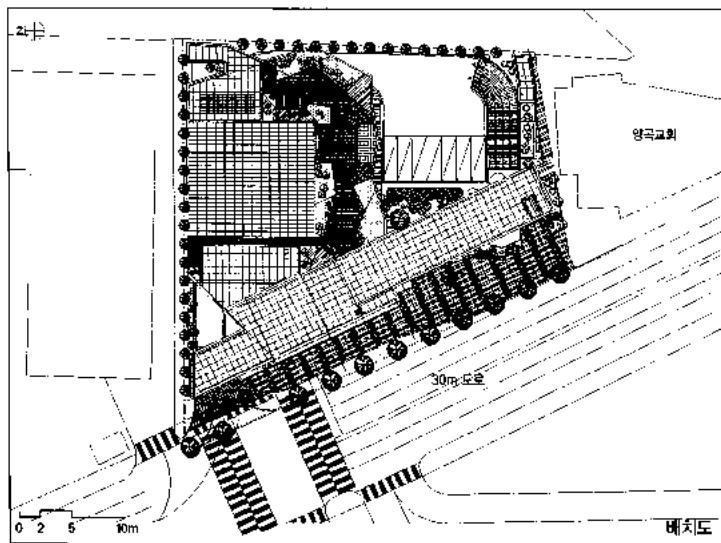
Elevation\_The elevation is an constructional expression that consisted by various analysis. Mud-colored FC panels, which made in German, has chosen to harmonize with the existing church building.

Conclusion\_The client church have the church which twofold purpose, and neutralized look cultural facility rather than a typical form of religious sanctuary as a res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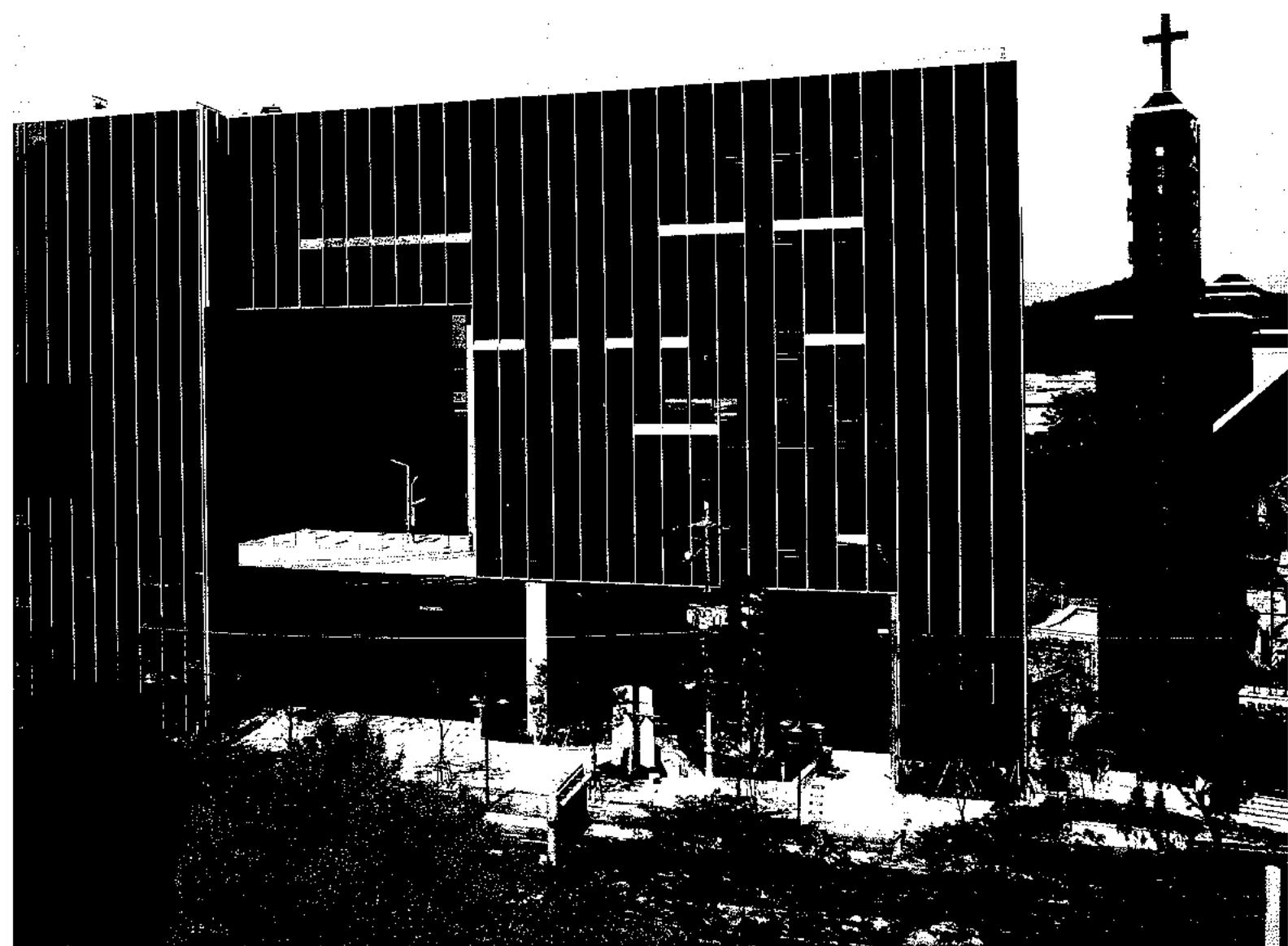
The second floor of the church displays a cross on the upper deck of the rest area That is only choice to be satisfied. ■

Project Name	Yang-Kog Vision Center
Project Location	Changwon-si, Gyeongsangnam-do, South Korea
Project Status	Completed
Completion Date	2010.06.20
Architect	Chung-Hui Won, Seo-In Kim
Area	23,505.17m <sup>2</sup>
Plot Ratio	218.01%
Number of Stories	7
Structure	Steel Frame
Exterior Wall Material	Mud-colored FC panels
Interior Wall Material	Wood
Roof Type	Flat roof
Building Height	30.0m
Building Width	10.0m
Building Depth	10.0m
Building Volume	1,000,000 m <sup>3</sup>
Building Weight	1,000,000 kg
Building Capacity	45,000 people
Building Function	Cultural fac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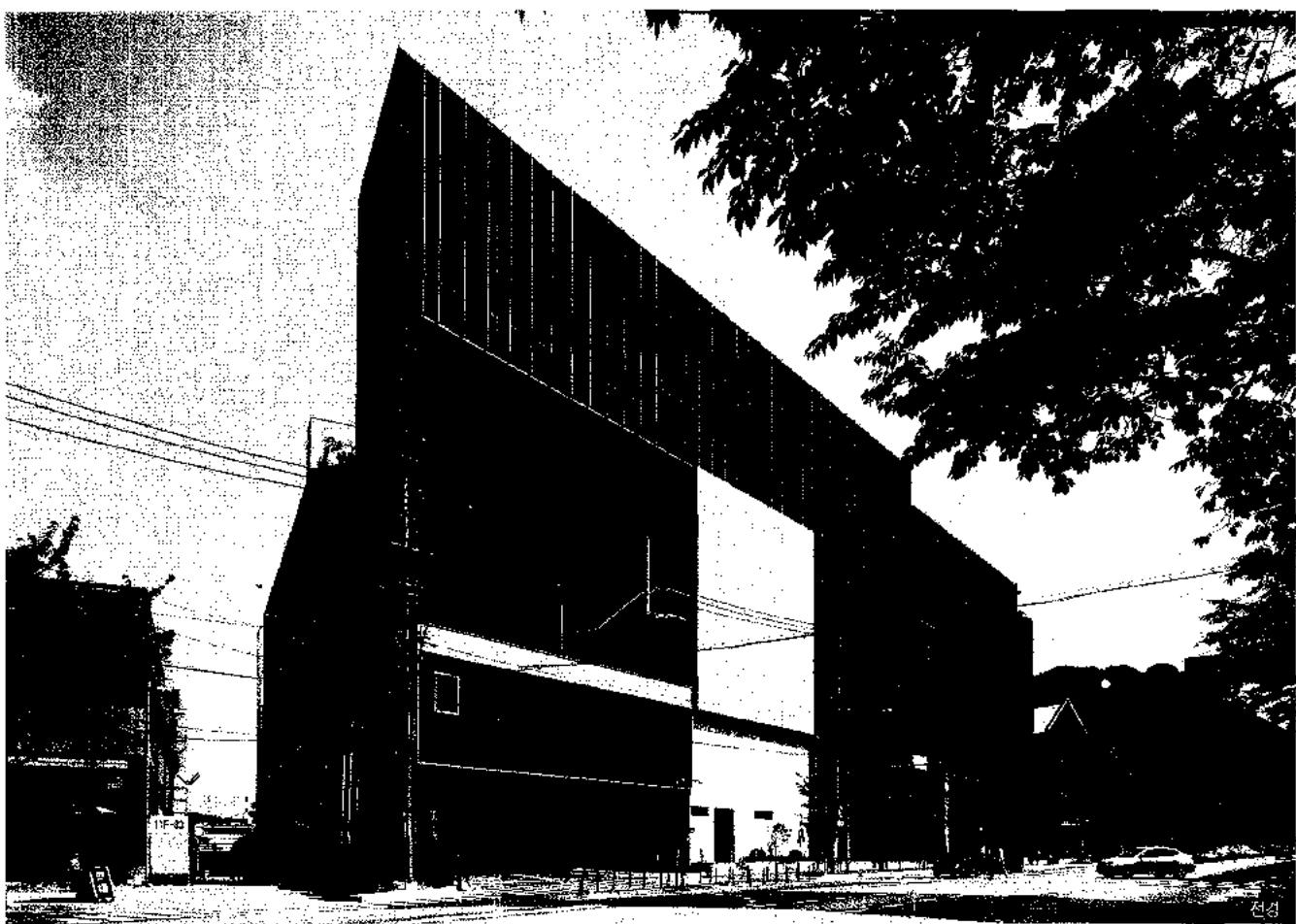


전경





정관 및 진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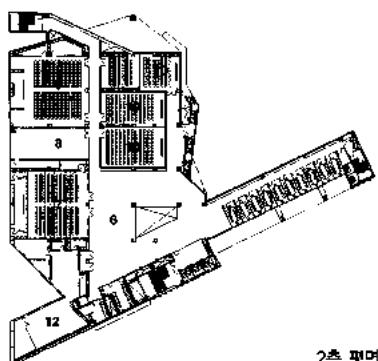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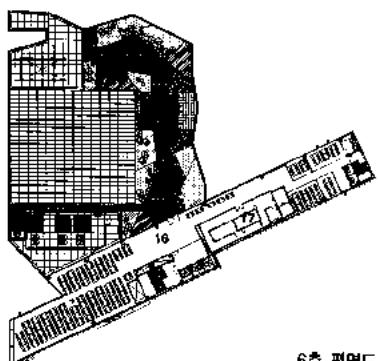


북서측 외경

오픈공간 연결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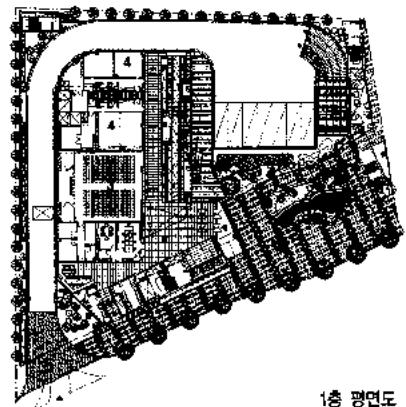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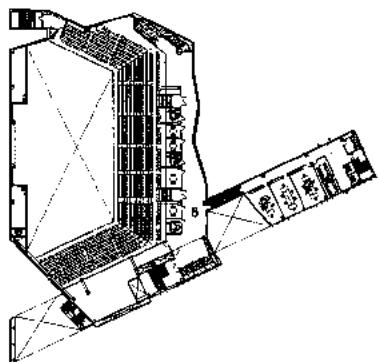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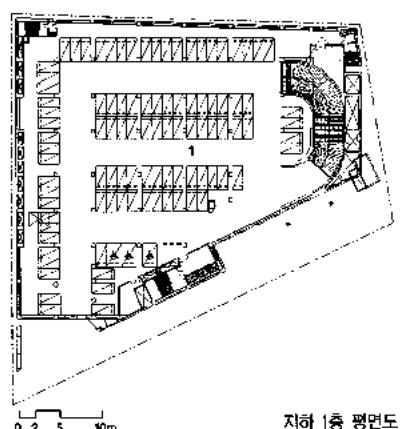
- 01\_주차장
- 02\_사무실
- 03\_매식술
- 04\_토지시설
- 05\_휴게실
- 06\_로비
- 07\_소공연장
- 08\_오피스트리실
- 09\_설가대연습실
- 10\_보화당
- 11\_교실
- 12\_유치부실
- 13\_대공연장
- 14\_원외부방
- 15\_정부방
- 16\_식당
- 17\_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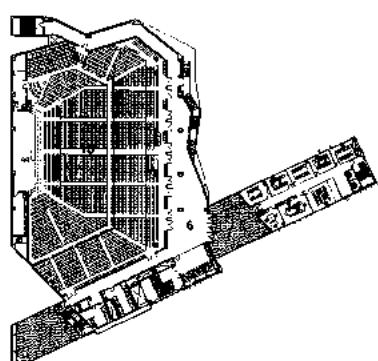
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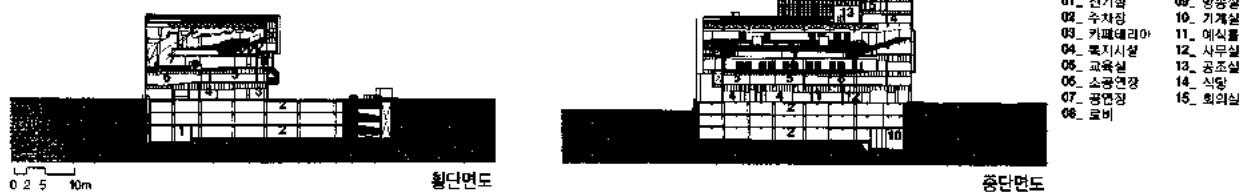
0 2 5 10m

정면도



우측면도





- 01\_ 선기실
- 02\_ 주차장
- 03\_ 기체데리어
- 04\_ 품지시설
- 05\_ 교육실
- 06\_ 소급연장
- 07\_ 공연장
- 08\_ 룸비
- 09\_ 방송실
- 10\_ 기계실
- 11\_ 이식률
- 12\_ 사무실
- 13\_ 공조실
- 14\_ 식당
- 15\_ 회의실



# 동대문구 제천수련원

## Dongdaemun-gu Jecheon Training Center

목대상 / 정회원 건축사사무소 상화  
+ 경기정 / 정회원(주)건축사사무소 유오예스

동대문구 제천수련원은 충청북도 제천의 한 폐교된 학교터에 지어졌다. 계획부지는 산의 중턱에 위치하고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으며, 진입은 낮은 북쪽에서 높은 남쪽으로 이루어진다. 오래전에 지어진 학교가 그려듯 운동장과 교사동은 각각의 영역을 확보하고 교사동에서 운동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듯 한층 이상의 높이차를 보인다.

본 건물은 대지조건상 청풍호로의 북쪽 조망과 남쪽으로 보이는 푸른 산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했다. 각 객실의 주방향은 남쪽보다는 북쪽 청풍호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남쪽을 등지게 되었다. 그리고 건물의 남쪽면은 유리를 사용하여 숲의 전경이 건물 내 이동 중 느껴지도록 하였다. 연수원의 기능과 객실의 이용시간을 고려할 경우 시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숲을 건물의 이동 중 보고 느껴지게 된다면 좀 더 쾌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였다.

대지 입구를 지나 연수원으로 들어오면서 볼 수 있는 산의 푸르름은 건물로 인해 시작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닐까? 산의 중턱에 대지를 평탄하게 조성하고 건물을 계획할 경우 건물은 조망과 대지와의 정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은 아닐까? 대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건물이 앉혀진다는 전제를 깔고 진행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학교와 교사동이 있었던 평坦한 땅의 지형을 가급적 건물을 최소한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부분을 비워놓게 된다면 산의 지형이 회복되고 학교부지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의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건물을 들어 올려 사각적 관통을 이루게 하고 산의 지형과 푸르름은 우리의 눈에 들어 오게 된다. 또한 각 객실에서 바라보는 청풍호로의 조망은 더욱 수월하게 될 것이다.

Dongdaemun-gu training center at Jecheon-city in Chungcheongbuk-do has been built the site of middle school that closed. The site for training center is located in the hillside and higher south than north then the access to the site is made from south to north, it is divided into two distinct area that one is the ground the other is building, as the school was built a long time ago and the building area overlooking the playground is higher one story than the ground level.

this building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north view to the cheongpoong-ho but also south view to greenish mountain, the primary direction of the each room is not south because think about the view to the north with cheongpoong-ho, the south facade of building has been use the glass then the visitor should be feel the panoramic view of the forest walking in the building, if it is look at the changing forest by the four season taking account of function of training center and use of time of the room, I think the building very comfor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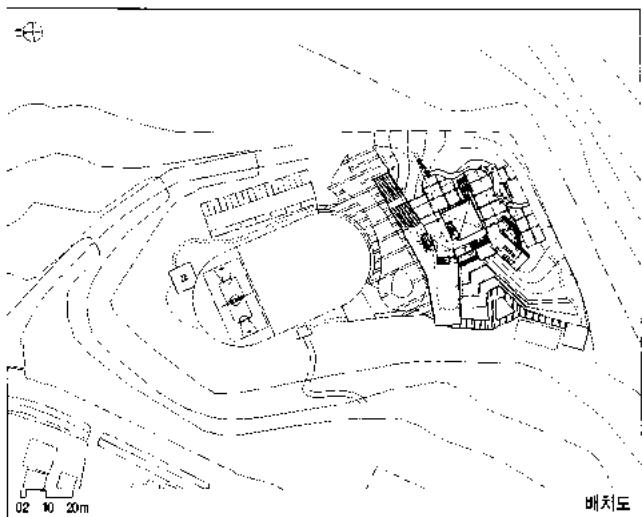
Don't the building obstruct our view of the greenish of mountain that we can see, as walking to the training center through the entrance to the land?

if it is designed building after made site flat at the hillside, Has been the building firstly considered the view and the settlement on the land? Don't design process of changing the site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building is set?

through these questions, I was placed the new building on a flat surface at least that the school building was before and vacate the remaining portion, then I have thought to be restored to the mountain terrain to create a new image of the space not school land, I lifted the building to bring the visual penetration and see the mountain terrain and green carpe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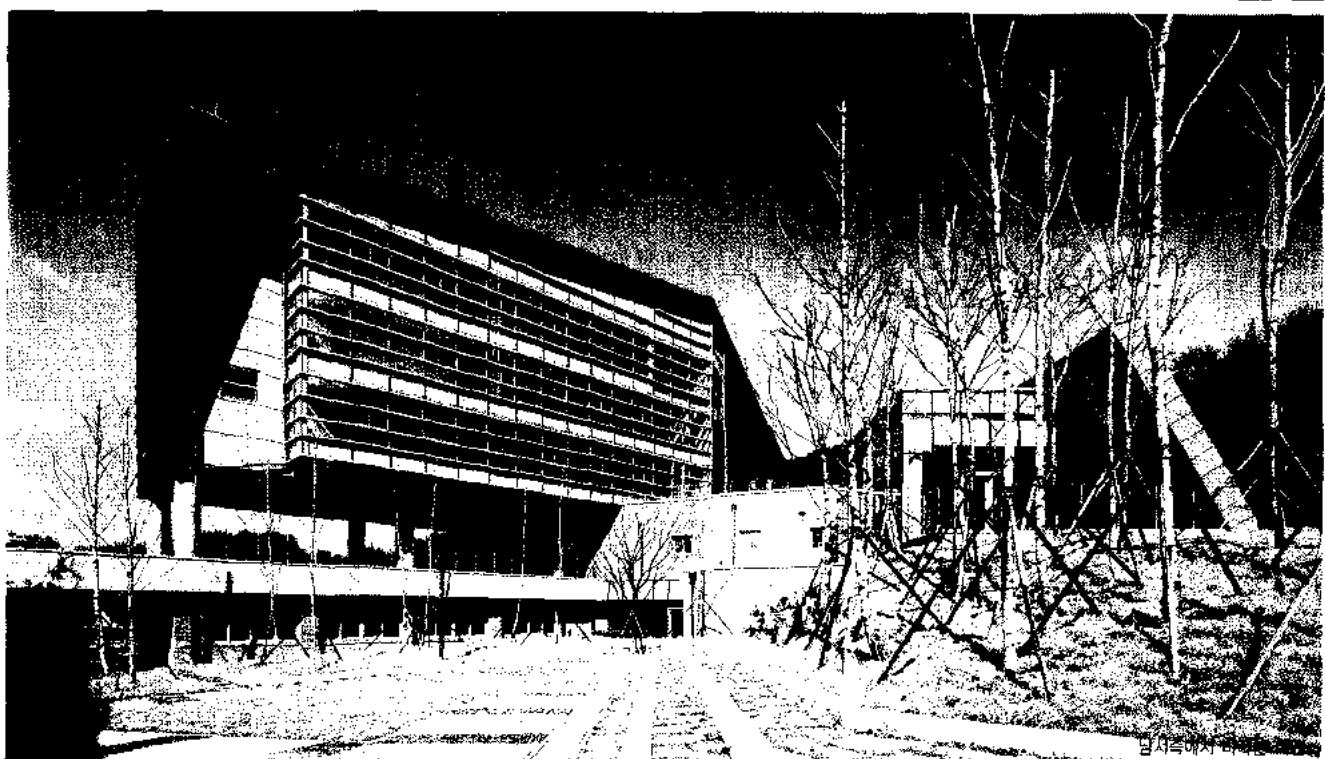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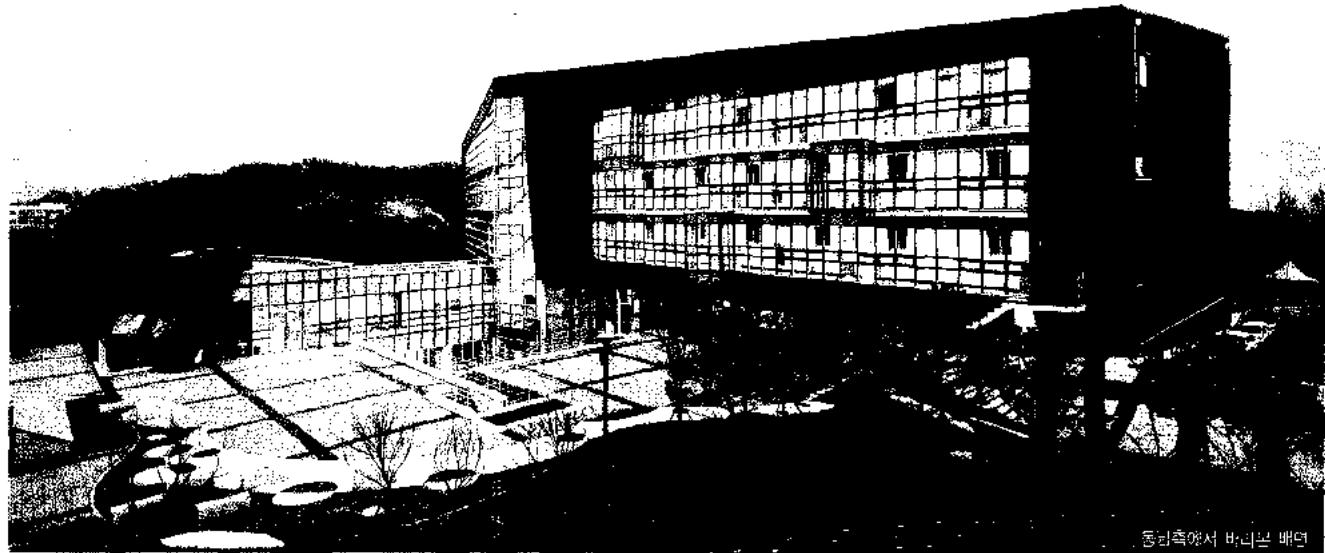
Architects	Mock, Dae-sang, KIRA · Jung, Gi-jung, KIRA
Project Team	Units of space architects, inc
Client	Seoul Dongdaemun-gu
	Jecheon-si Cheongpoong-myeon Multae-ri 131-10
Site Area	17,972m <sup>2</sup>
	Building Area 1,225m <sup>2</sup>
Gross Floor Area	2,958.08m <sup>2</sup>
	Building to Land Ratio 6.82%
Floor Area Ratio	10.68%
	Structure R.C
Structural Engineer	H.I Structure Engineers
HVAC	Electrical Engineer kunchang Engineering
General Contractor	Seyang Engineering
Building Scope	B1, 4F
Brick, THK20 Fair Glass, THK15 Ceramic Paner	Finishing Materials Zinc Panel, Red
Photographs	Park, Wan-soon
	Cost 6,800 m KR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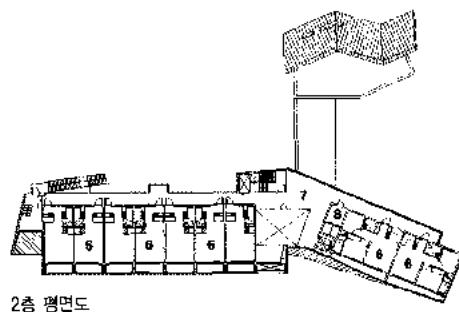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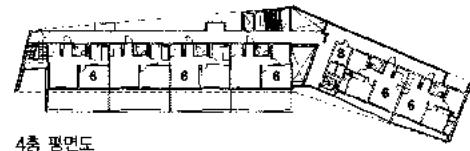
진입구에서 바라본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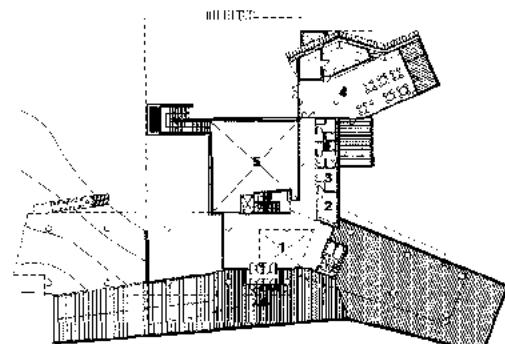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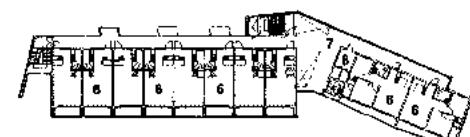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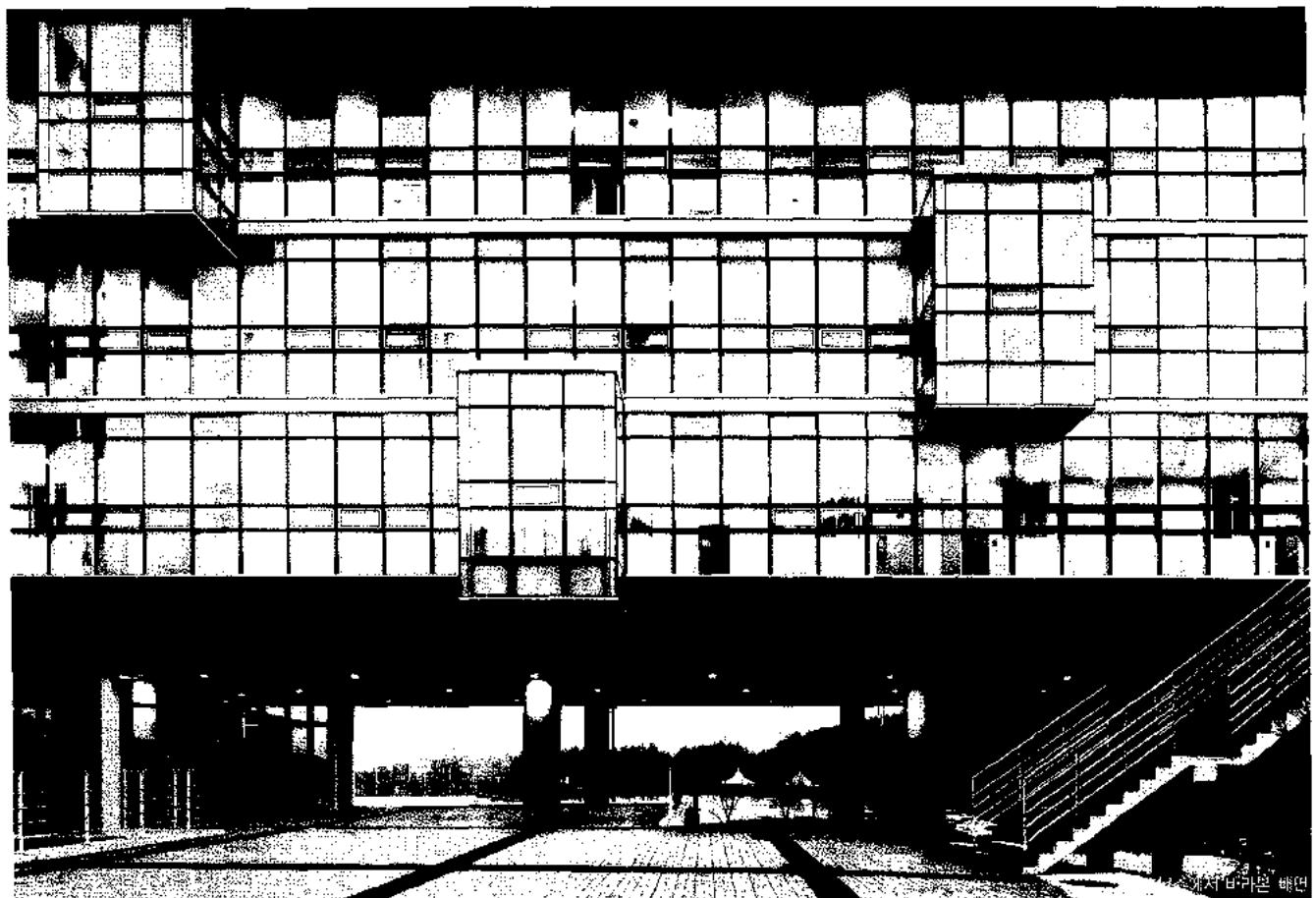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 01\_홀/로비
- 02\_안내
- 03\_숙박
- 04\_식당
- 05\_선관
- 06\_객실
- 07\_홀/별도
- 08\_민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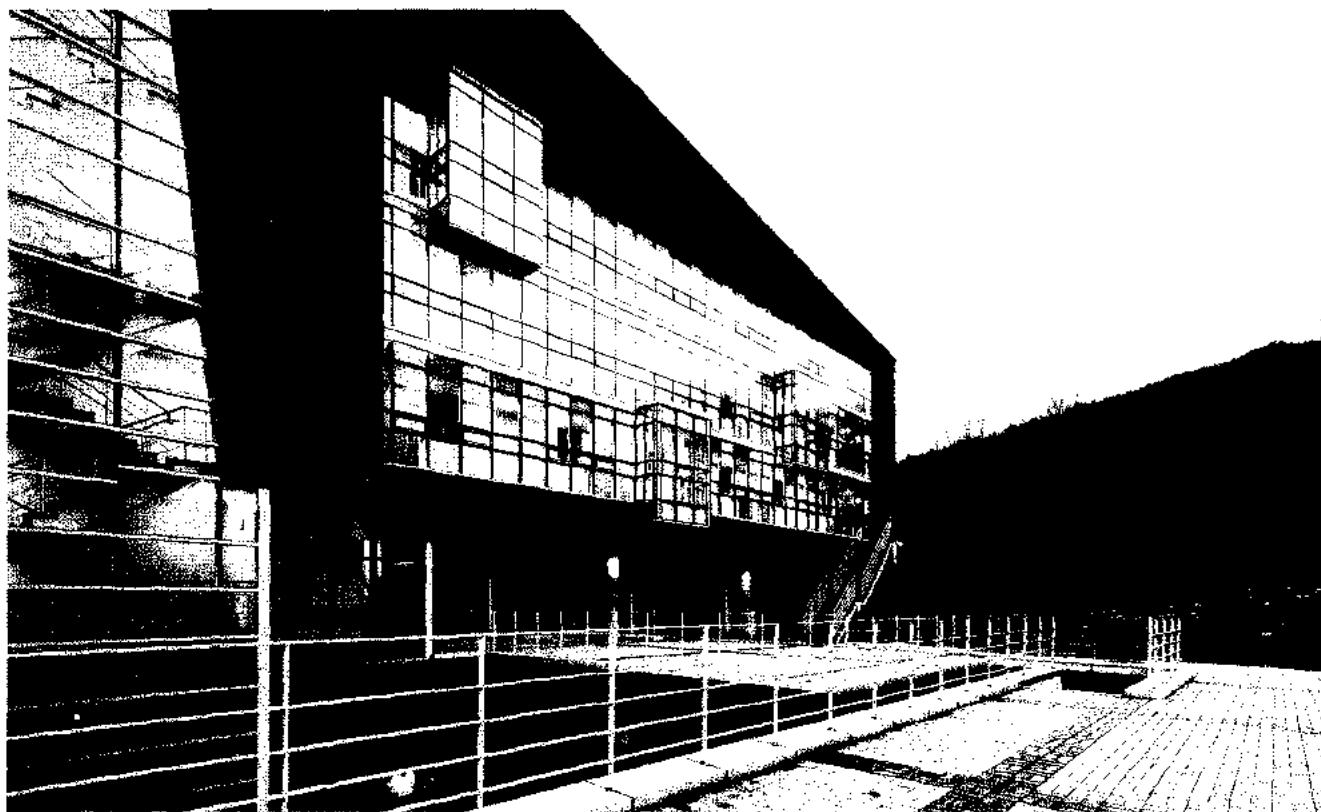


01 5.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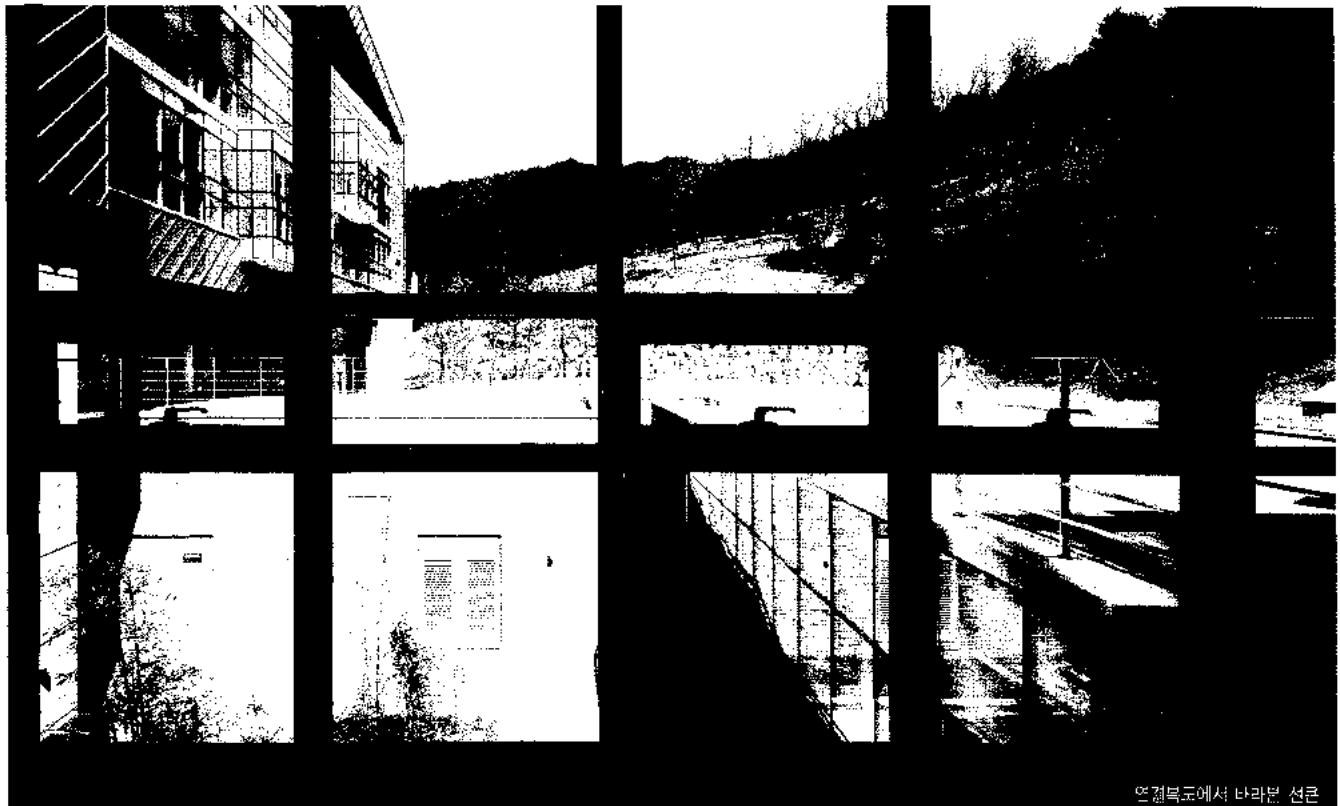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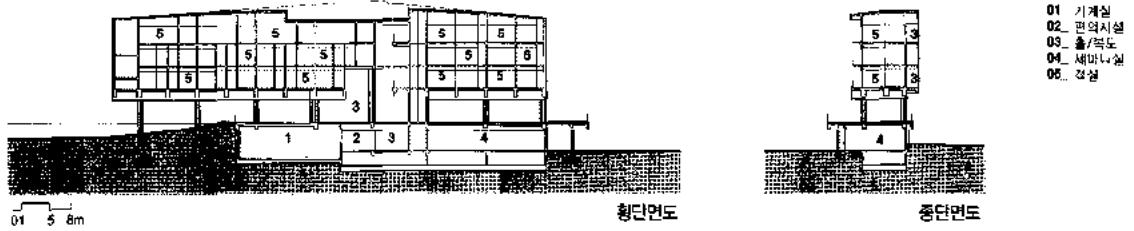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남서쪽에서 바라본 배면



선운에서 바라본 연결복도



# 진안홍삼스파

## Jinan Red Ginseng Spa

정영균 / 정회원 (주) 히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김광현 / 특별회원 서울대학교

수익시설로서의 SPA\_진안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건축물을 설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담을 것인가'에 주목했다. 진안군은 특산물전시관설계를 요청했으나 설계팀은 일지의 우수함을 살린 수익시설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결국 관광객유치와 수익창출이 가능한 SPA 및 수련관시설로 결정했다.

음양오행 프로그램\_프로그램의 주제는 치유의 개념을 담고 있는 전통사상인 음양오행을 도입하였고, 음양오행의 연출을 위해 물을 이용한 밭고, 동적인 양Pool과 조용하고 잠자적인 음Pool, 바람을 이용한 Wind Shower, 돌을 이용한 짬질설비, 특산물을 이용한 테라피 등을 기획했다.

자연환경과의 교감을 위한 순수한 형태\_건축외형은 남측의 마이산과 북측의 산지비탈면이 프로그램에 단절되지 않고 서로 교감하는 형태를 취하고, 기술적·재료적 한계를 뛰어넘는 무형질의 공간으로 보이기 위해 내·외부환경을 기능적으로 구분 짓는 최소한의 구조인 순수한 육면체가 되도록 했다.

열림과 닫힘, 음양의 공간 대지도 접근한 이용객은 체험관과 심산수련관을 한눈에 보면서 열린공간인 광장을 지나 체험관홀로 진입하게 되고, 홀은 닫힌공간인 틸의사워실로 연결되며 탈의를 마친 뒤 외부공간이 보이는 계단을 지나 2층의 음양오행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외부계단을 따라 야외 SPA에 올라서면 마이산을 조망할 수 있다. 이처럼 동선을 따라 열리고 닫히는 공간의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어 음양오행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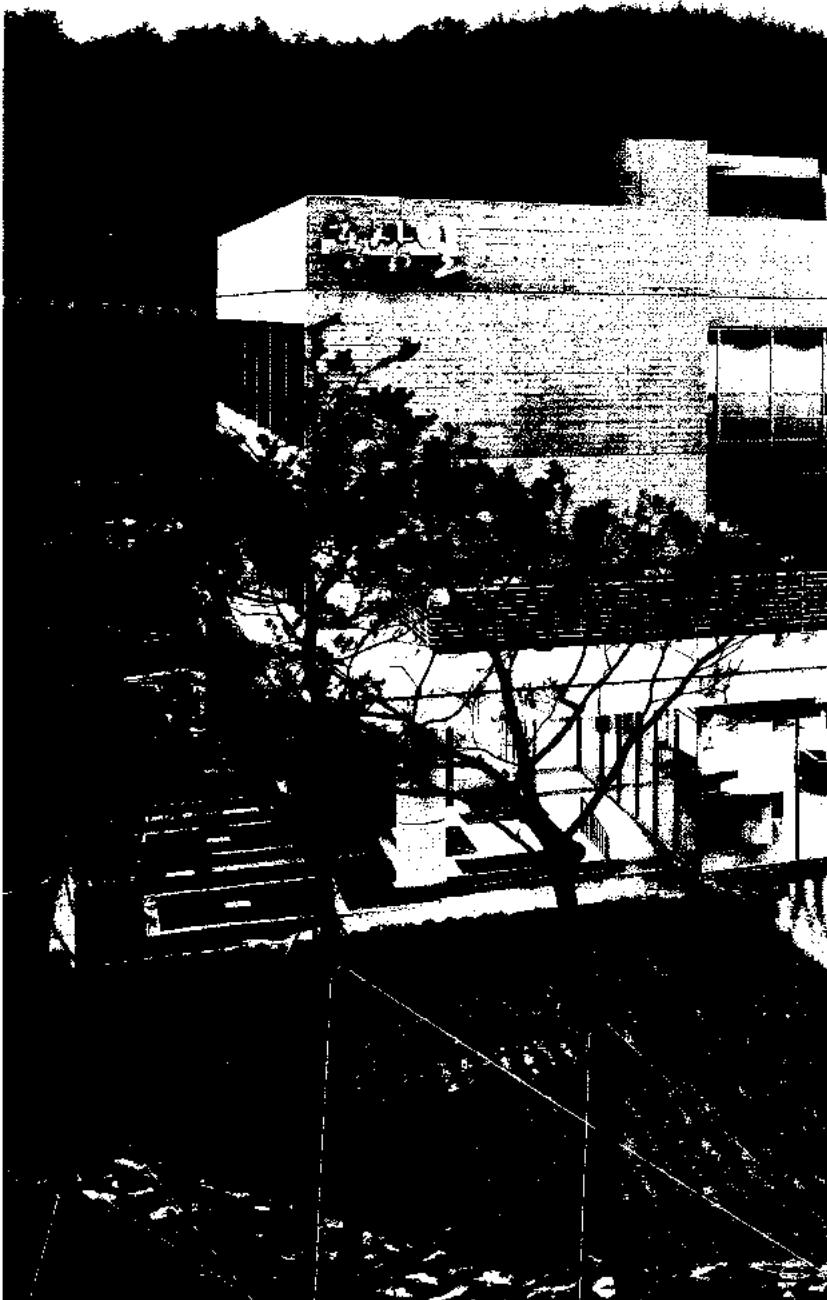
**Spa to raise revenue\_Jinan Red Ginseng Spa & Vill** is a project established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hence the focus has been placed on 'what program' to accommodate instead of planning 'what type' of architecture. Jinan district has initially requested an exhibition building. However the designers recognized the need to create a structure to reflect the context as well as to raise revenue and the visitors, hence proposing a spa and a training fac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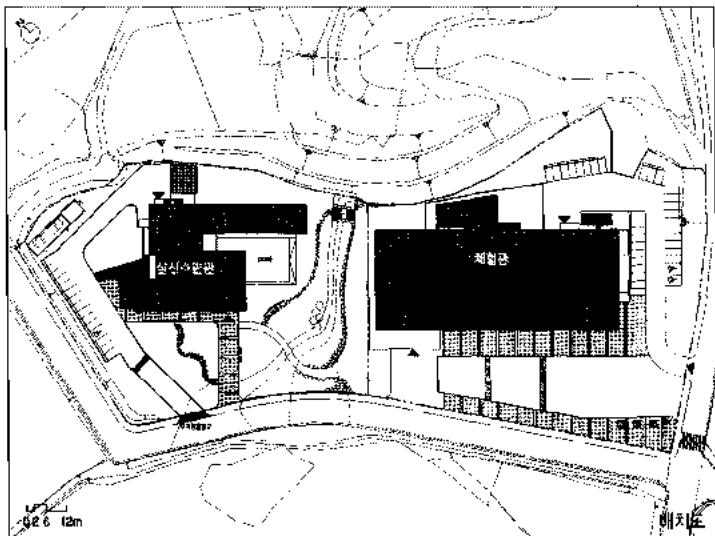
**Yin-Yang Program**\_The major concept of the program demonstrates the Oriental principles of yin-yang five elements, setting up a variety of themed facilities such as a dynamic 'yang' pool, a static 'yin' pool, wind shower, stone and special therapies of local goods.

**A true form to encourage interaction with the Nature**\_The overall form reflects a continued program despite Mt. Mai on the South and hills on the north, establishing a sense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natural elements. A true hexahedron has been selected as the form to create an intangible space which has overcome technical and material limitations.

**Open & closure, spatial qualities of 'Yin-Yang'**\_Every visitor enters the site with a full view of the Condominium, passing through the main square and entering into the Spa Hall. Then, he/she is led to the change room after which the five therapeutic program spread over two floors awaits them. The staircase to the outdoor spa invites the visitors to enjoy a beautiful scenery of Mt. Mai. Such a well planned circulation reflects the principles of 'Yin-Yang' providing a variety of spatial qualities of open and closur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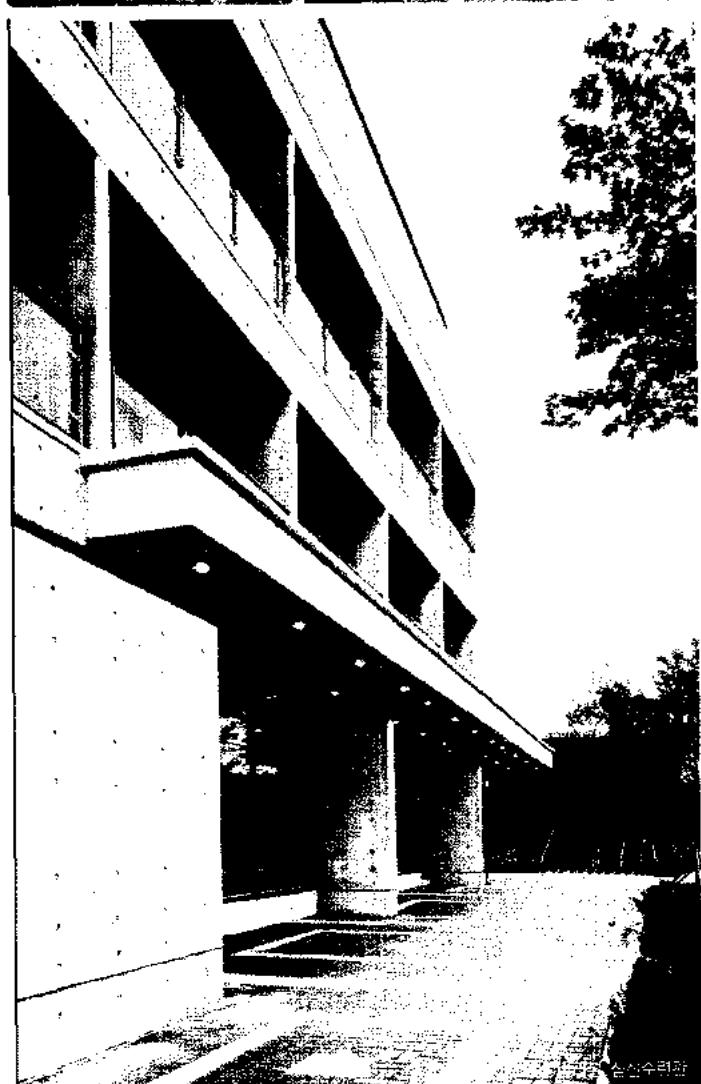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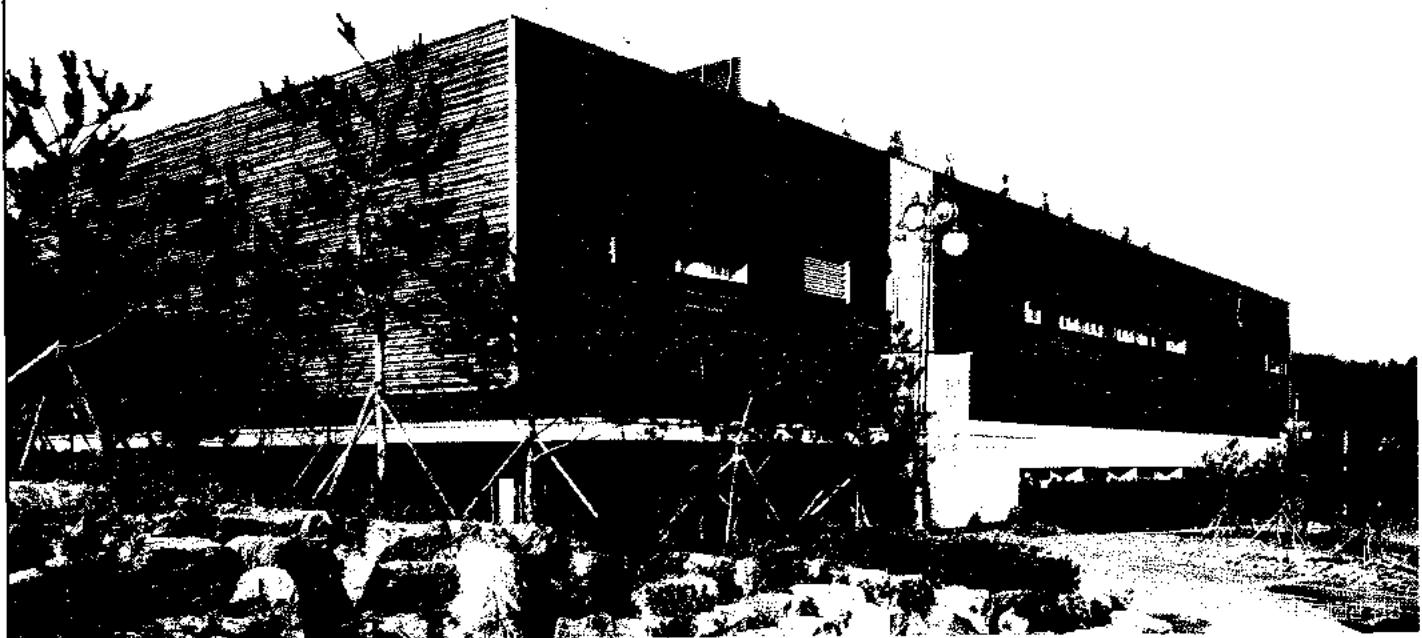
Architects	Jeong, Young-kyoon, KIRA + Kim, Kwang-hyun, HKIRA
Project Team	Park, Sung-bae · Hong, Seok-gu · Lee, Jong-hwa · Cho, Soo-young · Jeong, Ji-won · Kim, Yun-kyeom · Hong, Sun-woo · Jeong, Hae-shin
Client	Jinan Gun
Address	Jinan-eup Danyang-ri 743-744
Building Area	3,354.26m <sup>2</sup>
Building to Land Ratio	24.41%
Structure	R.C
HVAC Engineer	GMEC
General Contractor	WonHo Construction
Finishing Materials	Marble, Timber Flooring, Porcelain tiles, Terraco Paint · Exposed Concrete, Clear double glazing, High strength timber, Preserved timber louver
Photographs	Park, Wan-soon
Cost	not discl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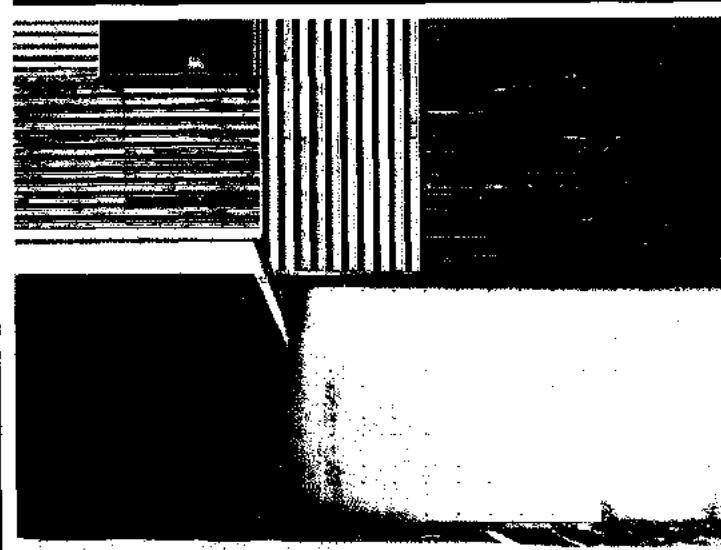


남쪽에서 바라본 심신수련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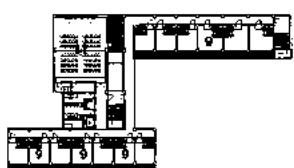




▲ 신수연은 앤디워커서 빌라를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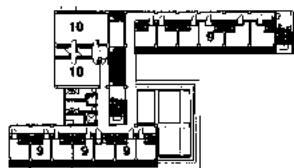


심소 수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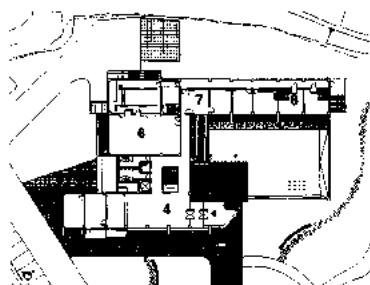


3층 평면도

- 제작자  
01\_ 기계실  
02\_ 전기실  
03\_ 저수조  
04\_ 로비  
05\_ 라운지  
06\_ 식당  
07\_ 상담실  
08\_ 강사숙소  
09\_ 객실  
10\_ 수련실  
11\_ 미팅룸  
12\_ 출입  
13\_ 판매시설  
14\_ 한방진료소  
15\_ 착카룸  
16\_ 사원실  
17\_ 토  
18\_ 채  
19\_ 육  
20\_ 바란  
21\_ Pool  
22\_ 금  
23\_ 수  
24\_ Stone  
25\_ 레버린스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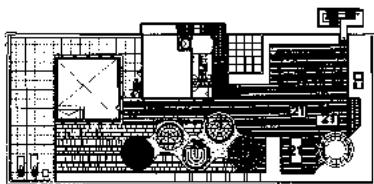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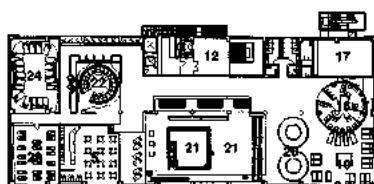


01 3.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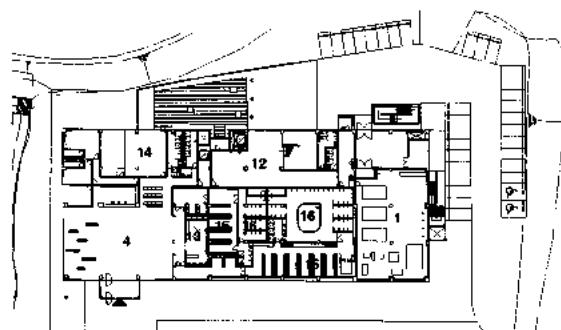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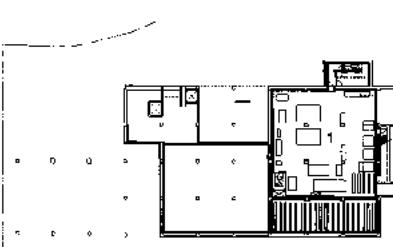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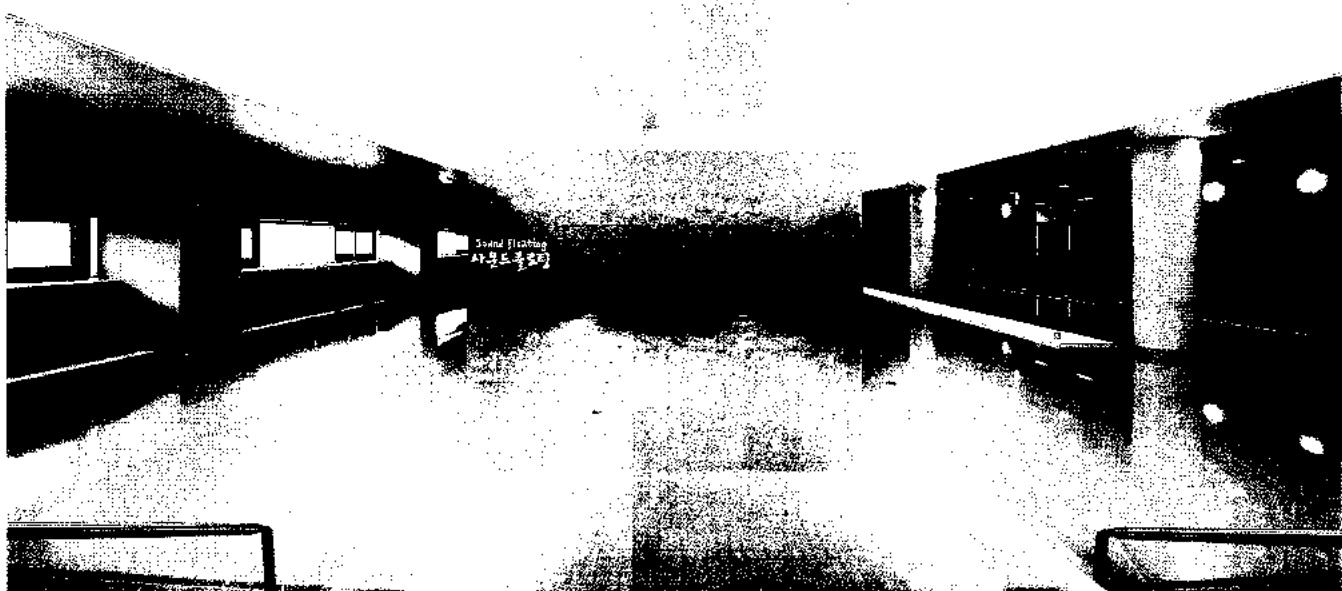
1층 평면도



01 3.6m

지하 1층 평면도

체험관 2층 Pool



심신수련관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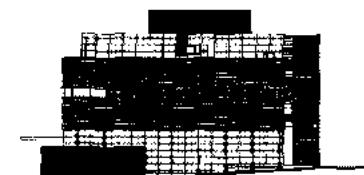
우측면도

자연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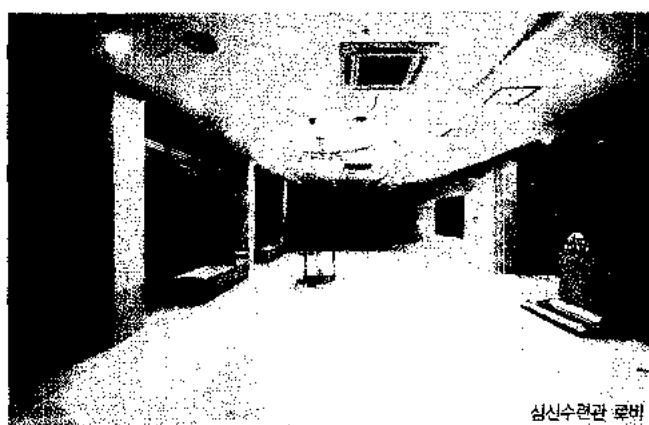


01 8 6m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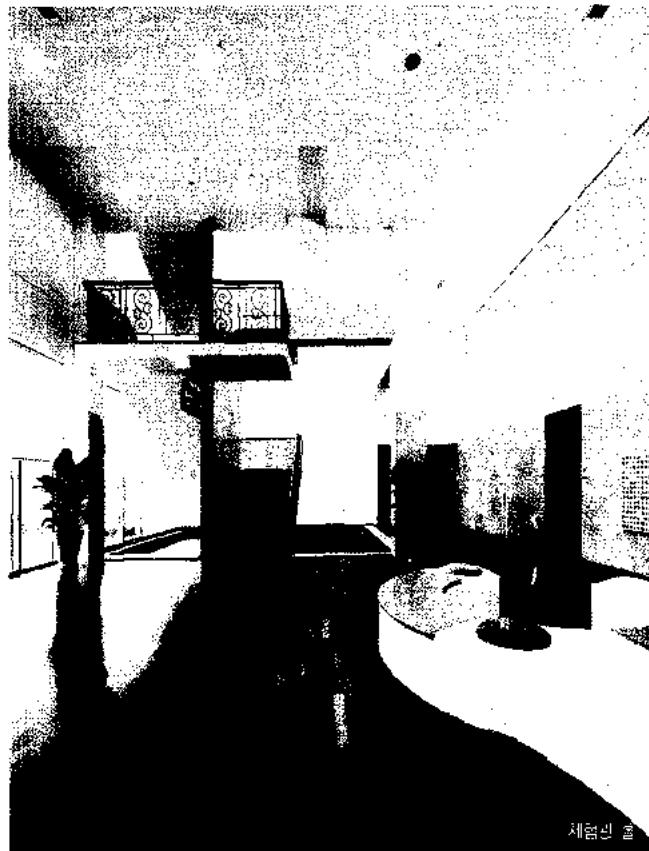
우측면도



심신수련관 로비



심신수련관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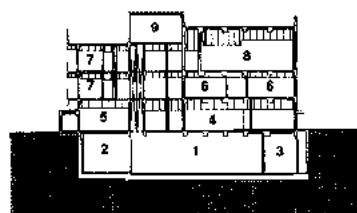


체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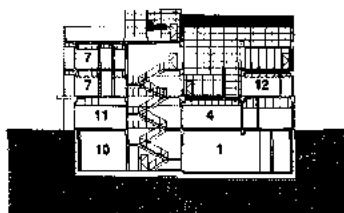


체험관

실신수련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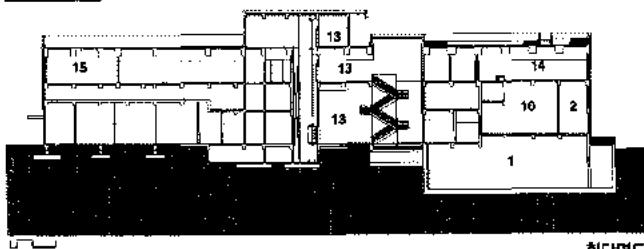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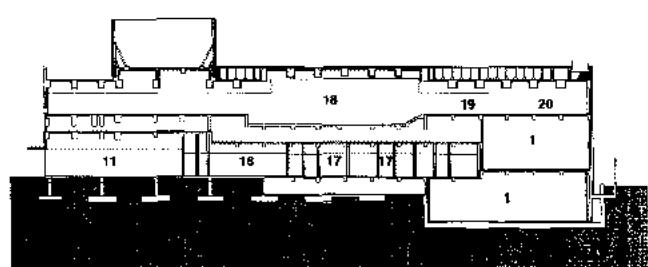
종단면도

01_ 기계실	11_ 로비
02_ 일전기실	12_ 영상실
03_ 저수조	13_ 풀
04_ 쐐양	14_ 브
05_ 카운터	15_ Stone
06_ 수변실	16_ 색카풀
07_ 책상	17_ 샤워실
08_ 마린룸	18_ Pool
09_ 블룸	19_ 비누
10_ 전기실	20_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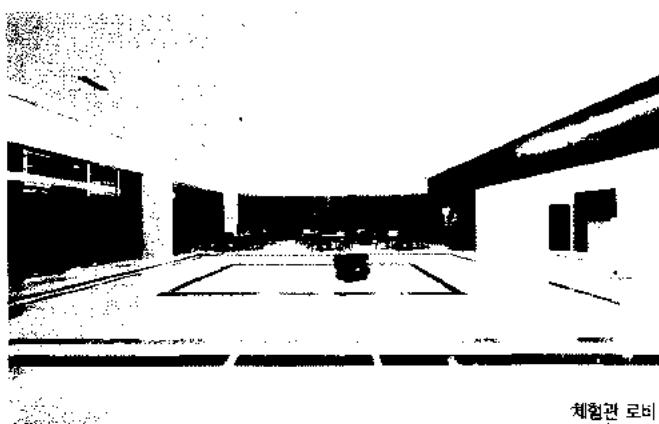
체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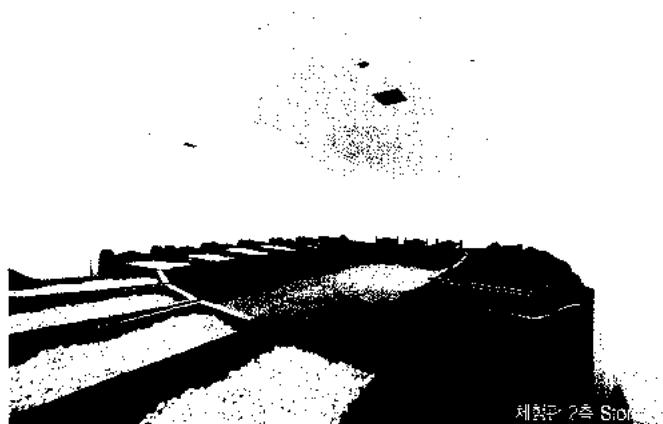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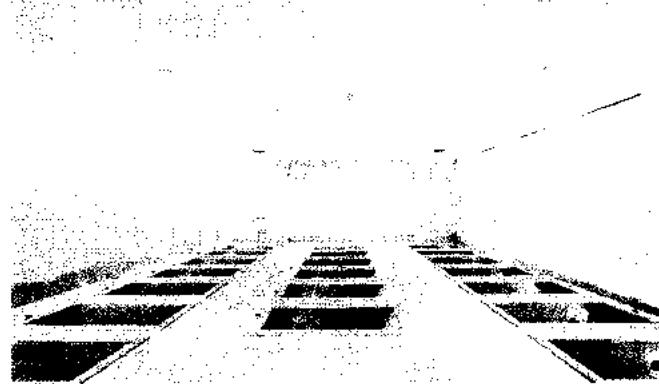
횡단면도-1



체험관 로비



체험관 2층 Side



체험관 2층 체육관



체험관 2층 수영장



체험관 2층 수영장

# 우리금융 상암센터

## Woori-Bank Sang-Am Center

고광석 / 정희원 · 이상화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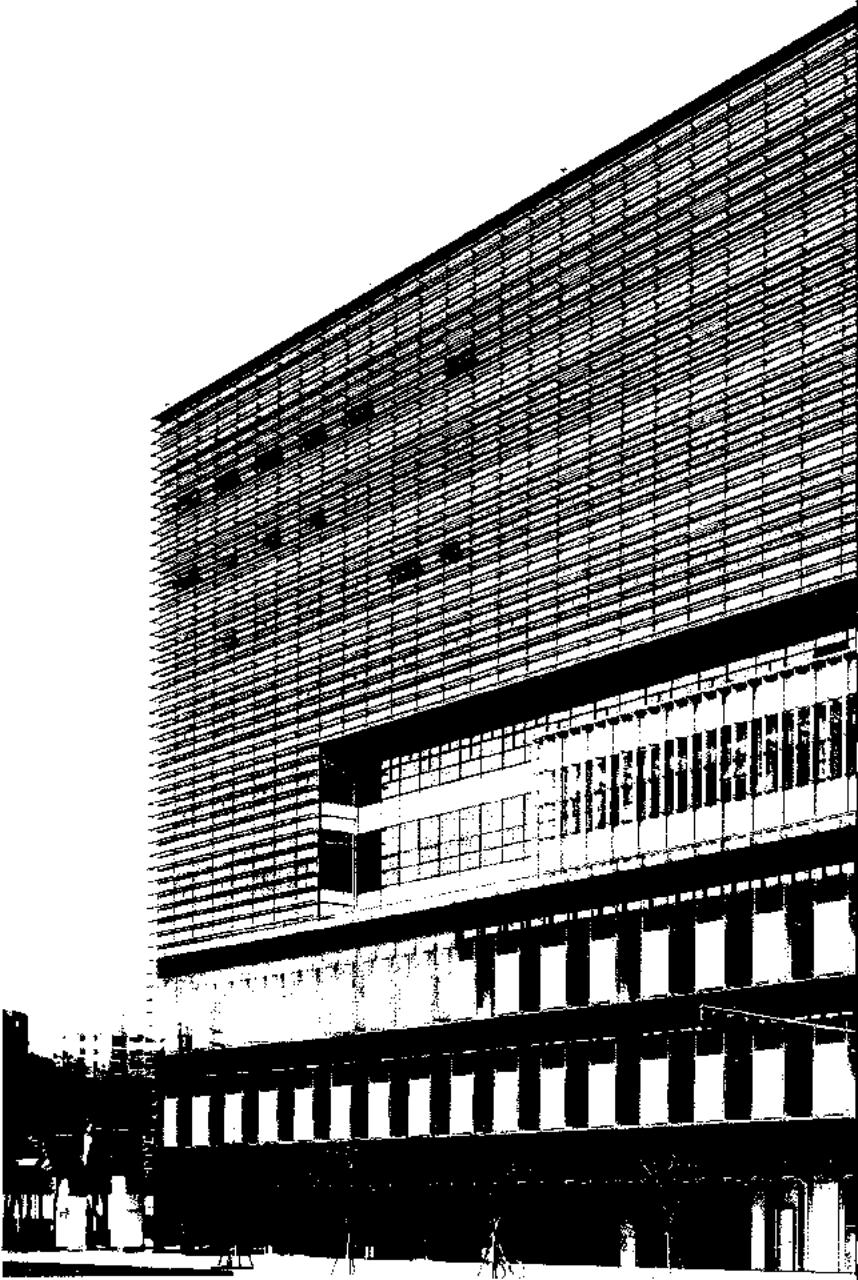
Architects	Koh, Kwang-seog, KIRA · Lee, Sang-hwa		
Project Team	Lim, Sun-kyoung · Kim, Sang-joon · Kang, Dong-su · Choi, Hee-sub · Lee, Gi-won · Lee, Seung-jin		
Client	Woori-Bank		
Site Area	8,659.0m <sup>2</sup>	Location	Seoul Mapo-gu Sangam-dong DMC
Gross Floor Area	81,475.03m <sup>2</sup>	Building Area	5,169.15m <sup>2</sup>
Floor Area Ratio	536.46%	Building to Land Ratio	59.70%
Structural Engineer	Baum Structural Consultants		
HVAC Engineer	Samoo Mechanical Consultant		
Electrical Engineer	Che-il Engineering		
General Contractor	Samsung C&T Corporation		
Building Scope	B5, 12F		
Finishing Materials	Out_Aluminium, Stainless Steel, Glass curtain wall In_Wood, Stone, Carpet		
Photographs	Park, Young-Cheon		
	Cost not discl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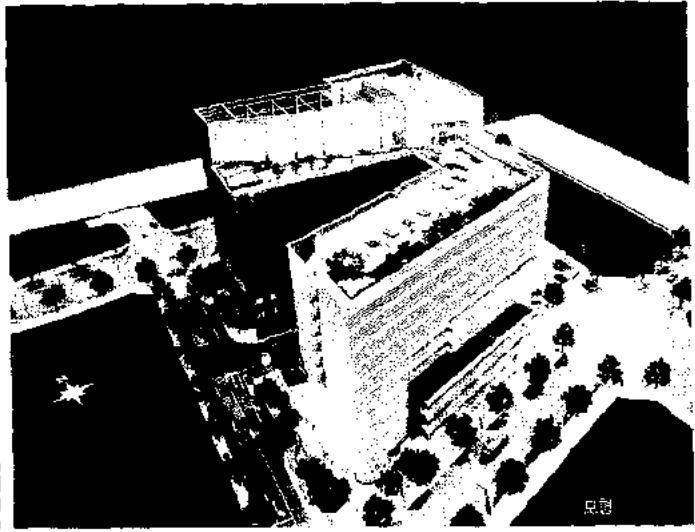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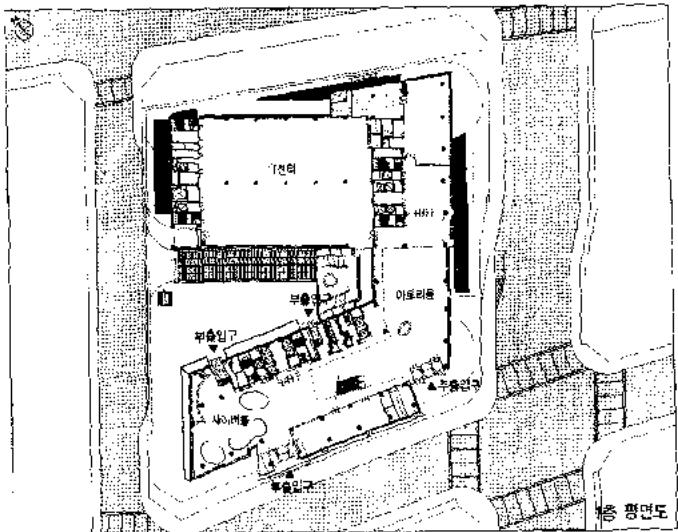
우리금융 상암센터는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 가로인 디지털미디어 스트리트가 면하는 A블록에 위치하여, 상암동 DMC의 시작을 인도하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금융의 기업이미지를 반영한 건물 외관을 통해 '나와 너가 만나 우리로 하나 되는' 과정을 수평루버 매스와 수직루버 매스의 심플한 조합으로 구체화 시켰다. 데이터의 축적을 암시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캡핑 부분을 일면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접적회로는 매스 형태로 구현하여 DMC의 장소성을 조형화했다. 또한 파사드에서 상이한 두 부분이 '우리'로 하나 되는 느낌을 강조하여, 저반사유리와 로이유리, 메탈 실버페널과 메탈 그레인매탈, 메탈 루버와 유백색 강화접합유리 등 색조와 재질면에서 강한 대비를 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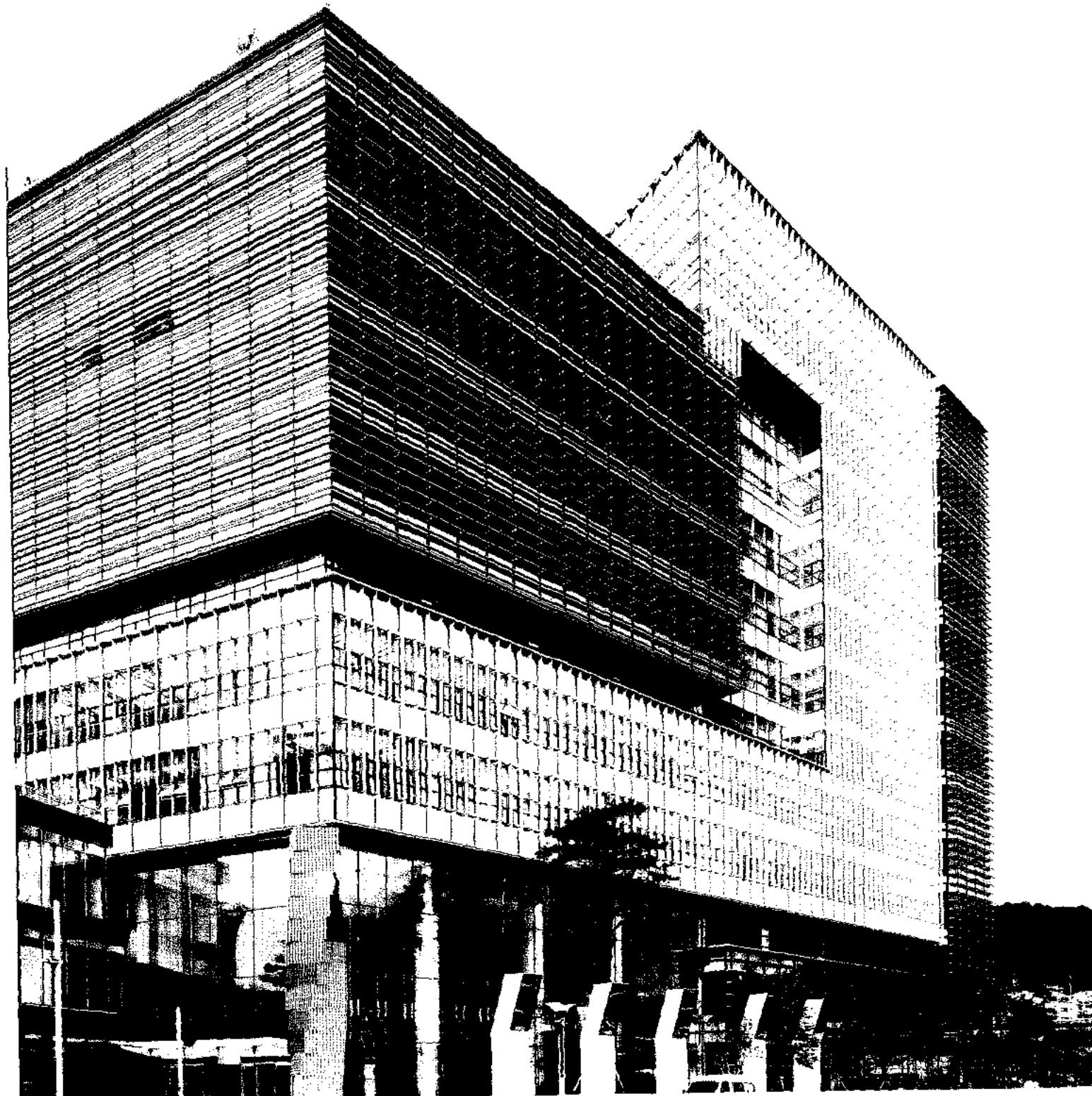
전체 시설은 크게 은행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첨단업무시설인 BPR Center와 우리은행의 전산 솔루션을 연구개발하는 공간인 IT센터 및 R&D Center로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 시설을 기능적으로 명쾌히 분리하는 동시에, 통합적 공용공간 조성을 위해, 약 12m높이의 대형 아트리움이 진입공간에 계획했다.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와 면하는 전면부 3층 규모의 저층형 매스에는 DMS를 지나가는 보행자와의 인터랙티브한 환경구현을 위해 3단띠형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었으며, 카페, 소매점, 은행 지점, 외국인전용금융센터 등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한 시설이 우선 배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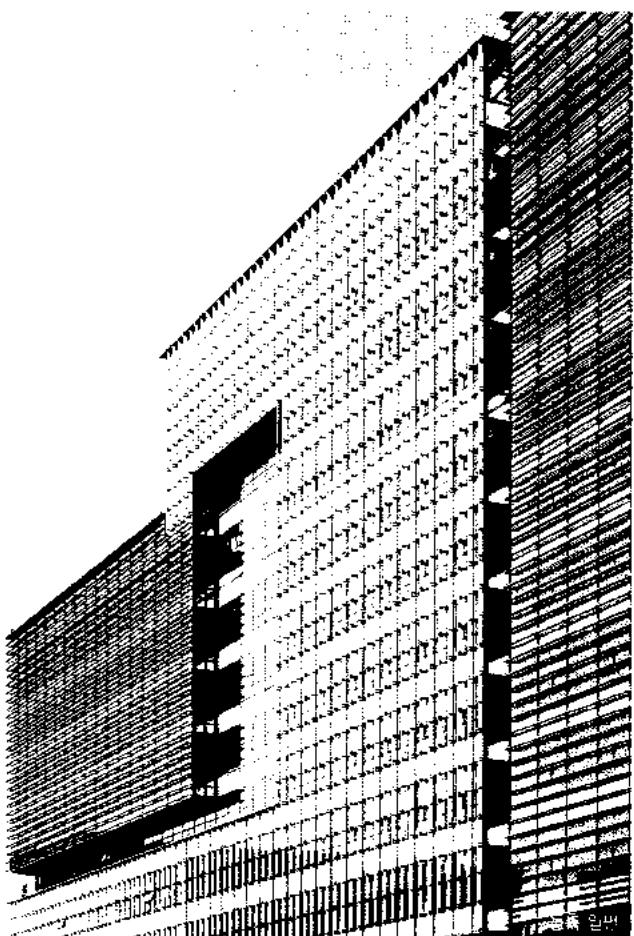
Woori Bank Sangam Center sits on the A block that faces the Digital Media Street, the world's first ubiquitous avenue, to be the gateway that leads to the entrance of Sangam-dong DMC. The exterior of the building that reflects the corporate image of Woori Financial Group has further specified through simple combination of the horizontal and vertical louver mass. The place-ability of DMC has been formed by making the stainless steel capping which implies the data accumulation in the elevation and the form of a mass which implies the integrated circuit that transfers data. In addition, the two disparate parts at the facade has emphasized the feel of becoming 'Woori in Us' to induce sharp contrast in view of hues and materials such as the low reflectance glass, low-E glass, metal silver panel, metal gray panel, metal louver and translucent laminated glass etc. The overall facilities are comprised of the BPR Center, a cutting-edge business facility that renovates the process of bank affairs, IT Center, and R&D Center where the computation solution is being studied and developed. The large atrium of about 12-meter height in the entrance space separates these three different facilities by their functions while it makes the integrative common space. The three stories of the lower levels facing the Digital Media Street have been installed with the three-layered band type media board to create the interactive environment for pedestrians. In this note, the facilities for communications such as a cafe, retail shop, bank branch office, financial center are placed firstl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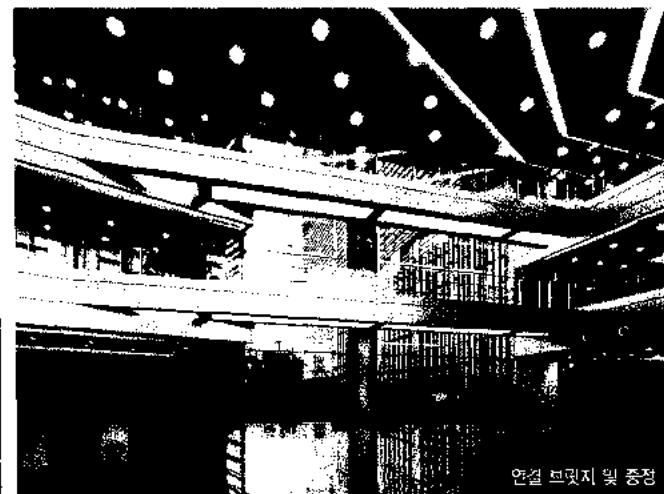
OSM에서 바라본 전경







아트홀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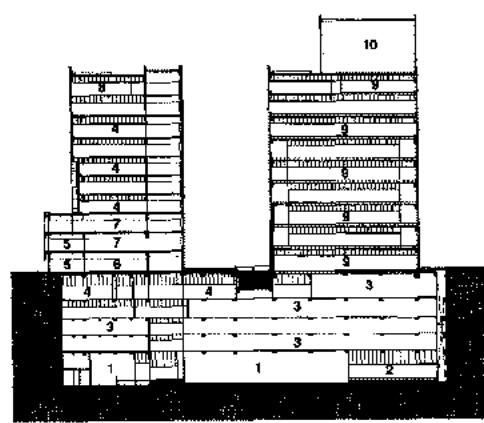


연결 브릿지 및 중정



정면도

우측면도



- 01. 기계실
- 02. 전기실
- 03. 주차장
- 04. GPR CENTER
- 05. 근린생활시설
- 06. 리틀체
- 07. 옥
- 08. 식당
- 09. IT센터
- 10. 중점마당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SK경영관

## SK Hall, SNU Business School

신동재 / 정화원, (주)다음건축사사무소

서울대학교 SK경영관은 1990년도에 지어진 건물로서, 이번에 기존의 300여석의 강당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SK그룹의 후원으로 4층 규모의 강의실들을 증축하는 프로젝트이다.

경영대학들은 관악캠퍼스의 입구에 위치하여, 중심을 중심으로 벽돌외장의 주건물들과 여와 대비되는 LG경영관이 인접되어 있으며, 향후에 이들 간의 연결과 추가증축을 통하여 하나의 경영대학 단지가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영대학 측과 초기부터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정립된 프로그램과 요구사항은 수준 높은 강의환경의 확보와 함께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여 다소 혼란한 기존의 건물 구조 통합하여 경영대학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배치계획은 중정중심의 형태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옆 건물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은 45도 들어진 측으로 결정되었다.

경사진 강의실들의 높은 층고와 추후에 연결될 LG동과의 관계에 의해 이번 증축건물은 기존건물과 각층에서 1m~2m정도의 레벨차이가 생기는데, 이의 자연스런 연결과 함께 증축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과제로서, 철골조와 RC조의 구조보강 및 접합과 같은 기술상의 문제점과 함께, 기존벽돌건물과 LG관의 회강식 외관과의 조화가 가장 큰 목표가 되었다.

전면의 붉은벽돌은 경영대의 상징과도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의 건물은 밝은 석재외주로 지어졌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에서는 광통되는 매개요소로 유리와 다소 중립적인 고동식의 재료를 사용하여 이들 간의 통합을 추구하였다.

프로그램은 1층 대형강의실, 2, 3, 4층의 중, 소강의실과 세미나실로 구성되어있다. 1층강의실 로비의 방향을 중정으로 향하게 하여 투명한 전면유리를 통해 외부정원이 안으로 도입되고, 반대로 덤덤해질 수 있는 안마당에 훌륭한 개방감을 부여하였다.

이 같은 배치에 따라 강의실의 평면은 크게 흰 부채형으로 되어 강단과 각석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객석간의 시선교차가 가능해져서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침여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현대적 강의 공간이 형성되었다.

기존 건물과 만나는 연결부는 각종의 레벨차이에서 오는 상, 하부가 입체적인 공간으로 계단형의 목재리운자와 투명한 유리외벽으로 형성되는 로비가 형성됨으로써, 평면적 방향전환과 레벨차이라는 문제점이 오히려 활기차고 개방적인 공간의 형성이라는 결과로 완성되었다. 흰벽면에는 수직 몽재루버로 마감하여 강의실을 강하고, 강의실은 와인색의 청열을, 이에 부속된 분과토론 세미나실은 녹색의 지성을 상징하였다. 내부의 짙은 색상계획은 차분한 회색 톤의 외관밖으로 노출되어 승거진 힘력을 보여주게 된다.

서쪽을 향한 정면의 진입부에서는 기존벽돌건물에 유리의 로비와 계단실이 조형적으로 결합되도록 하였는데, 상부로 솟아오른 투명한 유리마스는 옛것과 새것이 오버랩 되어 교문에서 보아 새로운 시각적 초점이 되게 하였다.

This project - the SK Hall of Business School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ponsored by SK group - is newly adopted four-story lecture facility on the existing 300-seat auditorium built in 1990.

The Business school has suggested the guidelines and detailed programs which are required in the long-term master plan that is going to give a new order to existing facilities.

The existed buildings which are assembled in the central courtyard are considered to be connected and expanded to new parts and expected to build a cluster for college of Business. The main axis of the new building will be rotated from the existing axis of buildings to minimize the damage of courtyard from the new construction.

The 1 to 2 meters different floor levels of both parts have a vertical gap in the required new project level and this is the main task of the project that should be solved for the building connections, structure and material f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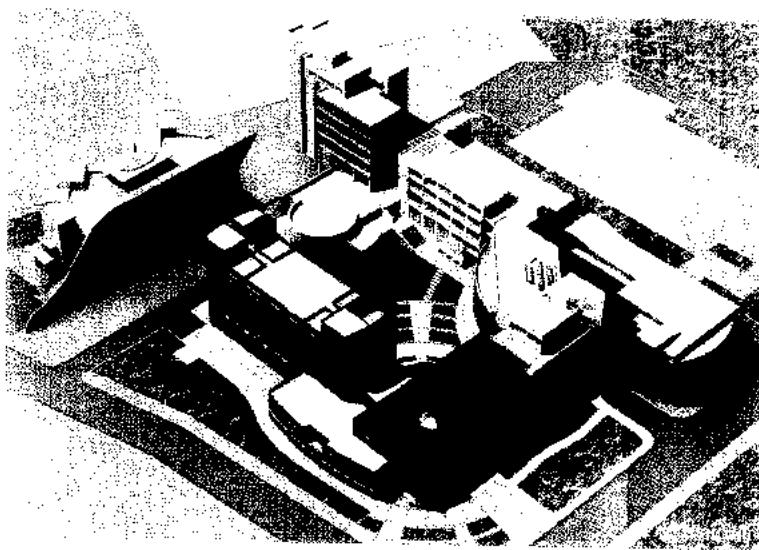
New building includes an assembly hall in the ground level and small to medium-sized lecture rooms are planned in upper levels. The lecture rooms are fan-shaped and have the reasonable distance from stage to seats which is able to improve the communications between both sides. The curved wall of lecture room is wood-finished. More over, passionate wine color is applied to lecture room; intellectual green color is to seminar rooms and they are exposed to outside looking active and vivid. The difference of floor level makes the hall being stereoscopic. The existing red-brick facade had been symbolic for the business school and new applied materials are stone, metal, and glass for the building connecting part which reveal divergent but organic unity.

The lobby has the transparent glazing facade that could open to central courtyard and it makes various activities. Moreover the facade of south core is designed as glazing to improve natural lighting performance and openness for visually closed corridor.

The glass mass of main entrance towards west is planned to well-organized to the existing brick masses and it means that new designed building and existing ones look well-overlapped and they are expected to be a new focus at the campus gat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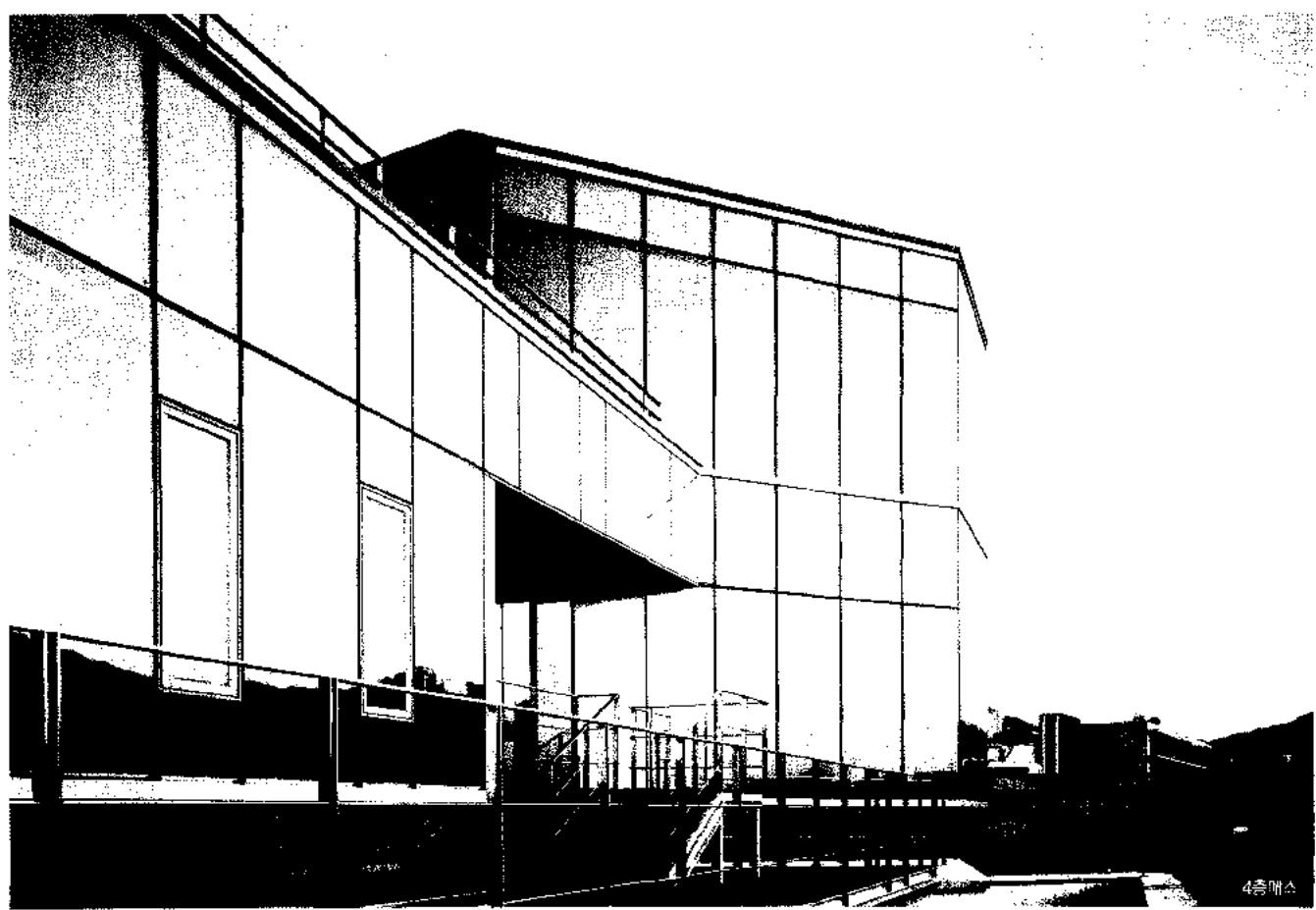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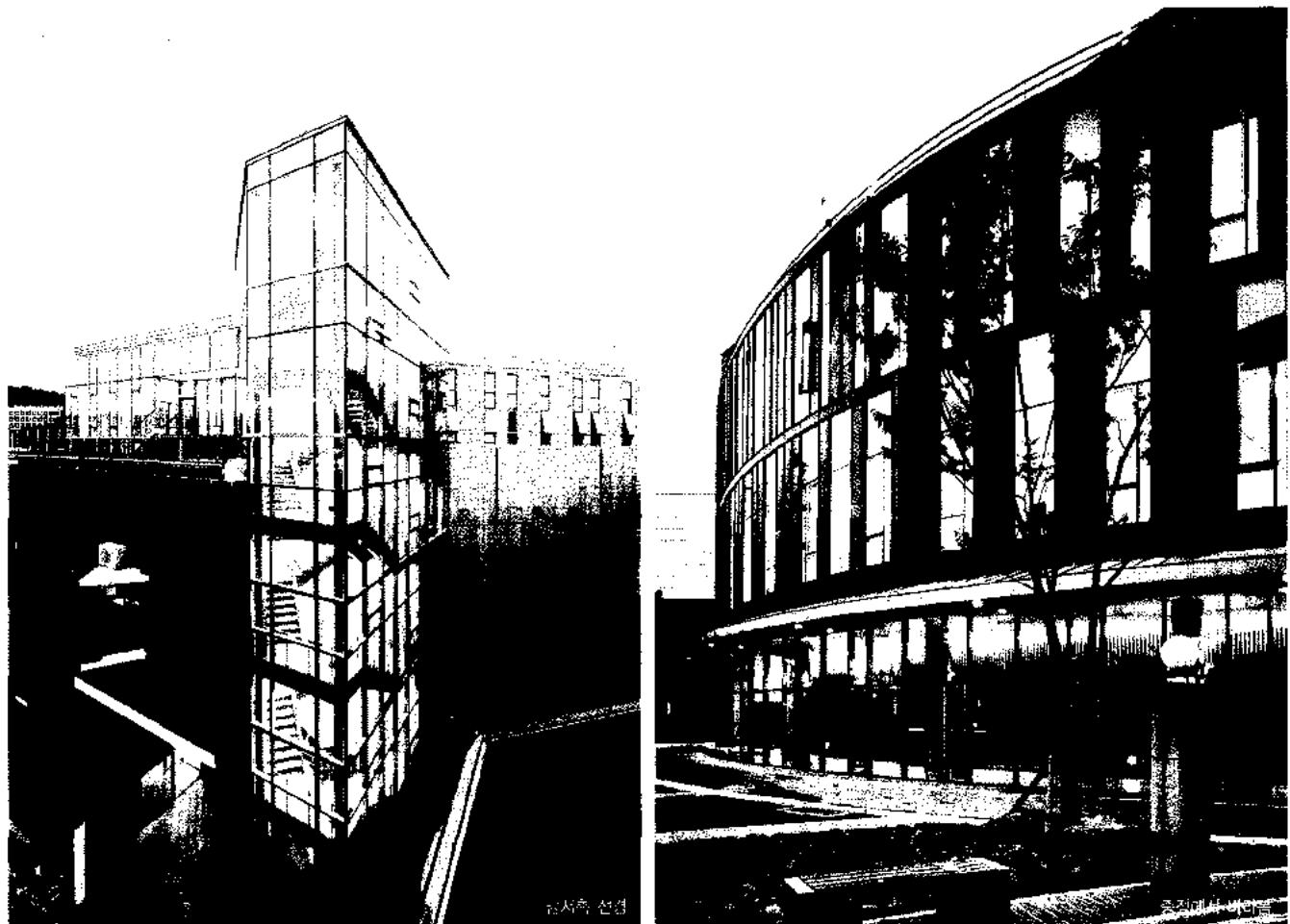
Architects	Sheen, Dong-jae, KIRA
Project Team	Kim, Heung-yeol · Kim, Mee-seop · Kim, Eun-young · Park, Jong-seok
Client	SNU
San	56-1
Building Area	267,953.89m <sup>2</sup>
Building to Land Ratio	6.88%
Structure	S.R.C
HVAC Engineer	Mido Mechanical & Engineering Co.,Ltd.
Electrical Engineer	Woolim General Engineering Co.,Ltd.
General Contractor	SK E&C
Finishing Materials	Goheung stone, Zinc sheet, Paint, glass
Photographs	Park, Wan-soon
Cost	not discl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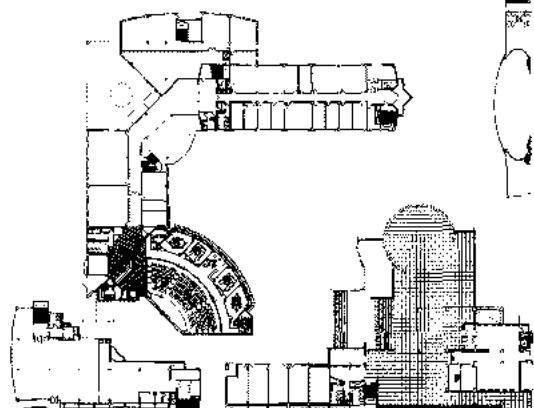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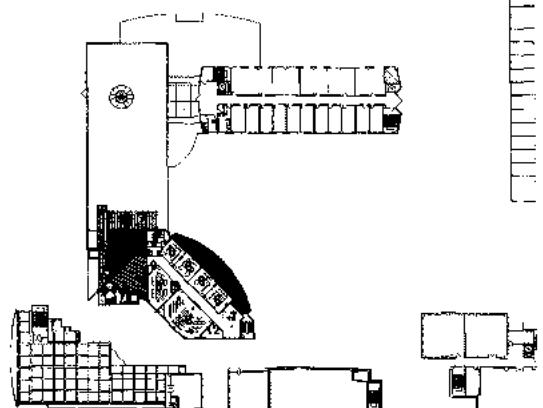
안마방 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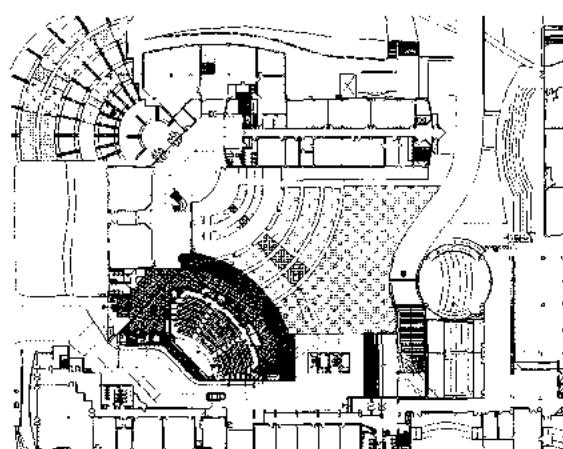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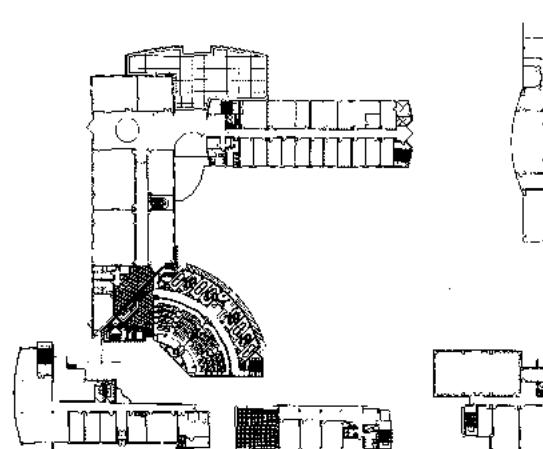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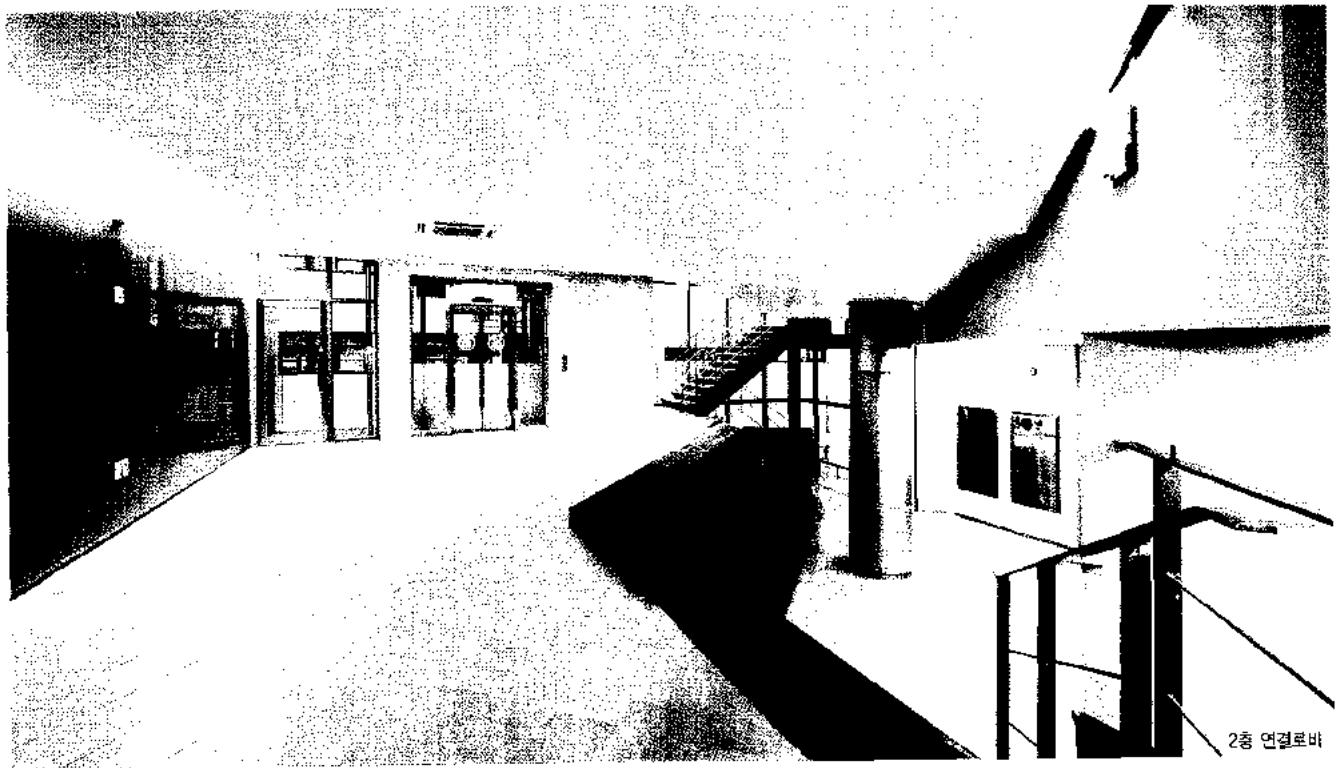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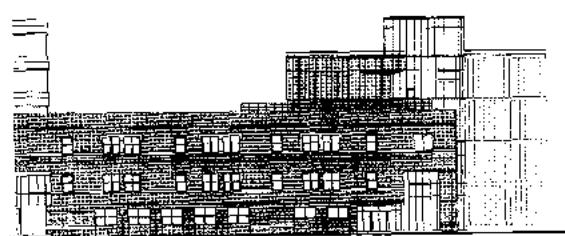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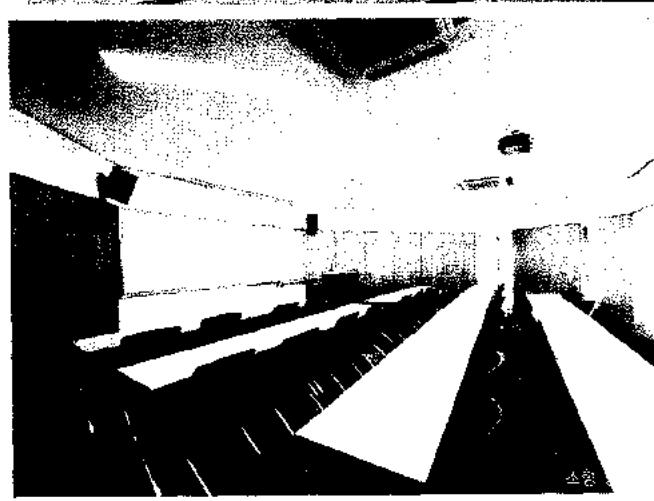
3층 평면도

- 01\_로비
- 02\_대회장의실
- 03\_주정실
- 04\_성고
- 05\_중청상의실
- 06\_세미나실
- 07\_후개실
- 08\_소협강의실
- 09\_준비실
- 10\_뮤지컬로의실
- 11\_뮤지컬로운지
- 12\_강시대기실
- 13\_D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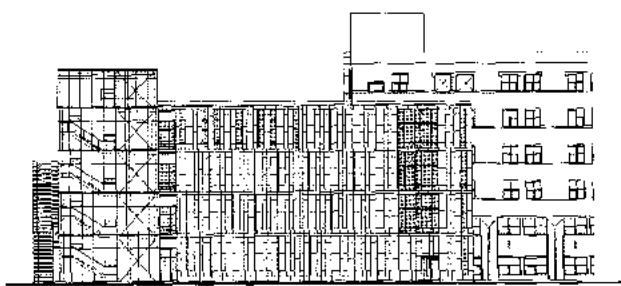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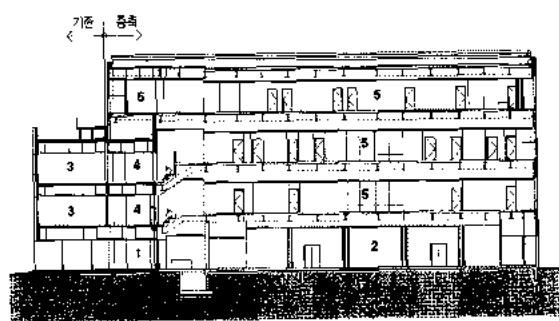
계단 내부어沙 바라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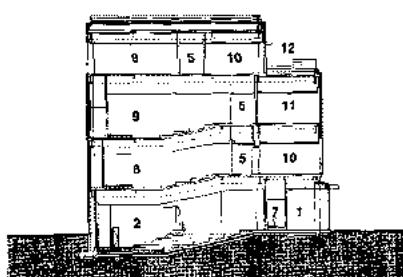
정면도(서쪽면)



우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 01\_트비
- 02\_대형강의실
- 03\_동아리실
- 04\_홀
- 05\_복도
- 06\_홍개라운지
- 07\_조경실
- 08\_승강장과입
- 09\_스튜디오와입
- 10\_세미나실
- 11\_나임트의실
- 12\_Deck

# 대치동 근린생활시설

**Neighborhood-Convenience Facilities, Daechi**

오늘은 건축사는 오픈 시간 중간에서 재직하다. 어반엑스로 독립한지 이제 5년이 되었다. 40평 주변에 사로한 사무소이지만 그의 정체는 이야기 하듯 한정감 있는 사무소와 다양한 기록들을 소장하고 있었다. 특히 도시의 과정되는 것들에서 많은 생각을 드리하고 있는 오 건축사는 사무소 이름처럼 도시에 필요한 중요한 일들을 하시며 관찰하고 있던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어반엑스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 보다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고 느끼면서 저작자 그의 사무소에서 재미있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건축과 사무소 운영 등에 대한 그의 생각과 이 인터뷰를 듣는 드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기 기대한다.

글 유정훈 교수, 박인수 건축사



●●● 유정훈(아하 뮤) : 지금까지 여러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회째 인데 점점 그 내용이 잘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그걸 보았습니다.

●●● 박인수(아하 뮤) : 오늘 이미 오셨던 건축사께서 그간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는 고령에 속하실 겁니다.

● 유 : 아마도 최근엔 건축사나 박유진 건축사 품과 비슷한 연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연령대에 속하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성직한 실무를 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저녁 교육과 함께 보다 치열한 살아온 일기로 가장 읽상해야 할 시기에 MF를 찾는 다른 사람입니다.

● 박 : 오늘 이야기는 주로 민간 프로젝트이고 근린생활시설인 자동차전용 전용건축물이란 점이 주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울에 앞서서 먼저 오셨을 건축사님과 사무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청하여야 하겠습니다.

● 유 : 우선 오셨을 건축사님은 경건과의 관계를 맺 수가 없을 것 같더군요.

● 박 : 이것이 원서동이나 공간과 가깝죠.

●●● 오섬훈(아하 뮤) : 출입하고 한 24년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오래 있지는 않았나 말씀했습니다.

● 유 : 오 건축사님보다 더 오래 공간에 머무신 분도 있을까요? 또 당시 김수근 선생은 어떤 일을 하고 하셨나요?

● 오 : 이상립 대표나 서해적 소장 정도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당시 김수근 선생은 마산성당을 편집하고 있었고 청주박물관과 경북교회를 설계 중이었고 매우 바쁜 시기였습니다.

● 유 : 김수근 선생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맡기셨나요?

● 오 : 일주일에 한 번씩 디자인 리뷰를 하였는데 당시 실장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었지요. 하지만 선생 자신께서 실제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전형의 방향과 설계의 가이드라인을 끄적이 제시하였습니다.

● 유 : 물류비 주경기장 등도 그 무렵 프로젝트 아닌가요?

● 오 : 그 당시에 사공을 하고 있었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당초 설계에는 차분이 있었지만 사공이 문제로 해석되거나 8601시민계획과 관련해서 복합 문화복합경기장과 비교해 차별을 동시에 완성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모르셨죠?

● 유 : 네. 전혀 몰랐습니다. 입시하여 처음 주어진 프로젝트는 무엇이까요?

● 오 : 반년동안 일 했었던 진주박물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든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정세양 선생이 처음 실장이 되어 두 건의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하나는 진주박물관이고 또 하나는 덕성여대 빙글관이었습니다. 당시 진주박물관의 부지는 진주성 안쪽이었는데, 성내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이트 답사 샤 김수근 선생과 정세양 선생도 함께 갔는데, 주민들이 “왜 우리를 내쫓으려 하느냐?” 하는 반응이 많았습

인턴뷰 일자 2010년 7월 21일

장소 어반엑스 오섬훈 건축사실

참석자 (주)건축사사무소 어반엑스 오섬훈 건축사

우송대학교 건축공학과 유정훈 교수

(주)파크아이즈 건축사사무소 박인수 건축사

2010.08.01

니다. 그래서 부지의 위치가 원래보다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인근에 축석루가 있어서 스케일상으로 축석루 보다 커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끊어고, 스케일을 줄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 유 : 그러니까 오셨을 건축사에게 첫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것은 진주 박물관 이었겠네요. 대개 우리들에게는 처음 접한 것이 마음속에 상당히 크게 자리 잡는 것 아닐까요?

● 오 : 뭐, 그 때에는 경험도 실력도 아직 자라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 것입니다. 재미있었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알고도 만들고 모르고도 만든다는 이야기가 맞는 게, 당시에 박물관 지붕의 모형을 만들고 있었고 또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보는 중에 김수근 선생이 그 중 하나를 집어서 좋다고 하셨어요. 너와 지붕 비슷한 암이었는데 저는 그게 좋은지 당시 잘 몰랐거든요, 아마도 스케일과 관련된 이유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 :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프로젝트가 이어졌나요?

● 오 : 종암동에 국민은행 전산센터라고 있었어요. 당시 은행들이 전산을 막 도입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때 장충동의 경동교회가 거의 완성되어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저녁 먹고 야근하는데, 김수근 선생이 들어오셔서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큰 박스의 형태로 간 건물이었는데, “이게 왜 긴 박스로 만들어 짓는지 아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잘 모르지만 대답을 하니 맞다고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동교회가 장충동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처럼, 국민은행 전산센터는 종암동에서 ‘environmental sculpture(환경적 조각)’이라는 개념으로 제안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당시의 저로서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지요.

● 유 : 동네마다 랜드마크를 하나씩 만들고 싶었던 것이 김수근 선생의 생각이었던가 봅니다.

● 오 :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환경적인 조각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 유 : 그럼 나중에 실장이 되어서, 책임을 가지고 진행하였던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오 : 벽제화장장의 경우, 아직 실장이 되기 전이었지만, 김수근 선생 둘 아가시고 공간이 새로운 전기를 맞는 그런 시기였어요. 화장장의 설계가 교회보다 더 어렵지만, 공간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았어요. 공간의 켜들을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삶에서 죽음으로 이전되는 것을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였죠. 그런데 공사비가 워낙 많이 나와서 나중에 콘크리트를 석고보드로 변경하게 되었던 것이 지금도 아쉽습니다.

● 박 : 공간에서 나오시가 직전에 하셨던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 오 : 태백에 있는 안전체험 테마파크였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체험관을 테마파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진 체험, 풍수 체험 등 이런 것인데요, 태백의 폐광지역을 관광 사업화하는 것이었지요.

● 유 : 그런 후에 사무소를 차려 독립했던 말이죠. 그 과정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박 : 사실 매우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오래 계셨었는데, 왜 나오게 되셨나요?

● 오 : 음… 당시에 저와는 잘 맞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사무소의 딩치는 자꾸 커지고, 또 사무소의 운영도 달라지고…, 공간에서 제가 턴기를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마산 농수산물시장 프로젝트였는데, 해보니 더는 못 하겠다고요. 시공사가 건축을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죠. 그래서 턴기는 못하겠다고 회사에 말하기도 하였었습니다. 또 개인의 색깔과 비전을 갖고 싶은데, 당시 그런 것을 만들어 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고민하면서도 나온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 유 : 나오셔서 바로 후회가 있었나요?

● 오 : 바로는 아니었고, 한 1년 지나서 약간 후회가 있었죠… (웃음) 큰 사무소에 있다가 나오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쪽박 찬다’라는 일들을 해요. 하지만 다행이도 지금까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유 : 생각해보면, 공간이란 옷을 입고 있다가 나오셔서 발기벗겨지는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럼 지금 한 5년 되셨나요?

● 오 : 올해 말이면 그렇습니다.

● 박 : 사무소 이름이 어반엑스인데요. 어떻게 만든 이름인가요?

● 오 : 사실은 파트너십의 사무소를 하고 싶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김광현 교수에게 빼를 쓰다시피 이름 하나 지어달라고 했어요. 도서의 개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엑스(Ex)’라는 것을 잘 써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김 교수의 의견을 들어, 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유 : 부정적인 의미의 엑스(X)가 아니라 더 많은 긍정을 내포한 EX란 뜻이었군요.

● 오 : 네, Exposure, Extreme, Expert… 같은 생각을 했었죠.

● 박 : 5년 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반엑스가 다른 사무소와 차별화되는 점이 있을까요?

● 유 : 그간 공간에서 실력을 다지다가 시작하신 것이니, 뭔가 다른 점이 있긴 하겠지요?

● 박 : 둘러보니까, 오피스, 특히 자동차 전시장 등의 근린생활 시설이 많은 것 같아요.

● 오 : 그게 참 서로선 난감한 질문인데요. 나와서 지금까지 어찌어찌 하다 보니 말씀처럼 오피스나 자동차 전시장 같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 유 : 클라이언트들이 어반 엑스가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오셨던 건축사를 찾아오나요? 아니면 찾아다니며 그러한 제안을 하시나요?

● 오 :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고, 현상에 참여도 하지요. 특히 작년에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상을 몇 개 했는데, 잘 되었어요. 종

로의 피맛골 도시 프로젝트가 당선되었고, 강남성심병원의 전면 리모델링을 하였고, 경춘선 폐선 부지가 있는데, 조경과 함께 해서 당선되었죠.

● 박 : 피맛골과 경춘선 폐선 부지 프로젝트는 공공 프로젝트였겠네요. 일반적으로 어반엑스에서 참여하는 공공과 민간 협상설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실 수 있나요?

● 오 : 작년의 경우, 민간은 하나였고, 나머지는 다 공공이었어요. 민간 협상은 저희가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위험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결국, 저희는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 유 : 현재 직원 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 오 : 13명입니다.

● 박 : 감리도 하시나요?

● 오 : 네, 그렇습니다.

● 박 : 그럼 한 13명 정도의 인원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 오 :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설계실 조직으로는 한 15명 정도가 좋은 것 같긴 합니다만 사무소의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주변에 co-work 할 수 있는 조직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다가 나가서 차린 분들도 있고 해서, 실시설계를 나눠서 한다든지 현상설계에서도 이렇게 협력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 : 그러니까 사무소 규모를 맞추기보다는 네트워크 식의 업무를 지향하시는 거군요.

● 오 : 저하고 일을 해보았거나, 공간에서 같이 나왔던 친구들인데, 서로 잘 알고 하니, 저로선 참 좋더라고요. 또 국민대학교, 제자들 중에도 사업을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무소에서는 실시설계를 30%정도만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소 안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조직도 잘 만들어져야 하고, 그런데 좋은 사람이라는 게 참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들과 일을 잘해서 좋은 것을 뽑아내야 하는데, 제가 아직 수양이 덜 된 것 같기도 합니다.

● 유 : 실장급 정도의 직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 오 : 세 명이 있고, 한 명이 건축사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차장이 일을 주관할 수도 있지요.

● 박 : 국내에는, 뭐 국외도 그렇지만, 설계의 진행 단계가 있잖아요. 국내기준으로는 용어상 기본, 중간, 실시 설계로 나눠지는데, 어반엑스에서 업무를 진행하실 때, 이 구분이 잘 이뤄지고 있나요?

● 오 : 네, 비교적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 박 : 그럼 각 설계 단계를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물론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 있지만, 이 사무소에서 남과는 색다른 특별한 것이 있나요?

● 오 : 대체적으로 계획 설계는 안이 정해지고, 기계, 전기, 구조 등과 협의를 한 다음에 공문을 보내면서 회의를 하면서 확정된 안으로서의 선을 긋게 되죠. 물론 현상설계에서는 자연스럽게 계획 설계가 완료되고요.

● 박 : 그렇다면 계획 설계는 안을 만들고 컨설턴트들이 각 분야의 진행 방향과 컨셉을 결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군요. 중간 설계는 어떻게 운영 하시나요?

● 오 : 공사비를 확인하고, 예산을 생각해 보고, 또 컨설턴트들의 각 분야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되죠.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 박 : 공사비를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어반 엑스에서 진행하시는 프로젝트들은 예정 공사비에 잘 부합하고 있나요?

● 오 : 반드시 잘 맞는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견적시스템에도 있는 것 같아요. 견적 단기가 워낙 높게 되어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실행금액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설계단계에서 금액을 맞추는 것이 꼭 성공적인 예산을 맞추었다고 보기도 어렵게 되는 것 같죠.

● 박 : 지금까지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기뻤던 것과 안 좋았던 것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오 : 매일 기쁘다고 해야 하나요?(웃음) 뭐 사실, 처음 사무소를 차리고 나선 저의 정체성이 혼란이 있었어요. 제가 공간에 있는 건지, 아님 나온 건지 제 자신도 잘 적응을 못했었죠. 나빴다가 보다는 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세라든지, 어떻게 일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특히 사람과 조직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저는 20여 년간 공간이란 브랜드와 함께 했었죠.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 공간이란 프리미엄을 갖고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나와서 보니까 외부 및 내부의 다양한 시선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죠. 사실 큰 사무소는 짧은 직원에 집중하여 업무를 진행 시키잖아요. 하지만 저희 같은 사무소는 언제나 그럴 순 없는 형편이죠. 결국, 저는 직원들의 잠재력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잘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 유 : 독립해서 나간다는 것이… 사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간이라고하는 institution, 또는 일종의 학파라고나 할까요? 그 역사가 초기부터 그러하였던 것이잖아요. 김 원 선생이나 윤승중 선생, 류춘수 선생들이 그러했고 나중에는 박유진, 최상영 건축사님들이 그러하네요. 공간 출신이라는 점이 어반엑스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오 : 먼저 나가신 분들이나 저나 그간 공간에서 해왔던 것들이 토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부정할 순 없죠. 시대적인 차이가 있을 잔 몰라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 : 저희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건축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 모두 어떤 사무소에서 일하시다가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단 몇 년을 근무하다 나올 수도 있고, 혹은 20여년을 근무하다 독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 근무 연수의 차이가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궁금한 내용입니다.

● 박 : 확실히 오랜 기간 근무하고 나오신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빨리 차리신 분들은 차리신 후 경험을 새로 해야 되는 게 매우 많고, 그러다 보니 우여곡절을 겪을 일이 많으신 데 비해, 오랜 기간 근무하신 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의 문제가 생길 순 있겠지만요.

● 오 : 동감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 박 : 그런 점에서 오늘 인터뷰하는 오세훈 건축사님의 경우에는 이 글을 읽으시는 메이지금 건축사사무소의 40~50대 여러분에게 적지 않은 가이드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까지는 사무소를 오픈하셔서 힘들었던 측면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구요. 이제는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 오 : 현상에 당선되면 당연히 기분 좋죠. 의외로 된 것이 작년에 피맛길 현상이었어요.

● 박 :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 : 종로 뒷길인 청진동 피맛길 있잖습니까?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개발을 하다 보니 이런 길들이 자주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일반인 등을 상대로 아이디어 공모를 현상하였어요. 그때 제출하러 갔더니, 저희 직원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거예요. 만나서 기분 좋았습니다.

● 유 : 언제 실현이 될까요?

● 오 : 현재 공사 중이니 끝 될 것입니다.

● 유 : 혹시 오세훈 시장과 친척관계 입니까?

● 오 : 아닙니다.(웃음) 누가 동생이냐는 소릴 가끔 듣습니다.

● 박 : 사무소는 아무래도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일 텐데요. 오 건축사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직원상이 있나요?

● 오 : 좀 끈질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끈기 있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집요하게 하는 사람… 예를 들어 건축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그런 집요함과 끈질김이 절실히합니다.

● 유 : 혹시 직원들이 오 건축사님께 너무 의존적이진 않나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대개는 대표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기대어 그냥 방관하는 경우가 있진 않나 해서요.

● 오 : 그럴 수도 있어요. 바쁘니까 제가 그냥 진행하고, 그리고 협의하고 해버리는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선 스태프들이 부대끼면서 지라나야 하고, 또 그래야 저도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이 되는데, 그런 면에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 유 : 자기 뜻을 관철하고, 끌 수 있는 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군요.

● 오 : 그렇죠. 건축주의 생각이라는 게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른 사람 혹은 자인을 통해서 듣거나, 건물을 몇 번 지어 본 경험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잘 설득하면, 또 진심이 통하면 언제나 소신을 펼 기회가 있어요.

● 박 : 혹시 또 다른 직원의 역할이 있을까요?

● 오 : 글쎄요. 오랜 시간동안 지치게 일하다 보면, 일을 맡고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작년에 현강변 조그만 법당에 대해 사내 공모를 하였어요. 그래서 1등으로 당선된 안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약간 변경되긴 하였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자신의 의지를 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고요.

● 박 :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또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져서 설득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지식과 자신감이 쌓이려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련을 해야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오 : 솔직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괜찮은 친구들은 3년 정도 지나면, 일반적으로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 3~4년 정도?

● 박 : 반대로 소위 기본기라 할 수 있겠는데, ‘얼마 기간 내에 이 정도일은 해주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오 : 저희가 ‘자가 진단서’ 이런 걸 만든 적이 있어요. 연차별로,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법규, 건축 시공 등 각 아이템별로 한 스무 개의 항목을 만들어 스스로 평가해 본 적이 있지요. 그리고 나니 직원들이 자기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도와주고 조정하고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 박 : 그런 일이 미국건축사협회는 매뉴얼화되어 표준안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또 NCARB 등과 연계되어 교육에도 철저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내에도 이런 제도가 도입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는지요?

● 오 : 한마디로 절실히, 꼭 해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 : 혹시 공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오 건축사님 업무 배우실 때 말이죠.

● 오 : 있었는데, 그게 불문율같은 것이었어요.

● 유 : 공간이 처음에는 아틀리에 타입이었는데, 지금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나 예전에 있던 분들 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일에 임하는 모습이 다를 것 같아요. 또 여기 어반엑스에 계신 분들과 공간에서 일하실 때 함께 했던 분들과도 다를 것 같습니다. 차이가 무얼까요?

● 오 : 올 초에 경력직원을 뽑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경력직원은 아무래도 조심스럽습니다. 업무 스타일과 관심이 다를 수 있고 이것이 사무소를 매우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일했던 곳의 소장님인 마침 제가 이는 분이어서 연락을 드렸었죠. 그랬더니 그 분은 자기 사무소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무조건 뽑아도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저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저 정도로 직원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간 같이 큰 사



무소의 경우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공간 자체가 알려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알리겠다는 그런 게 있었던 것이지요. 저희는 본인 스스로 압박감이 덜 하죠.

● 유 : 전에 인터뷰 했던 분의 말씀 중에 '큰 회사에서는 뿐만 아니라 일 하기 때문에 성장이 더딘대 비해, 작은 사무소에 근무하면,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스스로 짓는 방법을 알게 된다' 는 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오 : 그 말씀이 맞긴 하지만... 건축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워낙 복잡하고, 깊어가 다양해서, 큰 사무소가 좋다 혹은 작은 사무소가 좋다 단언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 박 : 그럼 한국 건축에서의 문제점, 너무 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 생긴 문제인데, 파악해 보니 건축계 전반의 문제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실까요?

● 오 :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의 김광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의약 분야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각각 대도를 하고 치열했는데, '건축계 내부에서는 이런 비슷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치열하게 대응하고 있나?'라는 문제를 제기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건축계는 이런 내부의 문제보다 외부에서 건축에 대해 잘 안 해준다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큽니다. 제도를 탓하고... 그런데 건축사들이 자기편성이 필요한 때도 된 것 같아요. 현실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떻게든 타협하고 상황에서 해결하고 결국, 또 그 문제는 잠재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죠. 습관적인 팬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 : 저도 비슷한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건축 공무원과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은 왜 제도만 고쳐달라고 하고, 자신들

이 하여야 할 일은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고쳐 가면 뭘 것을 우리에게 왜 불행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여 창피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 오 : 건미준 같은 움직임이 있었을 때, 원로들도 함께 밤마다 모여서 무언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 유 : 그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럴지 못하다고 보시는 것이군요.

● 박 : 그때 그런 움직임으로 무언가 결과가 확실히 드러났으면 지금도 유효했을 텐데, 의미도 좋고 내용도 좋았으나 그 방법론의 파급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오 :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는 것 말이죠. 건설 회사들을 보면, 현대 그룹 등이 잘 나갈 때, 제도 없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죠. 건축설계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최근에 건설과 건축설계를 보면, 장하준 교수의 말씀한 '사다리 걷어차기' 같습니다. 먼저 오른 사람이 사다리를 치우는 것이죠. 터키가 그런 것이라 생각됩니다.

● 유 : 사실, 아직도 신문에는 누가 지었는지는 나오지만 일부러 찾아보기 전까지는 누가 설계했는지는 안 나오지요.

● 박 : 찾아도 안 나옵니다.(웃음) 그럼 이제 이 건물로 넘어가보죠. 이 건물이 균형생활시설이잖아요. 전체가 자동차 딜러(폭스바겐)에서 사용하는 건물인가요?

● 오 : 아닙니다. 1, 2층 전시장만 그렇고, 나머지 층은 일반 임대하는 시설입니다. 건축주가 자동차 전시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저층은 자동차 전시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 유 : 이 건축주는 전국에 이런 건물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겠네요?

● 오 : 그렇죠, 몇 가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 : 그런데, 사무소에서 설계하신 것들을 보니, 여러 브랜드의 전시장이 있는데, 모두 한 건축주인가요?

● 오 :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박 : 건축주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지요? 어떻게 건축주로부터 소위 '재구매'가 가능하게 하고 계신지요?

● 유 : 그러니까 이건 좋은 상품으로 건축주에게 만족을 주었다는 것 아닐까요?

● 오 : 하지만 저희도 적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건축주 측에서 몇 번 일을 하다 보니 신뢰가 생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현상공모로 돌린다던지 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포기 하려고 한 적도 있을 정도니까요. 건축주는 어반엑스의 단점과 장점을 이야기하며 단점을 보완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박 : 혹시 단점을 이야기 해주실 수 있나요?

● 오 : 엔지니어링 측면의 문제죠. 그런데 저희 같이 얼마 되지 않은 사무소는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 박 : 시공 중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었겠네요. 뭐가 잘 안 맞고, 층고가 안 나오고, 배관 꼬이고, 구조 싸우고… 이런 것을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추가로 비용이 발생했다면, 오랜 기간 동안 기억에 남지 않겠지요.

● 오 : 그렇죠, 하지만 다 지어지고 나서, 건물 좋더라는 소릴 들으면 기분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삼정호텔 리노베이션을 하였었는데, 나중에 건축주와 식사를 하면서, 공사 후 매출이 신장 되었다고 자랑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 박 : 저는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축사와 잘 협력하여 일을 했더니 매출이 올라갔더라.’ 등 무언가 건축주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례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계량화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건축사의 지위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유 :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가 생겼다더라 뭐 이런 식이 아닐까요?

● 박 : 하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연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눈에 생생하게 투자 대비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물질이 재구매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 중에 엔지니어링분야에 대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을까요?

● 오 : 사무소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아직 성과는 시원하지 않은 편입니다. 사실 이런 것도 협회차원의 가이드라인들이 미국처럼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 박 : 혹시 이 건물 수주하실 때, 이 건물에 대한 설계 목표 등이 제시되었습니까?

● 오 :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이것이 이미 허가를 받은 건물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시장을 1층에 두는 조건이다 보니, 전시장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외부에 있는 거니까, 내부 환경을 외부처럼 만들어 보자는 게 가장 주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도 유리 바닥을 깔고, 또 거리와 자동차 매장이 일체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로 쪽의 스크린을 매장 상부를 통하여 매장 뒤편으로 보내서 연속적인 입면을 통해 상부 임대부분과 매장을 구분하는 계획이었는데, 막상 자동차 매장을 보니 내부에 C.I.가 매우 많았고, 또 그 설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매장내로 끌고 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 박 : 그래서 이렇게 내부가 형성되었군요. 그런 점이 특별히 건축을 제어하는 요소가 되었네요. 나머지 상부는 일반적인 임대 건물로 진행이 되었나요?

● 오 :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유 : 임대 영역 쪽을 보니 뒤에 발코니 같은 게 있네요.

● 오 : 네. 용적률 관계로 일부 외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진행하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2층 바닥을 유리로 하든 것에 대해, 폭스바겐 아시아 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게 싱가포르에 있다는데 저희가 안을 만들어 보내고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매뉴얼이 있기 때문이었죠. 건축주가 한번 해보자고 해서 안을 보내었고 통과되어 이렇게 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에 즈음하여 각종 기준들이 제시되면서 시작하여, 곤란함이 있었습니다.

● 유 : 국내에서는 위낙에는 자동차 전시장이라는 게 그다지 멘시한 건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와서 수입차 딜러를 중심으로 멋스런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 같군요. 하긴 하디드도 BMW 전시장으로 반향을 일으켰고, 건축잡지에서 자동차 관련 건물이 실리는 것도 많아진 것 같은데, 어반엑스의 이런 프로젝트가, 물론 아직 작은 규모이지만, 그런 프로젝트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까요? 사실 고가의 상품을 팔기 위해 플래그쉽 스토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시에 이런 건물들이 자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 오 : 이게 작은 건물이긴 하지만, 도시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갖고, 또 개인의 사유재산과 도시의 공공성이 상충되는 면이 있으면서도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 : 그런 면에서 오 건축사님의 이 작품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에서는 자동차 전시장 방문객이 들어가고, 이면도로를 통해서는 상부의 임대층 이용자들이 다니게 되는 것 같죠.

● 유 : 딜러 측에서는 자기네 매장이면, 무언가 자신들만의 표정을 만들

려고 하는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설계 하신 다른 것도 비슷했나요?

● 오 : 네, 매장마다 그렇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 박 :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오 :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박 : 어반엑스에서 설계비를 산정하시는 기준이 있나요?

● 오 : 건축사 요율, 그리고 그에 따른 ~~설계비~~로 추로 하고 있어요. 한 80%선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프로젝트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유 : 이런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들이 갖고 있는 비용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요? 돈을 아끼나요?

● 오 : 아무래도 보이고 싶은 건물을 하니까 디자인을 중요시 하지요. 하지만 좀 싸게 하자 뭐 이런 식이에요. 누구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박 : 면면적이 한 2,000평정도 되는 군요. 적지 않네요.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되었나요?

● 오 : 실행으로 보면 평당 한 350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 박 : 설계비를 결정할 때 ~~제~~까 건축사 업무기준에 의한다고 하셨지만, 오 건축사님이 보시기에 건축주들은 면적대비로 진행한다고 보시나요? 아님 업무별로 산정한다고 보시나요? 건축주들은 일정 예산을 갖고 있을 테니까요.

● 오 : 물론 건축주들이 예산을 잡는 방법은 총공사비의 몇 %, 혹은 면적 단가로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계안을 받으면,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수긍할 만한 금액이면 진행을 하죠.

● 박 : 이 건물은 허가를 받은 후에 다시 진행한 것이니, 설계변경을 하여야 했겠네요. 혹시 문제가 있었나요?

● 오 : 별 다른 문제없이 잘 진행 되었습니다. 특히 바로 옆이 휘문고등학교 운동장이라, 주변에 영향을 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 박 : 아, 그럼 측면이 거의 영구적으로 노출되었군요.

● 유 : 그럼, 이건 매우 ~~행운이네요~~ 또 ~~간편히~~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리되었나요?

● 오 : 뒤편에 입구 쪽에 틈이 있습니다. 천연석 자동차 엔블럼만 있죠.

● 박 : 혹시 계약시 공사비 예산이 제시 되었나요?

● 오 : 최초엔 260만원/평 이었어요. 물론 이 때는 인테리어가 제외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실행과 유사한 금액입니다.

● 박 : 공사는 누가 담당하였나요?

● 오 : 건축주 직영공사라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 유 : 그러다 보니, 건축주가 금액이나, 공사에 대해 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네요. 그런데 이런 건물을 할 때 보면 시공자, 기획자, 건축주 등이 한데 모여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미리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오 : 그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자만 협조.

● 박 : 공사 진행하면서, 혹시 시공사와 부딪히거나, 현장에서 임의로 변경 내용이 있을까요?

● 오 : 거의 없었어요. 인테리어에서 딱 한 번 부딪힌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 잘 진행되었어요.

● 유 : 오 건축사님은 거의 감리를 직접 하시죠?

● 오 : 대부분 그렇긴 한데 딱 한 번 그렇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 불려 다녔죠. 아주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 박 : 혹시 도시적으로 고려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좀 더 있나요?

● 오 : 이 건물이 코너에서 휘문고 운동장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도시의 이정표 역할을 하길 기대 했습니다.

● 유 : 이런 건물을 설계하실 때 프로세스가, 대표의 결정을 직원들이 따르는 것인가요?

● 오 :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 건물 진행하면서 재미있었던 것은 우리 스태프가 스킨을 하나로 묶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전시장이 외부에 있으면 차에 접근하기가 더 좋겠다고 이야기 하였었습니다. 그 생각을 계속 발전시켰지요.

● 유 : 스태프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 편이라 할 수 있겠네요.

● 오 : 전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보완적일 수 있거든요.

● 박 : 외장 재료는 무엇인가요?

● 오 : 알루미늄, 석재 등이 섞여 있어요. 사진에서 짚은 것이 석재입니다.

● 박 : 근데, 여기저기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오 건축사님 건물에서 이런 질감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 오 : 표피에 깊이가 좀 있고, 그 음영을 이용해서 건물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서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 또 이 현장 소장이 좋은 건물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 디테일이 좀 복잡한데 성의 있게 전부 시공을 해내었어요. 저희가 일을 할 때, 어떤 현장소장을 만나느냐에 따라 매우 건물이 달라져요.

● 유 : 혹시 저희가 피워하진 못한 구조나 다른 분야에서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 오 : 뭐 특별하다기 보다도, 전시장 2층 풀로어는 밤에 잔디밭을 밟아온 것이 아니고 매달린 것이지요. 1층을 깨끗하게 만들고, 또 2층 슬라브의 원형 형태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 유 : 혹시 이런 것 설계하면, 설계비를 대물(자동차)로 주는 경우도 있나요? 농담입니다만.

● 박 : 전 그러한 경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잔금의 일부를 차량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박 : 혹시 이 건물 진행하면서 특별히 감사한 분이 계실까요?

● 오 : 매뉴얼과 다른데도, 한번 해보자고 한 건축주가 매우 감사하죠. 그리고 어려운 부분을 성실히 시공한 현장소장이 또 감사하고요.

● 박 : 이 건물 하시면서 좀 아쉬웠거나,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을 하는 등의 생각이 있으신지요?

● 오 : 사실은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한 게, 뒤편에 있는 보이드 부분인데, 측면이나 코너 쪽으로 위치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카 리프트 등의 소음을 감안해서 현재 위치에 두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유 : 손가락 깨물어서 안 이쁜 손가락 없겠지만, 그래도 어반엑스에서 한 건물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건물은 어떤 것일까요?

● 오 : 또 다른 자동차 판매 관련 건물인데 초기안이 아주 맘에 들었어요. 건물의 외부를 둘면서 올라가도록 했었거든요.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잘 오진 않더라고요. 어렵지만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 유 : 혹시 향후 해보시고 싶은 건축유형이 있나요? 주거 같은 것은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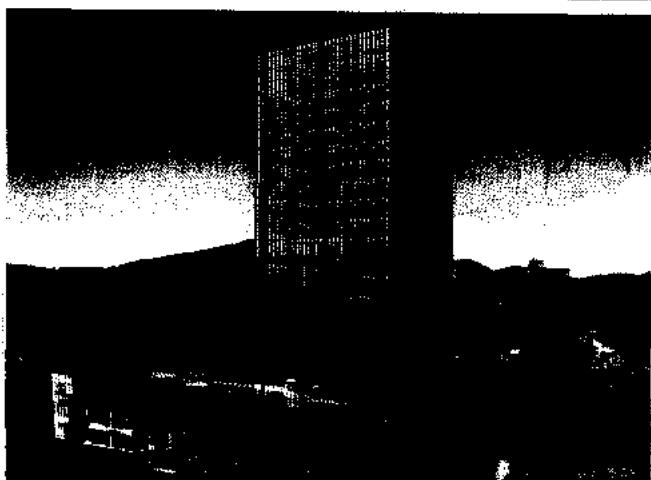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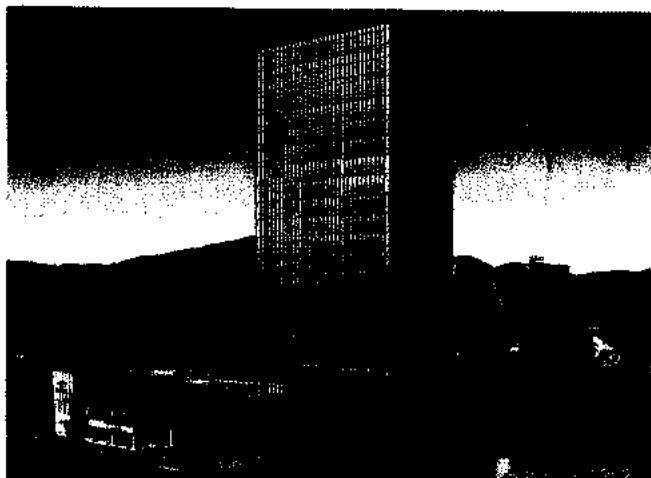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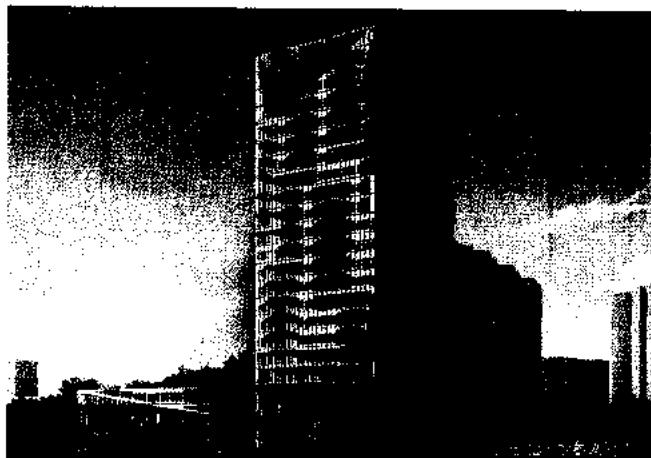
● 오 : 글쎄요. 저에게 주거는 또 다른 해결이 필요한거같아 관심이 많습니다. 프로젝트를 수임해서 즐거운 것과 또 일하면서 즐거운 것이면 좋습니다. 저는 전시장 같은 프로젝트를 좀 다른 타입으로 풀수있는 기회를 좋아합니다.

● 박 : 혹시 사원 모집은 어떻게 하시나요?

● 오 : 추천도 받고, 공채도 하고 해보았는데… 아직까진 추천으로 뽑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 박 : 주로 민간센터의 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공간에서 공공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으니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오 : 공공 프로젝트는 안을 보고 뽑으니, 대개는 그것으로 일이 진행 되지요. 반면 민간은 계속 사업성이란 측면이 남아있게 돼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민간은 상호 신뢰와 관계가 있으면 수임할 수 있는 가능성성이 더 높죠. 요즘은 전반적으로 일거리의 수가



줄었어요. 오히려 리노베이션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 유 : 그래요. 오늘 말씀 잘 나눴습니다.

● 오 : 재미있네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어반엑스를 차린 저도 이미 5년이 지났네요. 앞으로 5년 후도 잘 지내야겠다는 다짐이 됩니다.

● 박 : 앞으로도 좋은 작업 부탁합니다.

● 유 : 감사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만납시다. (오성훈과 유정훈은 1970년대 말 한 학기동안 기숙사 품메이트였다.) ■

#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박재환

(주)컨 건축사사무소

1952년 1월 대전 생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1974년)

### 침체의식 속에 건축에 대한 씩이 자라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침체의식 속에 건축에 대한 지향성이 자라고 있었지 않았나 싶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 했었는데, 6학년 때부터 매년 서울로 올라와서 사생대회에 참가하고 지도교사 인솔 하에 '국전'에 구경 가면 자연스레 건축전도 보고해서 그런지 건축과로 진로를 정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다.

내가 대전중학교 졸업 후에 당시에는 5년제 전문학교 제도가 있었는데, 일반 고등학교 입학시험 전에 먼저 시험을 보게 되어 있었다. 모의고사 시험을 본다는 마음으로 원서를 내 시험을 치뤘다. 나는 사실 전국미술대회에서 특선 등 수상경력이 많아 대전고 미술교사도 나를 예뻐해서 대전고에 특기생으로 입학이 내정되어 있던 상태였다.

전문학교인 대전공전현 국립한발대의 전신에 1차 시험 합격한 사실을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으나 별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대전고등학교 시험 전날 학교에 가서 시험 볼 자리에 앉아 주의사항도 듣고 수험표도 받았다.

### 집안형편을 고려 장학생으로 입학한 대전공전으로 진학하다

그런데 그날 만나는 중학교 선생님들마다 대전중학교와 대전고는 원래 태생이 한 학교로 불어 있다. 자네는 전공 선택도 잘 했고 시험성적도 우수해 장학생으로 합격됐는데 그냥 대전공전에 가지 왜 일반 고등학교에 가려 하느냐고 강권하셨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3년 터울인 바로 위 형님을 포함 두 분 형님을 서울로 대학을 보내 어려워하시는 어머님이 어린 마음에 걸렸다. 장학금도 준다는데, 밤새 고민 끝에 대전공전에 갈 마음을 먹었다.

당시에 저는 전문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학사학위 과정까지 7년 코스를 5년에 마치는 영재교육 제도인 것으로 잘못 알았었다.

### 색맹테스트는 청소부가 합격판정을 해주다

그날 밤 형들이 색약 때문에 공대 전공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말이 언뜻 떠올라, 나도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우려가 되어 새벽녘에 안과에 달려갔다. 새벽에 의사가 있을리가 없었는데, 마침 청소부가 있어 사정을 말하니 색맹테스트하는 책을 가지고 오더니 길거리에서 넘기면서 테스트를 해주는 것 이었다. 청소부가 색맹이 아니라고 판정해주는 바람에 믿고 그길로 전문학교로 발길을 돌린 것이다.

나이가 들어 생각해보니 어떻게 그때 그 청소부 말을 믿었는지? 운명이다. 청소부가 내 운명의 사신이었다. 만약에 일반고교인 대전고를 졸업했다면 지금 무엇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다.

전문학교에는 건축, 기계, 토목, 전기 등 네 개의 과가 있었는데, 미술과 관련이 있어 건축을 택했다. 성장하면서 그리고 사회를 알게 되면서 일반 정규대학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영남대학교에 가게 된 것이다. 결심한 그 즈음 다른 대학에 편입할 기회가 내게 없었다.

### 재주를 믿고 농땡이를 부리다

건축을 택한 것은 내 적성에 잘 맞았다. 그러나 학교 다닐 때 농땡이가 심했다. 아버님이 종종으로 쓰러지시고 집에 볼이 나, 동생 학비를 선불로

받고, 전문학교 5학년 때 아예 송승호 건축사사무소로 출근했다.

학교에 거의 나가질 않았다. 설계 D학점 받았고, 절필 뺐 했다. 그런데 능력은 인정 해 줬다. 교수님들 부탁으로 건축사 시험 모의설계도를 내가 작성해 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깔고 그리라고 말이다.

### 대학교 졸업 후 첫 직장으로 정일엔지니어링에 들어가다

1974년 2월에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에 있다가 1974년 말에 서울로 올라왔다. 그해 연말인가, 정일엔지니어링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경국 선생을 만났다. 앞 뒷자리에 앉아 건축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즈음 간삼의 이광만 대표도 막 졸업하고 들어왔다.

1년쯤 정일엔지니어링에 있다가 군대에 가서 1979년 사병으로 제대하고 다시 서울로 와서 당시 김희준 선생님이 관여하신다고 알려진 신아건축(대표 안장원)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때 건축가 이일훈 씨가 그곳에 있었다.

### 신아건축에서 김중업건축연구소로 옮기다

신아건축에서는 마지막으로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설계를 하다가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나의 지향과 안 맞아 포기하고 김중업 선생님 사무실로 옮기게 됐는데, 마침 신아건축에 계신 어느 한 분이 내게 "너는 김중업건축연구소에 가면 잘 맞을 것 같다"고 해서 당시 김중업 건축연구소 이대형 실장을 소개받아 면접을 보게 된 것이다.

김 선생님이 제 이력서를 보시더니 "한군데 오래 안 있었구먼" 하시면서 최소한 이년간은 있었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고 하셨다. 제가 대답하기를 '사람 일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간을 어떻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선생님이 보시기에 제가 영 아니다 싶으면 이년 이전이라도 나가라고 할 수 있고 저 또한 그만 들 수 있는 것인지 그 약속은 못 하겠다. 대신 있는 동안 건축이라는 작업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요것 봐라" 요동 맹랑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흔쾌히 수락하셨다.

### 육 개월 만에 실장이 되다

그날 면접은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면서 자그마치 6~7시간은 족히 걸린 것 같은데, 그동안 선생님께서는 담배 한 갑을 다 태우셨다.

평사원으로 입사했는데 육 개월 만에 실장으로 임명되었다. 선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상승한 것이었다.

### 실장타이틀로 계획한 것이 육군박물관이다.

그동안 김 선생님 사무실에서는 계획을 직원에게 말간 경우가 없었다는데 내게 실장 타이틀을 주시며 선생님께서 "나는 미국에 다녀 올 테니 자네가 한번 해보게" 하셔서 범을 세워가면서 진행한 첫 작업이 장인평 재활센터(계획안)였고, 그 후 세워진 것으로는 현재 태릉 육사내의 육군박물관 작업이다.

### 잠시 중동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가서 일하다

김중업 선생님 사무실 재직 중인 1982년도에 잠시 사우디아라비아에 간 적이 있다.

설악레저타운 내 호텔 배치를 내가 잡아 선생님께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설명을 다 들으시더니  
“자네 입에서 결국 그 말이 안 나오는군, 나 같으면 이곳에 호텔을 두겠네” 하시며  
호수가번에 위치시킨 호텔을 번쩍 들어 호수 안으로 옮겼다. 그때 죽비로 한 대 얹어맞는 기분이었다.  
물에만 머물렀던 나의 상상력의 영역이 확 열리게 된 것이다. 왜 땅에만 지을 생각을 하였지.  
건축은 물 위에도, 하늘에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상상력과 생각의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다.

사우디에 가게 된 이유는 종동에 있는 현지인 엔지니어링 사무실인데, 내 뜻대로 설계하여 지어진다는 말에 솔깃해서 가게 되었다. 막상 가서보니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육 개월 뒤에 다시 김중업 선생님 사무실로 복귀했다. 사막에 제 뜻대로 지을 수 있다면 아주 환상적 일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이다. 보수는 제법 많이 받았지만….

다시 오니 마침 읊지로 장교동재개발 현상이 있던 때였는데 참여해서 당선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독립기념관’ 현상설계가 있었다. 안장원, 우경국 두 분과 같이 공동옹모하기로 해서 김 선생님 사무실을 또 그만 두게 되었다. 김 중업 선생님이 독립기념관 현상설계 심사위원을 맡으셨기 때문이었다.

독립기념관 현상은 보기 좋게 떨어졌다.

#### 1985년에 다시 복귀 연이어 아홉 개의 현상설계에 당선된다

그 후 김중업 선생님께서는 지병인 당뇨병에 합병증을 얻어 1984년에 혼절 하는 등 건강이 극히 악화되었고, 1985년 3월에 김 선생님 부음을 받고 다시 들어가 작업한 것이 여의도 KBS방송국의 IBC센터, 올림픽 평화의문 등인데 무려 아홉 개나 연이어 당선되었다.

MBC 광주방송국, MBC 여수방송국, 군산 시민문화회관, 군산 여성회관 등이 그때의 프로젝트들이다. 한꺼번에 일이 터져 사무소를 법인으로 바꾸었다. 김중업 선생님 사무소 역사상 가장 직원이 많을 때였다. 수석책임자인 나는 그 당시 펄펄 날랐다. 주변에서는 죽은 나무에 꽃이 피었다고 할 정도였다.

#### 김 선생이 사무실을 맡아주기를 부탁하나 무산된다

김 선생님이 병원중이라 사무실의 장래문제를 걱정하셨는지 어느 날 둘째 아들인 김희경과 저하고 장태희 실장 심인이 사무실을 맡아서 운영 했으면 하는 의중을 나에게 전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인 김희경에게 아무리 제자라고해도 선생님 험자를 내걸고 평생 작업을 할 수는 없으니 사무소 명칭을 ‘공간’과 같은 추상명사로 변경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선생님에게 차마 그 말은 할 수 없다고 해서 무산됐다.

#### 대책 없이 독립하다

그래서 1987년도에 대책도 없이 무작정 독립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한 작업은 정일에서는 남서울대공원, 현재 과천 어린이대공원 마스터플랜을 우경국 선생과 같이 진행했고, 신아건축에서는 정신문화연구원 부설 도서관 계획을 김희준 교수 지도아래 계획을 담당했다.

이어서 경상대학교 마스터플랜을 총괄하였고 농과대학 설계하다가 기본 컨셉이 학교와 잘 안 맞아 김중업 건축연구소로 옮기게 됐는데, 김 선생님 사무실 가서 한 작업은 앞서 말한 육군박물관, 부산충혼탑, 읍지로장교동재개발, IBC센터, 올림픽평화의문, MBC 광주방송국, 군산시민문화회관, 여성회관 등이다.

육군박물관은 수의계약 하게 된 경우인데, 우경국 선생이 통일 후를 대비한 육사 미스터플랜을 육사 교수와 함께 하고 있던 중에 육사에 김중업 선생님을 추천하여 성사되었다. 감사 표시로 대신 육사 비오큐 등의 시설계획은 우경국 선생에게 따로 설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박물관 이후로 부산 충혼탑, 육사테니스 클럽하우스 등의 일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전주문화회관 현상설계 당선 후 사막의 유혹에 이끌려 시우디 리야드의 알사왈레 엔지니어링 회사에 가게 된 것이다. 당시 신아건축에 있던 몇몇 사람도 함께 갔었다. 6개월 만에 김 선생님 사무실로 복귀하여 을지로 장교동 재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중소기업은행본점이 지어졌다.

나는 김 선생님 사무실에서 ‘평화의 문’ 설계 납품을 끝내고 1987년 6월쯤 나와서 독립하였다. 김 선생님은 그 다음해 5월에 작고하셨다.

#### 김중업 선생님에게서 건축에 대한 상상력의 문을 열게 되다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지금도 뜨렷하게 기억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무실 들어가서 두어 달 쯤 지났을 때였다. 설악레저타운 내 호텔 배치를 내가 잡아 선생님께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설명을 다 들으시더니 “자네 입에서 결국 그 말이 안 나오는군, 나 같으면 이곳에 호텔을 두겠네” 하시며 호수가번에 위치시킨 호텔을 번쩍 들어 호수 안으로 옮겼다. 그때 죽비로 한 대 얹어맞는 기분이었다.

물에만 머물렀던 나의 상상력의 영역이 확 열리게 된 것이다. 왜 땅에만 지을 생각을 하였지. 건축은 물 위에도, 하늘에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상상력과 생각의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다.

또 하나는 선생님이 코르뷔지에 밑에 있을 때 인도 상디같에 대통령궁(계획안) 설계를 하는데 코르뷔지에가 선생님에게 요구하기를, 리셉션 훌의 악사들은 춤추는 초대 손님들과 같은 레벨에 있으면 안 되니 구름위에서 음악이 들리는 것처럼 하라고 했다. 그렇게 하려면 플로어가 하늘에 떠있어야 하는데, 도무지 해결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찔찔매다가 결국 유명 구조설계자를 초빙하여 피아노선으로 매달고 조명처리로 착시현상을 주어 마치 실내 허공에 떠있는 것처럼 계획을 했다는 말을 들려 주셨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건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김 선생님께서 10년간 뜻하지 않은 반강제 추방을 당해 프랑스, 나이지리아, 미국 등을 전전하면서 유랑생활을 하신 적이 있다. 이유는 경기도 광주 아주 사태를 주제로 신문에 글을 기고했는데, 며칠 후 철거민들의 폭동이 일어나서 애꿎게도 그 사건의 배후 주동자로 몰려 정보부 가서 고초를 겪은 후 추방당하신 것이다.

외유생활로 한이 맷히셔서 그런지, 내게 “자네는 나와 같이 이런 길을 걷지 말게”라고 하셨다.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셨다. 그때가 내 나이 30대 초반이었다. 나는 선생님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금 시간을 넘겨가면서 듣곤 했다.

1987년 독립하여 사무소를 개설한 후, 대전의 송승호 소장님 세안으로 내전 시 목동천주교성당 현상을 참여하게 되었는데, 내가 안을 잡아 당선되었다. 당선 된 이후 성당 측에서 서쪽에 계획된 제단부분을 동쪽으로 방향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동향은 어둠을 밝히는 상징성도 있고,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동쪽은 예루살렘 방향이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주님은 온 천지 사방에 있는 것 아닌가? 현대도시의 입지여건에서 제단의 방위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그런 물음을 던지며 그 상태에서 손을 뗐다. 김중업 선생님 밑에서 배운 고장고장한 기질을 드러낸 것이다.

#### 독립했으나 일감은 없어 고생을 하다

그렇다고 그럴싸한 일감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근근이 생계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선 인생양성이 중요하고 일의 수급 조절도 필요하다.  
소수의 집단과 사람에게 기회가 집중된 현재의 발주시스템은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공공의 대단지 아파트 사업일 경우 공공건축가가 총괄코디하고 규모에 따라 가급적 많은 사무소를 참여케 하여  
작업을 기회를 나누어 제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단지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강력히 추진하려면 삼단체의 통합이 절실하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겨우 버텨 나갔다. 1980년대 후반에 한 일이라곤 에바스화장품 공장 설계 말고는 이렇다 할만 한 일이 없었다.

그 이후도 몇 개의 계획안만 진행되고 실현이 안 된 일들이 대부분 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도 프로젝트 기관현상은 개선될 조짐이 없었다. 혼자 골똘히 명상만 했다.

#### 4.3 그룹 활동으로 뜻 맞는 건축가들끼리 건축에 대한 해갈을 하다

그러다가 뜻 맞는 건축사들끼리 4.3 그룹 활동을 하면서 술도 먹고, 공부도 하고, 함께 여행도 하면서 각자의 건축에 대한 발표도 하고 그랬다. 일이 없으니 그렇게 위안을 삼으며 놀았다. 어느 날 멤버중 하나인 송효상 소장이 진행 하던 나디컨트리클럽의 그늘 집 여러 채를 멤버들이 나누어서 설계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내가 맡은 것은 내가 '눈의 집'이라고 명명했던 작업이었는데, 갈증이 있던 때라 열심히 했지만 이것 역시 성사가 안 되었다. 페이퍼 아키텍트란 낙내임이 생겼다.

#### 몇 개의 프로젝트로 건축상을 옮겨줘다

다행히 1990년대 중반에 들어 현상에서 당선된 것이 비전힐스 컨트리클럽(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200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2001년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이고, 연이어 제일영광교회(2001년 은평건축상 금상 수상), 은평구립도서관 현상 당선(2001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2002년 서울시 건축상 은상 수상)으로 이어진다. 나의 황금기였다. 그러다 갑자기 IMF를 맞았다.

#### 건축 작업에만 꽂물하던 데서 사회참여로 눈을 돌리다

그리고 다시 외신상담. 급기야 나의 심경에 변화가 찾아오고 2003년부터 나의 활동방향은 이전과는 다른 궤를 걷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내 자신의 건축은 제 창작의지의 구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나만의 공간에 홀로 앉아 구상에 몰두하는 것이 전부였다.

변화는 내 자신의 다섯 학도중 하나인 '풀'의 물음과 실천의지에서 비롯됐다. 내 인생에 있어서의 '풀'은 무엇인가? 그동안 내 삶은 사회적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었고, 건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가 막연했으며, 물질적 결과물인 건축물에 너무 침착해 있었다는 반성이다. 건축 작품만이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내 개인의 상상력과 표현의 구체화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 시킬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다. 건축을 통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며 내 창작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 '시티몽카'라는 잡지를 만들다

그런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 마침 한티인(대표 이영현)에서 함께 작업하자 는 제안이 들어왔다. 고맙게도 오천만원을 투자해 '시티몽카'라는 이름의 잡지를 만들게 되었다.

도시를 이루고 사는 유인원이라고 은유된 명칭의 잡지인데, 도시는 시티, 꿈은 몽, 열쇠는 카, 즉 시민들에게 '이 책에서 도시의 꿈을 개 기세요'라는 메

시기가 담긴 잡지였다. 2004년도부터 1년간 준비하고 2005년 봄에 계간지로 정간호를 발간했는데, 그 뒤 계속 발행하지 못하고 결국 접었다.

#### 흙빛공부방이란 프로젝트로 공간문화대상을 수상하다

한티인과 더 이상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2005년부터는 동우건축과 함께 이런저런 일들을 도모 했는데 그중에 '흙빛공부방' 이란 프로젝트가 있었다. 내게는 상당히 의미가 컸다. 처음에 동우건축에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설계완료 후 기공식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건축주인 고한성당의 주임신부가 내내 고민하면서 차에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게 된 프로젝트다. 2007년에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그 뒤에 동우건축하고 영월연수원, 한의학연구원 등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다.

#### 칸이라는 이름으로 세 명의 건축사가 함께 모이다

그러던 2007년 6월 방찰린, 이용우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만나 사무실을 합치기로 하고, 그동안 각자 사용하던 사무실 타이틀을 접고 대신 새로운 명칭인 칸(間)을 사무실의 공동 이름으로 정했다. 그래서 건축그룹 칸이 출범하게 되었다.

칸이라는 이름은 전통건축의 모듈인 한 칸 두 칸을 의미하는 순수 우리말인데, 여기에 인간, 시간, 공간의 의미도 함축하는 뜻을 담아 정한 명칭이다. 벌써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이제 만 4년이 넘었다.

칸이라는 명칭으로 이곳에 와 수행한 작업 중 대표적인 것은 수원에 있는 에이블아트센터인데 2010년 9월 준공예정이고 그 외 장위동 제일교회, 수원 자혜학교의 작업전환교육센터, 삼성동 주민회관 리모델링 등의 프로젝트들이 있었다.

직원은 3명인데, 지난달 퇴사한 직원이 있어 채용면접 중이다. 연간 4억 정도 하면 괜찮을 텐데 힘들다.

#### 한국건축가협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다

건축설계 말고 건축과 관련 없는 다른 분야의 일을 해 볼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고 다만 2003년 이후부터 한국건축가협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 봄에 건축문화학교를 개교하고 교장을 맡았다. 대학교에도 꾸준히 나가 강의하다가 올해는 쉬고 있다.

#### 소형사무실은 예초에 큰일은 참여할 엄두도 못나는 세상이 되었다

사무실 규모가 작아서 큰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과 대 시민서비스, 기술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큰 애로사항이고 현상설계는 과도한 과제를 과 그것을 만들기 위한 경비가 부담돼서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먹을 수 없는데 이런 현실이 씔粲하다.

옛날에는 직원들과 같이 잉강해서 제출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각종 CG경비가 엄청나 낙선 후 경제적 후유증도 크고 설계경기과정에서 로비라는 것을 빼 것이 하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풍토에서 그런 것들을 함께 이우르자니 나의 자존심과 건축철학이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음짝달싹 못하는 것이다.

## 인터뷰 초기

내가 그를 알게 된 것은 시간이 흐르지만, 흐른 시간만큼 비례적으로 그를 알지는 못한다. 오히려 이번 한 시간의 짐중적인 인터뷰에서 그의 삶의 궤적을 입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동안 아주 고집스럽게 본인의 건축 작업에만 집중하는 건축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건축계의 미래와 건축계의 일을한 현실에 대한 올분과 또 이를 타개하기위한 협회차원의 노력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 나의 건축철학은 다섯 가지 주제로 요약된다

나의 건축철학과 건축이념을 굳이 말하라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축에 대한 다섯 가지 확률을 말할 수 있다. 내가 오간(五間)이라고 부르는 있는 것인데, 건축의 존재 가치는 인간의 행태를 자연과의 관계에서 보다 고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려면 자연 섭리를 알아야 하고 인간의 행위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인간의 기본 행위를 삶, 맑, 높, 풀, 밑의 다섯 가지로 보고 있다.

제 건축은 이 다섯 가지의 가치를 의미 있게 담아 자연과 힘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삶'의 행위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활 행위이고, '맑'의 행위는 마음의 지성이 인식하는 탐구 행위이며, '높'의 행위는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교 행위이고, '풀'의 행위는 마음의 의지를 실천하는 작업 행위이고, '밑'의 행위는 영혼의 소망을 추구하는 기원 행위라고 생각한다.

### 후계는 생각도 못한다.

내 자신이 존재가 없는데 후계를 생각할 겨울이 없다. 이를 것이 있고, 넘겨줄 것이 있을 때 후계가 필요하지, 나에게 어려도 없는 단아이다. 후배건축인들이 부단히 건축의 본질적 가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담금질하고 건축의 근본적 속성인, 공공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

내 자신의 비전은 없고 비람이 있다면, 노숙자에게 무엇이 필요하나고 물으면 아마도 첫 번은 먹는 거, 다음은 입는 거, 그 다음이 안락한 쉴 곳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그만큼 집은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문제인데 세간에서 그 중요성을 건축인들이 제대로 정립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건축인들 스스로 건축의 본질을 재성립하고 건축의 공공성을 추구해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때가 오기를 바란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부암동 다가구 주택과 유리박물관이 있다.

### 삼 단체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삼 단체 통합은 내 자신이 입장에서 추진했는데 건축계의 상황이 아주 절박하다고 느꼈다. 기존 건축 질서의 근본적인 혁신과 새로운 풍토조성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 한국 건축계의 몸은 그동안 전체를 살피는 철학과 비전이 없어 부분적 안 편법 처방만 해, 고밀 대로 꾸이고 뒤죽박죽돼 이제 어떤 처방도 효력이 미한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처방으로 될 시기는 치났고 건축계의 심장과 뇌, 위 등 문제 부위를 과감히 잘라내 소생시켜야 할 간급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기준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정립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 '설계, 감리 분리하자는 말은 건축사 스스로 자신을 모욕하는 차사다'

설계, 감리 분리하자는 소리가 드높은데, 얼마나 먹고 살만한 대안이 없으면 이럴까? 암담한 현실을 생각할 때 한편 이해도 되지만 건축의 본질로 보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마치 변호사가 변론자로 써넣고 마상 법정에는 다른 변호사더러 변호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의사가 환자진료 후 막상 수술은 다른 의사에게 사끼는 것과 마찬가지인 참으로 한심하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감리 전담하는 분들에게 유예기간을 주고 건축의 본령과 건축사의 본분, 그리고 건축의 제 규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

김종업 선생 사무실에서 재직하면서 월은 현상실계에 참여해 많은 성과를 일구어낸 그가 막상 자기 자신만의 성채에서의 전과가 부족함과 개인의 능력부족이 아님을 나 자신도 잘 알기에 인터뷰말미에 그가 건축계에 뱉어온 그의 고집과 충격들을 수 없었다. 나는 또 비겁하게 했다. "건축계를 위해 활동해주시면 도와 드릴 테니..." 일제강점기 시절에 상대를 향해 "독립운동하세요"라고 외쳤던 적으로, 시원해 드릴 테니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르라?

최동규 편집위원장

작해야 한다.

턴키, 재건축 등의 대규모 일에 소수의 사무실만이 참여하는 것은 국가정책에도 반하는 일이다

그리고 재개발, 턴키, 재건축 등의 발주 시스템을 보면, 이런 모순된 정책 시행이 어디 있을까? 매년 상당수의 건축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면서 한편에 선 100명이 10년에 할 일 량을 한 두 명이! 2년 안에 처리하는 발주는 뭘까?

쌍끌이 저민망 어선으로 어장을 활폐화시키는 행태와 뭐? 다른까? 정부가 임적자원의 수급 불균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축정책의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선 인재양성이 중요하고 일의 수급 조절도 필요하다. 소수의 집단과 사람에게 기회가 집중된 현재의 발주시스템은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공공의 대단지 아파트 사업일 경우 공공건축가가 총괄코디하고 규모에 따라 기급적 많은 사무소를 참여케 하여 작업할 기회를 나누어 제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단지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강력히 추진하려면 삼단체의 통합이 절실히나.

종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정책엔 단일한 목소리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서비스를 증대하여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국가적 이슈가 되는 건축의 사회문제에 대해 협회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발언해야 한다. 무대책, 무반응으로 일관한다면 어찌 건축계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그룹이 될 수 있을까?

현재 건축계의 통합은 사협회의 부결로 불발된 상태지만 파트너인 가협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통합을 의결하여 내년 2월까지 기다리고 있다. 사협회의 미래인 젊은 건축사들이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한다. 건축과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해, 건축계의 썩은 종양을 잘라내고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금년에 서울건축문화제의 총감독 겸 집행위원장을 맡아 새로운 건축상 제도의 폐려다임을 수립, 이번에 그 결과를 공고 했다. 특히 준상 후 25년 된 건축 중 아직도 공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건축을 선정해 건축문화상을 주기로 했는데, 지난 세대의 작품을 현재 세대가 평가해 경의를 표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런 것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가 형성되리라 기대한다. 또 건축에 대한 평가가 이제까지는 순공 후 바로 하다 보니 공간적 측면의 가치만 부각되고 상대적으로 건축의 시간적 가치에 대해 평가할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에 이를 다소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 건축설계의 미래가 암담하다

건축기본법이 제정된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렇다 할 후속 움직임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당장 건축계는 고사 직전인데, 미대로 두면 건축계의 면접을 수 없는 봉과는 자명하다. 메이저급 건축사사무소도 건설사에 종속되어 건축계를 리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다. 오히려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이대로 몇 년 더 대책 없이 훙쓸려 가다가는 건축사사무소의 미래는 50년 전의 대서양 같은 수준으로 회귀할지 모른다는 부정적 전망이 현실이 될 것이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 수영구 망미동 노외공영주차장 Suyeong-gu Mangmi-dong Offstreet Public Parking Lot

당선작 / 이봉우  
(주)한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979-95번지
지역자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학교환경위원회정화구역
주요용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대지면적	1,878.00m <sup>2</sup>
건축면적	1,350.40m <sup>2</sup>
연 면 적	6,305.21m <sup>2</sup>
건폐율	71.91%
용적률	215.4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발주처	부산시 수영구
설계담당	유효중, 정광수, 박주환, 박정민, 이영진, 백승원, 김정훈, 조선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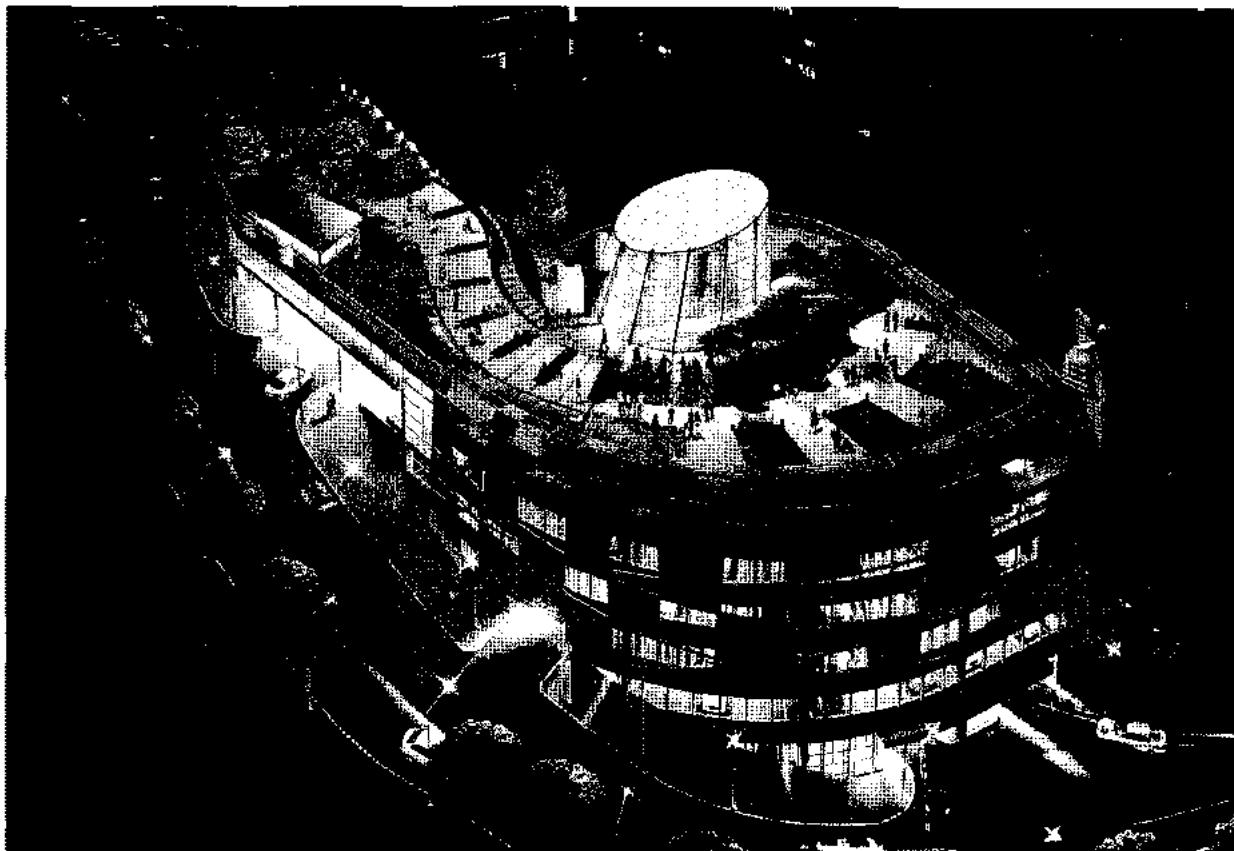
본건물은 도시의 학교, 아파트, 주거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곳으로 주차장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옆 도심에 위치한 이 부지는 단차가 매우크는데, 학교 앞을 통과하는 10m 도로변에 약 19m 정도의 고저차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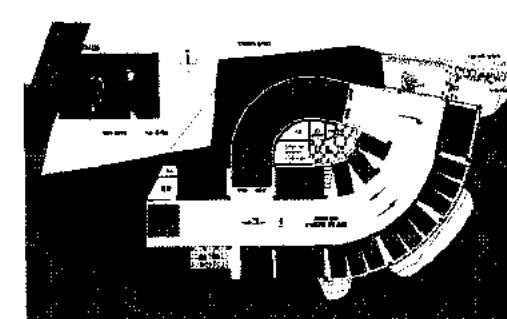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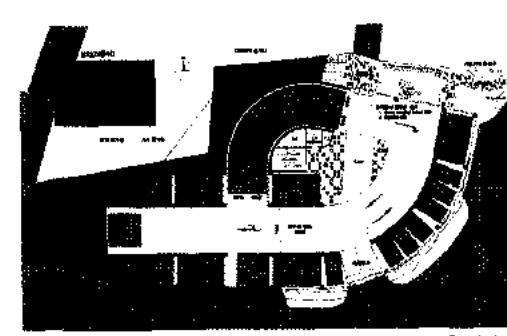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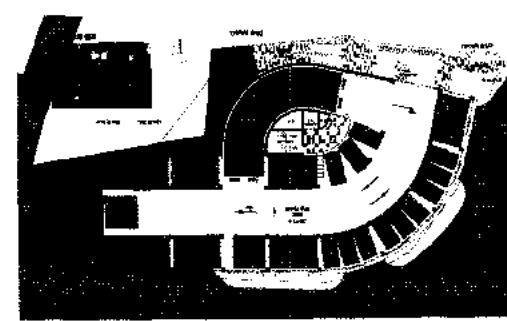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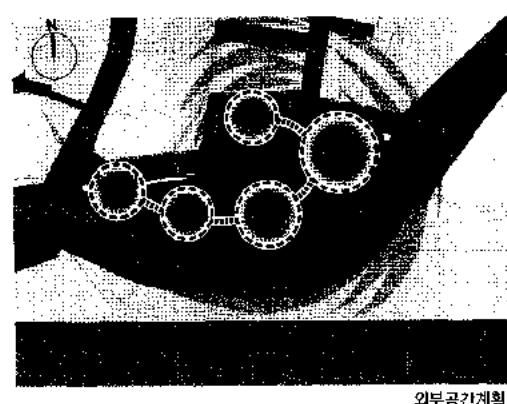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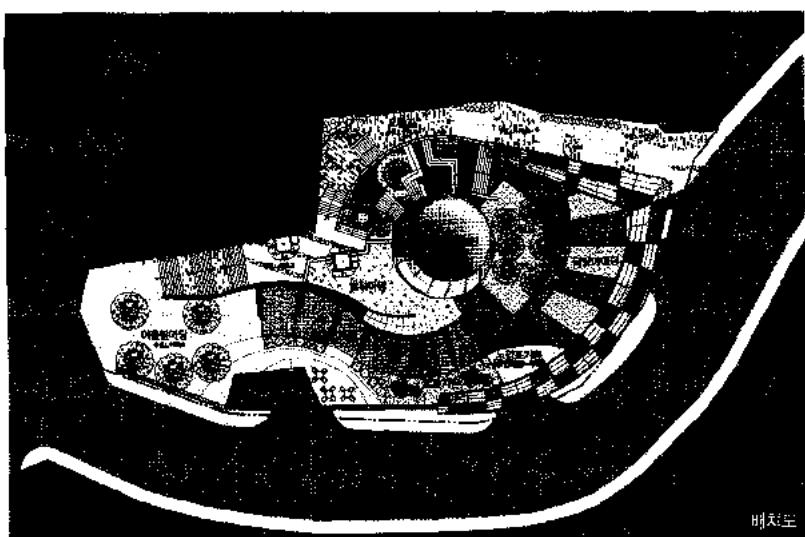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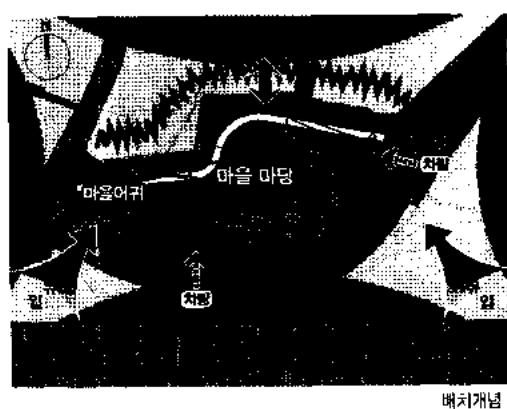
주차장이라는 특성상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가는 길목에서, 주차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장소로 마을 어귀를 지키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이용자들이 주변환경에 조화되면서 상징성이 부각될 수 있는 조형적 이미지 부여라는 2가지 기본 아이디어로 구상했다.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 공간으로서의 이미지가 건축물에 투영될 수 있도록 '둥지'라는 디자인 컨셉을 도입하였으며, 건물의 진입부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이정표로서의 '솟대' 이미지를 건물에 디자인 요소로 적용하여 멀리서도 건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면계획은 조형미, 개방감, 입체감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이공간에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이 있으면서, 그곳에서 자연스러운 식재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달맞이 마당의 Sitting Wall은 일정간격의 배치를 통한 라듬감을 연출하면서 측면에 초승→상현→보름→하현→그들의 순으로 조명시설을 매설하여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였으며, 그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 주변식재로부터 4계절의 계절감을 음악적 느낌으로 끌어드리는 피아노건반을 형상화한 피아노가든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정비소, 북카페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친환경 주차장시설에 부응하는 친환경 재료인 목재패널과 미관이 우수한 스팬드릴 유리를 이용하여 조화로운 입면이 되도록 하여 공공시설로서의 품격을 고려하였다. ■





## 수영구 망미동 노외공영주차장

Suyeong-gu Mangmi-dong Offstreet  
Public Parking Lot

우수작 / 손숙희 편집

(주) 수가디자인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979-96번지 일원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대지면적 1,878.00m<sup>2</sup>

건축면적 1,584.40m<sup>2</sup>

연면적 6,936.25m<sup>2</sup>

건폐율 84.37%

용적률 215.91%

구조 철골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설계담당 이형삼, 김성률, 최창규, 김해나, 양세미

### 'parking +'

공작물이던 공용주차장에 자연의 모티브를 제공하고, 자연의 음식과 자연의 웃음을 입음으로서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편안하고 안정된 주차환경에 신선한 바람이 분다.

### '+ fresh' 신선한 주차장 만들기

자연요소의 구름과 바람을 모티브로, 경쾌하고 신뜻한 입면옷을 입는다.

경량화 재질의 폴리 카보네이트와 목재루버, 컬라페널로 추상적인 구름을 표현하였고, 목재루버의 간갈과 외벽 일부의 열립으로 활기에도 용이하도록 계획하여 숨을 쉬는 주차장으로 생명을 불어 넣었다.

### '+ facilitate' 편리한 주차장 만들기

자연스러운 진입이 가능한 동측면에서 진입되며, 주차장을 통과하는 통과도로의 동선이 주차장이용 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하였으며, 보행자 동선 분리도 배려하였음.

### '+ firendly' 친근한 주차장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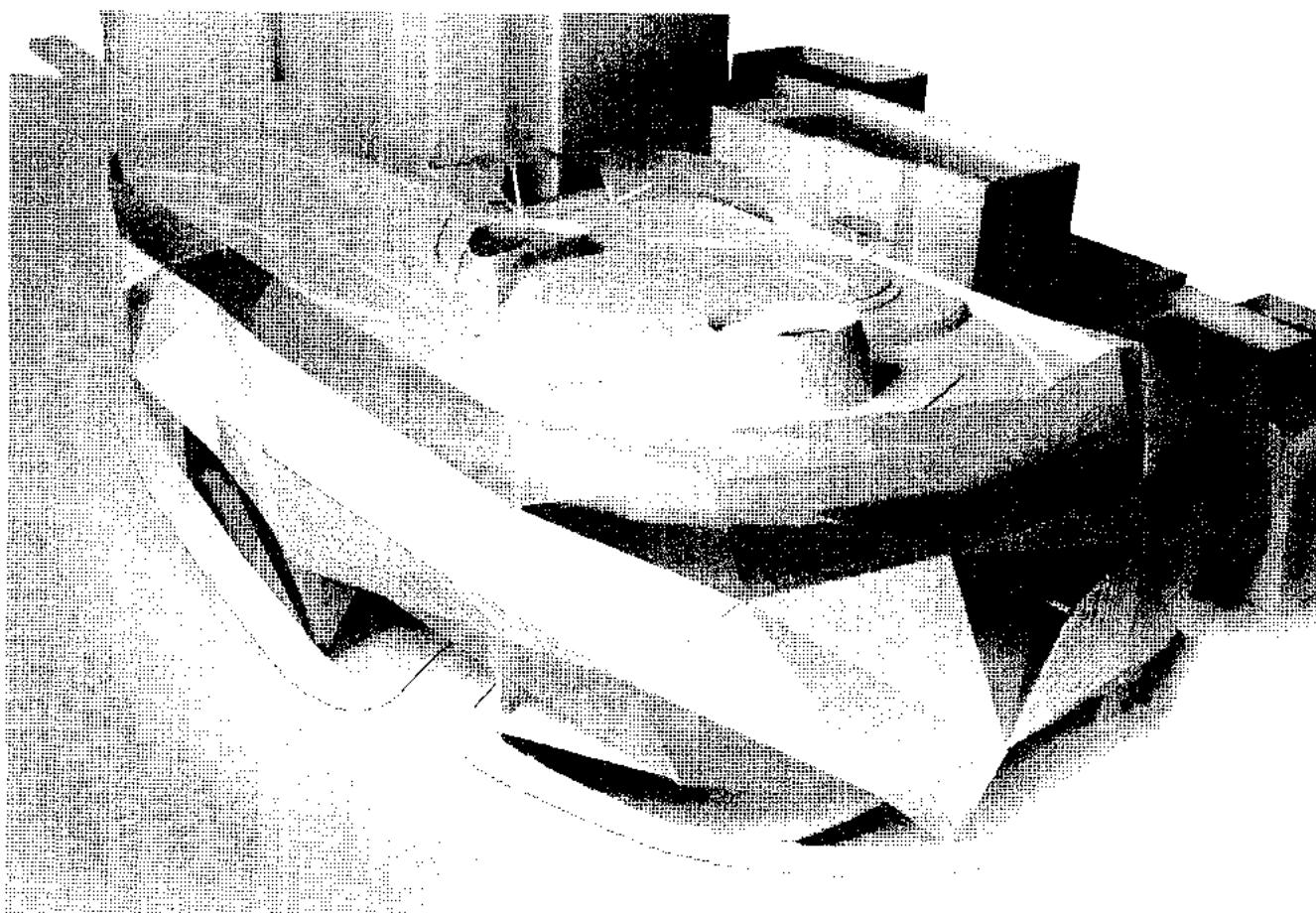
깊은 실내와 계단실에, 천창을 이용한 자연채광을 도입하여 양호한 실내조도 확보하여, 이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차량의 수직이등과 보행자의 수직이동에 쾌적성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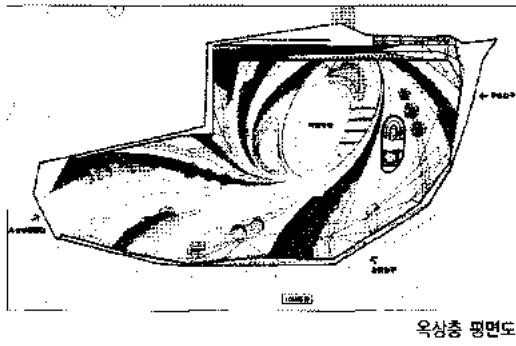
### 옥상 커뮤니티 만들기

옥상 전체를 공원화함에 있어, 역동적인 바람을 개념으로, 그 흐름을 따라 교목 식재와 잔디 식재, 벤치 등의 패턴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산책로를 계획하고, 서측 윗쪽도로에서 레벨차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공원으로 계획하였다.

### 편의공간 만들기

주차장과 다소 먼 거리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자전거 보관소를 충분히 계획하였다. ■





옥상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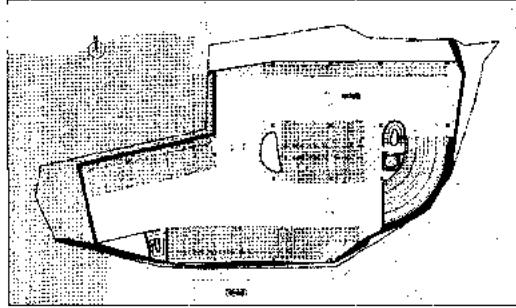
### 조형개념

지역주민들의 주차민원을 해결해주고 주민들의 쉼터로서 역할을 기대하면서 페인트한 환경적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구름과 바람을 모티브로 커뮤니티 공간을 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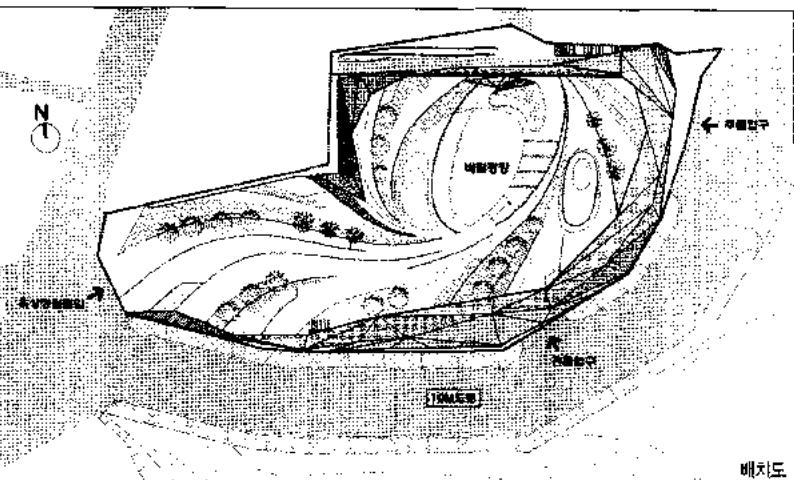
비람이 모여들듯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구름의 추상적 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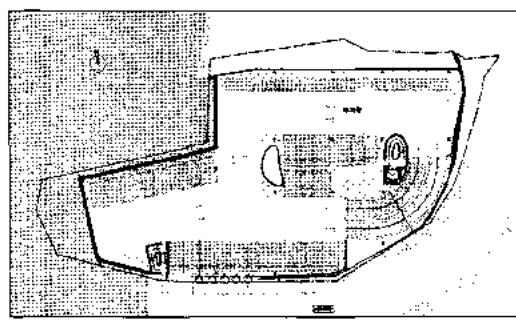
W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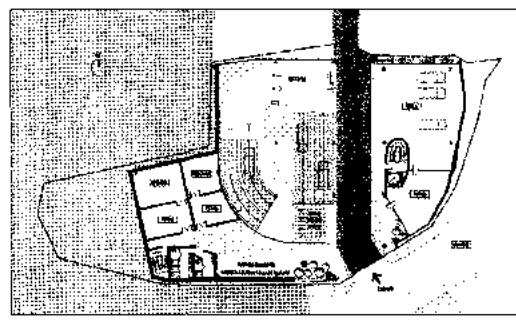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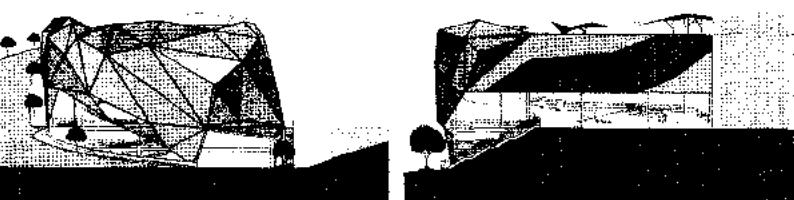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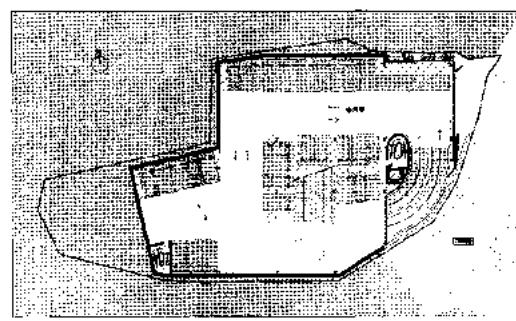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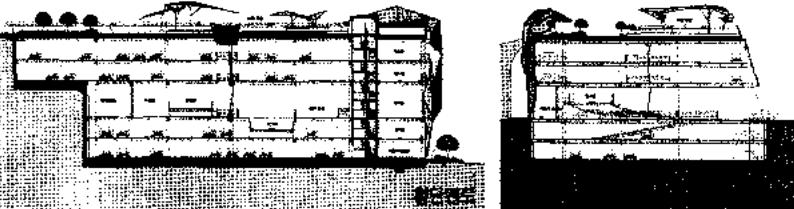
배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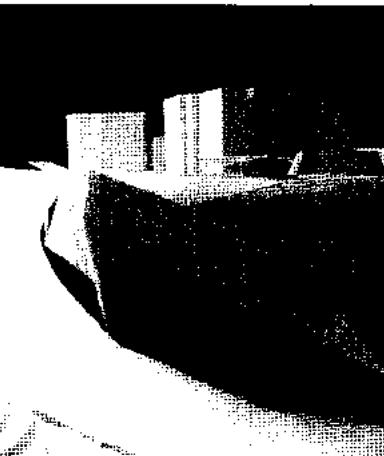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 수영구 망미동 노외공영주차장

Suyeong-gu Mangmi-dong Offstreet  
Public Parking Lot

가 작 / 이재진 천예원  
(에이케이설계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979-95번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대지면적 1,878.00m<sup>2</sup>

건축면적 1,456.23m<sup>2</sup>

연 면 적 6,464.52m<sup>2</sup>

건폐율 77.54%

용적률 228.60%

구조 철근콘크리트

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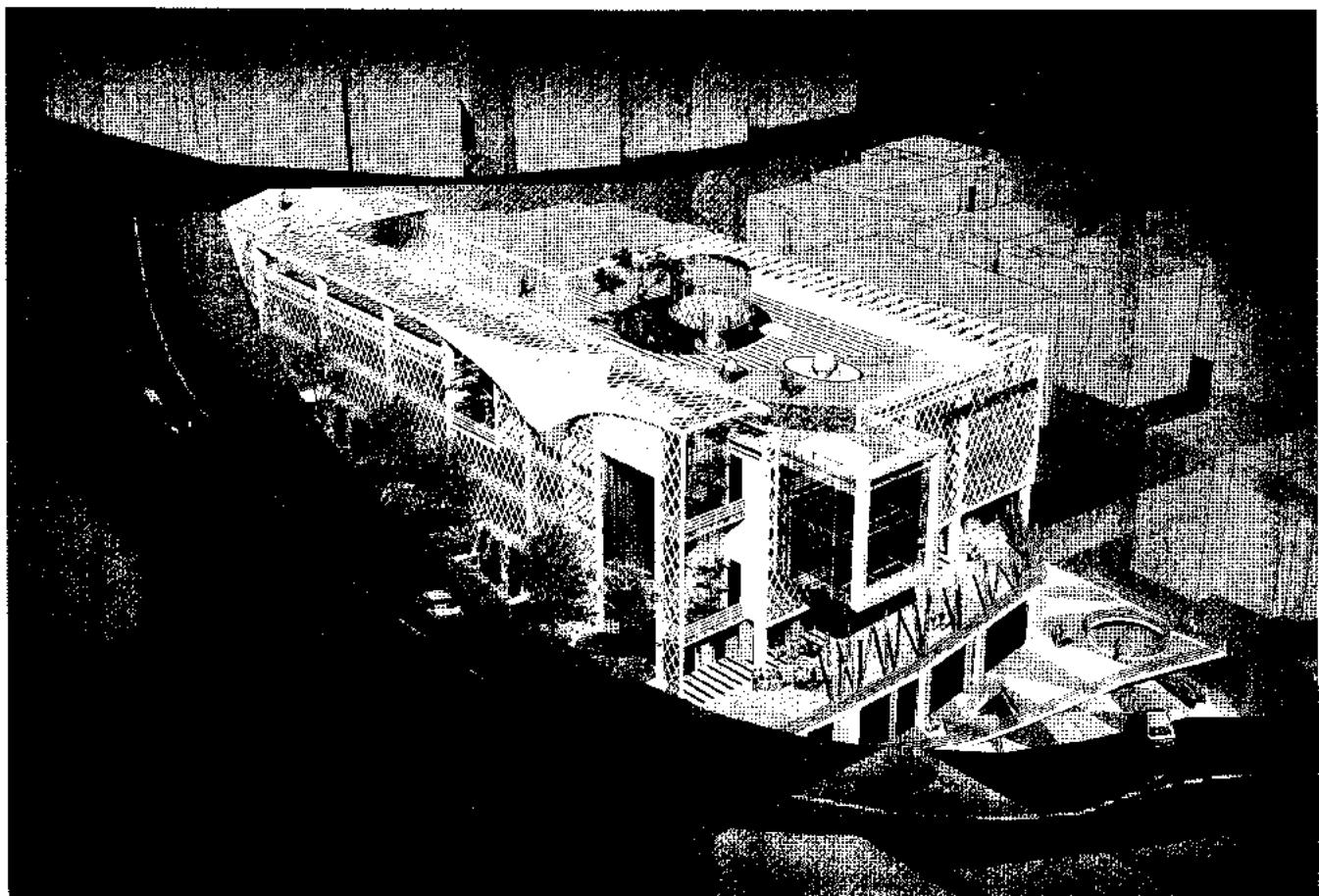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은 수영구 망미동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옆쪽에 노외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변 주거밀집지역의 주차공간 해소와 주변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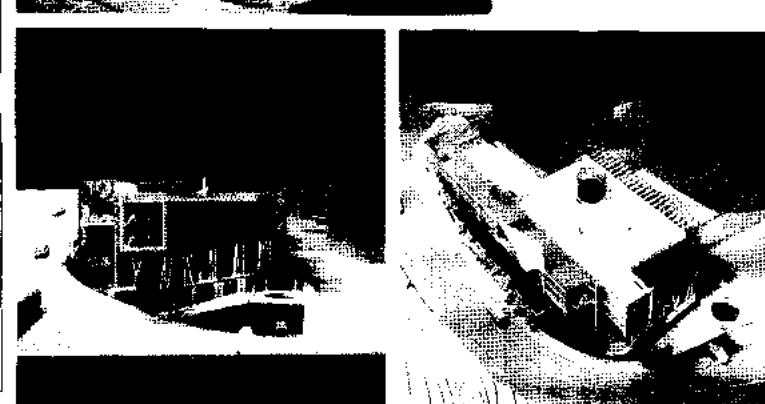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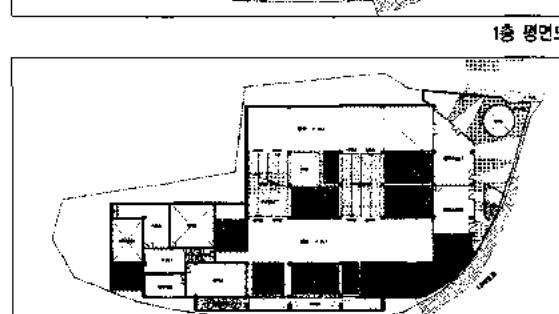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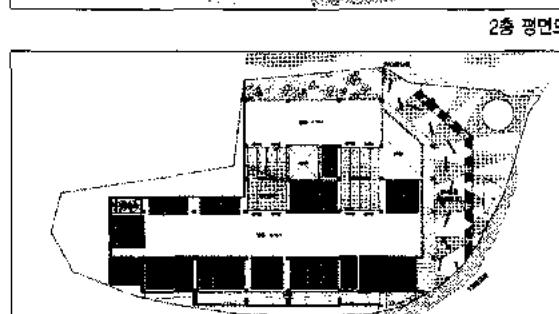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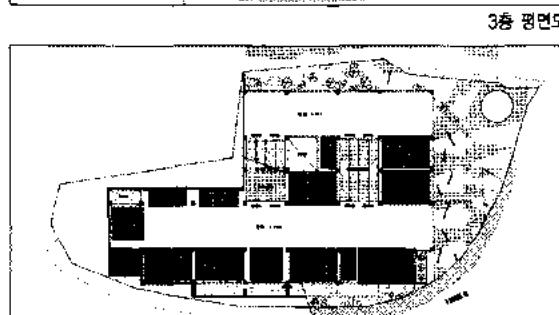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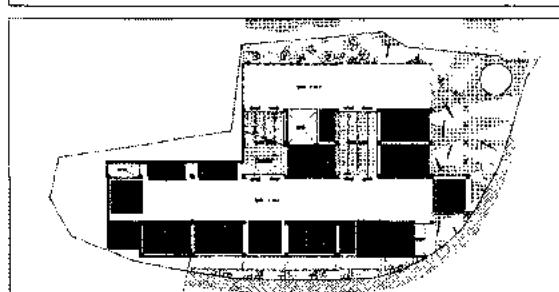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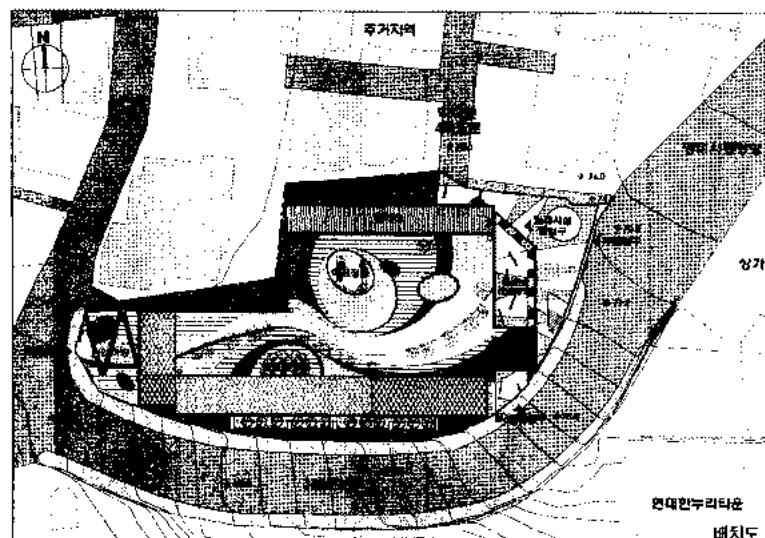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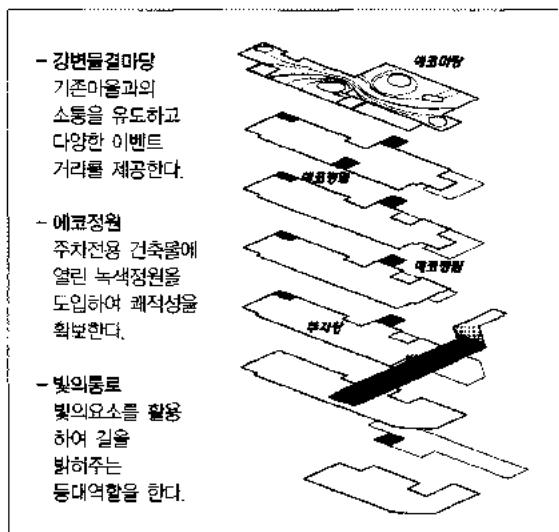
대지는 주변이 학교와 어우러진 주거지역으로 고지대이며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계획안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순응하는 배치 및 효율적 평면을 통한 기능성의 추구, 옥상공원조성 등을 통해 친근감 있는 공영주차장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즉, 주차장은 단순히 차들이 주차하는 곳이 아니라 공원과 같이 자연스럽게 느끼고 편안한 부지내 환경이 되게하여 그 속에서 서로 어우러질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였다.

주변환경과의 조화\_대지는 가파른 경사길을 따라 형성되어 있어 주차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충고로 건물의 높이를 최대한 낮추어 인접

주거지의 조망 및 일조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차량 진출입구는 경사길 하부에 하나만 두어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및 보행자 보호를 도모하였으며, 보행자 진출입구는 경사길 상부에 둘으로써 차량과 보행자의 분리를 극대화시켜 좀 더 편안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기능성 및 경제성 있는 주차장\_주차장으로서는 대지가 협소하여 경사로를 스킁으로 처리하여 효율적인 주차플랜을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킁하부를 적절히 이용하여 설비·전기의 원활한 코어구성을 하였으며 기존의 용벽을 보호하면서 토공사를 최소화하여 공사비절감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외관은 주변환경을 고려해 너무 화려하고 기하학적인 다양성보다는 평면 기능에 충실한 패턴으로 주요기능인 주차장으로서의 주차의 안전성·쾌적성·명료성을, 화려함보다는 단순함을 강조하여 입면구성을 하였다. ■





## 연기군 장애인복지관

Yeongi-gun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Handicapped Person

우수작 / 강계숙 장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스그룹

대지위치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번암리 66-21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대지면적 1,695.00m<sup>2</sup>

건축면적 636.06m<sup>2</sup>

연 면 적 1,343.06m<sup>2</sup>

건 폐 율 35.53%

용 적 률 79.24%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상 3층

설계담당 변정석, 강영찬, 박주환, 한재희, 김시내

인구 약 4만명의 조그만 시골풍경이 도시 곳곳 물어나 있던 조치원의 옛날 모습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로 인하여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하려 하고 있다. 최근 다소 숨고르기를 하고 있으나 도시의 확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이에 대응하는 장애인복지관은 도시적 확장으로 규정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도시와 사람과 자연의 흐름을 이어주는 오브제로서 작동하여야 한다.

본 계획안의 중요한 개념은 신축되는 시설물이 도시와 자연, 지역주민과의 교감을 이어 가는데 있다. 중점은 주변의 자연요소를 건물 내부로 끌어들이고 연속된 바닥판은 자연의 흐름과 건물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용자에게 단순히 재활/치료만을 습득하는 곳이 아니라 자연을 느끼고 지역주민과 함께 공존하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와의 랜드마크적인 복지관을 제안한다.

### 배치계획

-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항상 열려있는 이웃
- 장애인, 노약자, 여성 모두에게 집처럼 안전한 공간

-주변환경과 연계된 외부공간 계획(교류의 커뮤니티 장)

-토지이용의 극대화 및 열린공간으로서 접근성 및 개방성 확보

-내/외부 공간의 유기적 연계성에 따른 합리적 동선구축

-기능에 따른 공간의 영역성부여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정체성과 이용자의 편의성 배려

-환경적 접근(열환경, 음환경, 빛환경)을 통한 쾌적한 공간구성

###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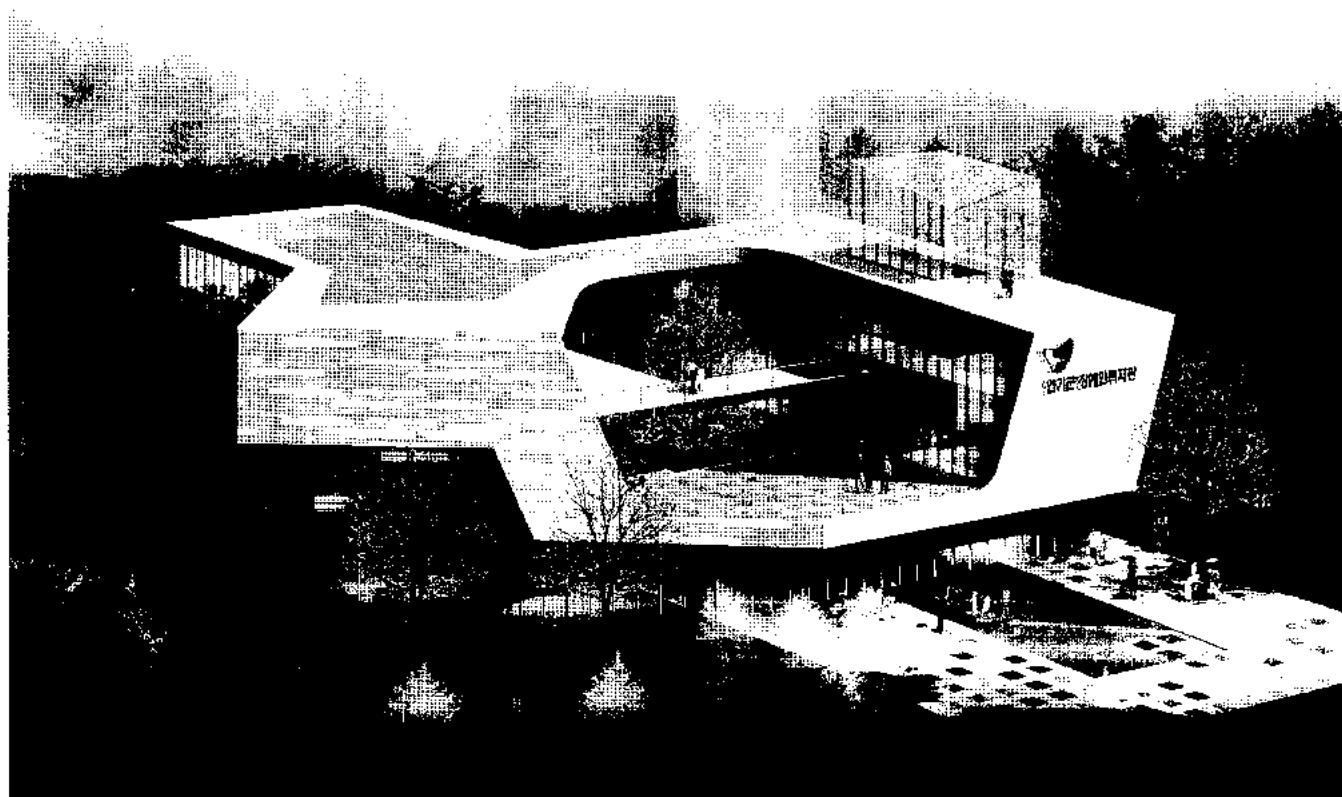
-업무영역과 장애인복지 영역의 기능분리로 효율적인 평면 구성

-장애인 복지 센터의 복합적 기능 수용을 위한 합리적 모듈 사용

-프로그램에 따른 다양한 휴게 공간 도입(중정/옥상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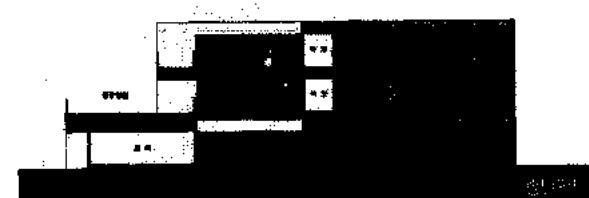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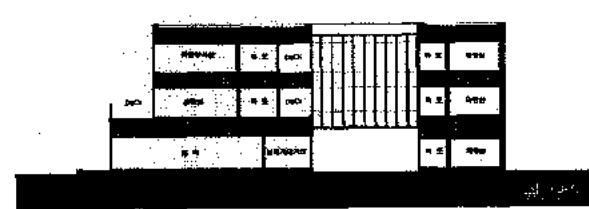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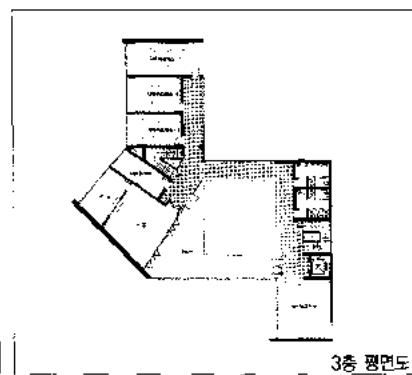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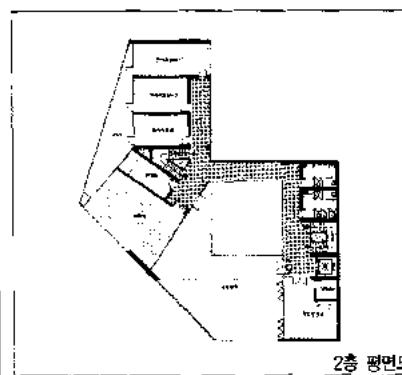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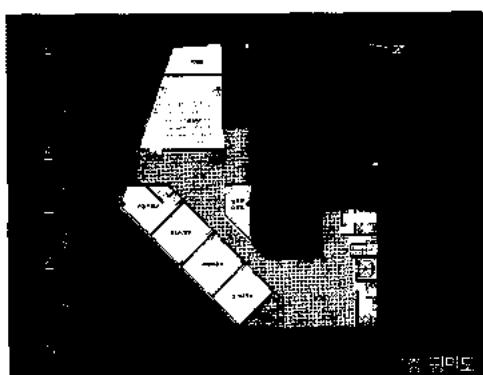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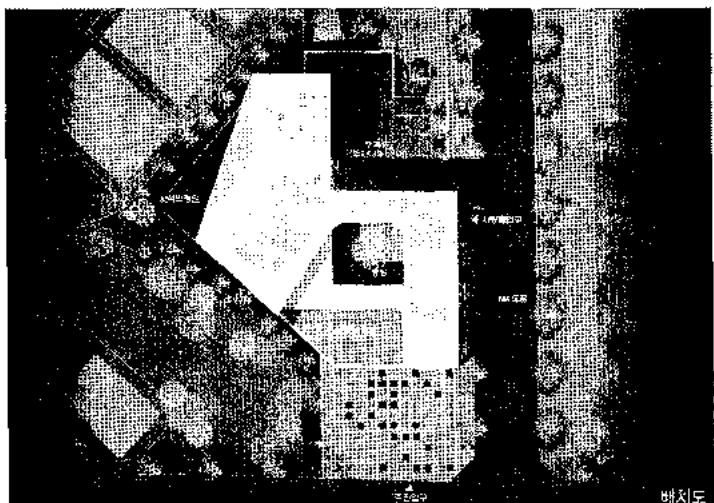
-다양한 옥외공간을 설치하여 내부공간을 외부로 확장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 도시와 건물을 이어주는 접점



## 입면계획

- 기존 장애인복지시설과 차별화 입면계획으로 지역의 랜드마크 가능역할
- 프로그램에 따른 매스의 분절과 조합으로 입면에 변화감 부여
- 대지 경계에 순응하며 주변 맥락속에서 시각적인 흡입력을 고려 한 입면디자인
- 수평/수직적 요소들의 구성으로 공간의 연속적인 유연성에 중점 단면계획
- 향과 조망을 극대화한 단면계획으로 폐쇄적 공간구성
- 건물 내외부의 경계를 허물어 다양한 공간체험의 기회를 제공
- 중정을 중심으로 대지 내외부가 소통하는 열린 공간형성
- 옥외공간의 다중적 유입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공간화 ■



## 연기군 장애인 복지관

Yeongi-gun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Handicapped Person

가 작 / 김청덕 정원현  
(세진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번암리 66-21 및 73-1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비행안전구역

주요용도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대지면적 1,695.00m<sup>2</sup>

건축면적 528.35m<sup>2</sup>

연 면 적 1,359.15m<sup>2</sup>

건 폐 율 31.17%

용 적 률 80.19%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상 3층

설계담당 호종혁, 이영주, 조성준, 육보영

대지분석\_연기군 조치원읍의 연기경찰서에서 남쪽으로 위치한 대지로, 대지 중심인 대지 축은 건물의 축으로, 도로축은 진입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며, 대지 북동측에 야산으로 된 Green View Zone과, 동측의 조천천을 조망할 수 있도록 Open View Zone을 갖게 계획.

### 기본계획방향

- 대지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담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

- 독창적이면서도 친근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복지시설의 상징성 표현.

### 배치계획

- 도로변 대지 전면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개방감을 주고, 진입공간과 휴게공간을 설치 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확보.

- 매스의 분절을 통한 일사량 및 통풍을 확보 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구현.

### 평면계획

- 흘(Hall) 설치하여 인지성 향상 및 관리의 용이성을 확보.

- 이용자와 직원 동선을 분리하면서 상호연

계성 확보하여 각 실에 간결하게 접근.

- 자주 출입하는 공간을 저층에 배치하여 장애인을 위한 편의성을 제공.

- 각실 사용의 융통성을 위해 차음, 내화성이 있는 칸막이벽을 사용.

- 서비스코어를 중심으로 이용자 공간과 관리자 공간을 분리.

### 입면계획

- 의장성이 있는 외장재를 통한 복지관 인식 개선.

- 난간 및 외형 형태를 통한 인지성 향상.

### 단면계획

- 실별 용도에 따른 층고 및 천장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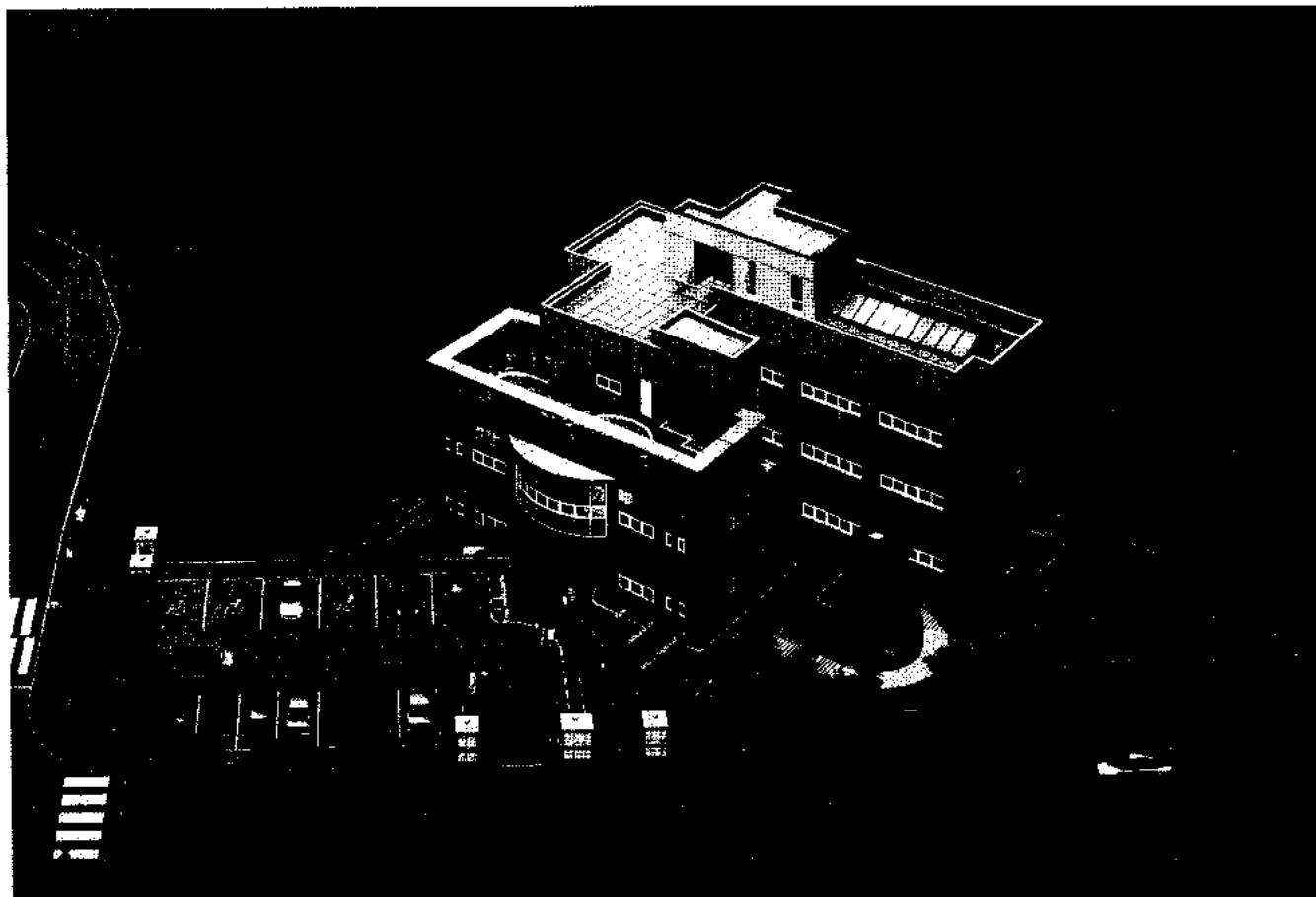
- 이용자와 관리자의 수직동선의 분리 및 상호연계성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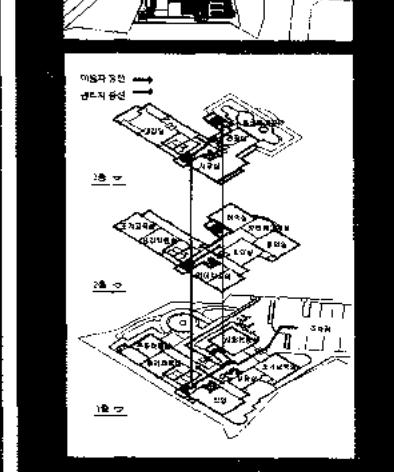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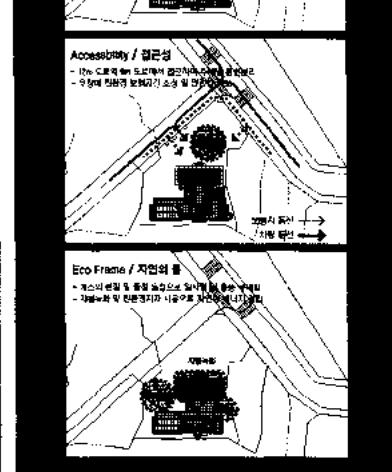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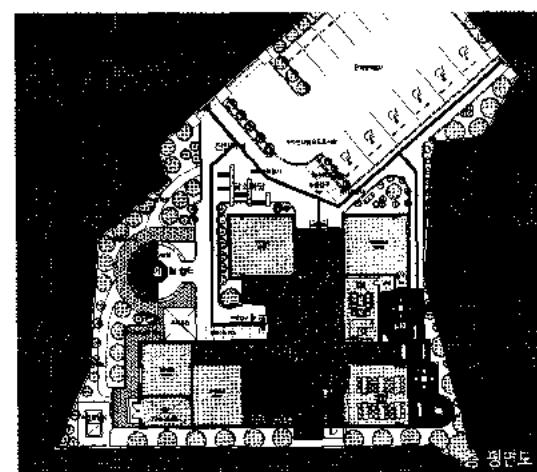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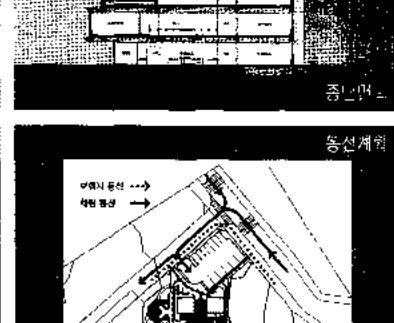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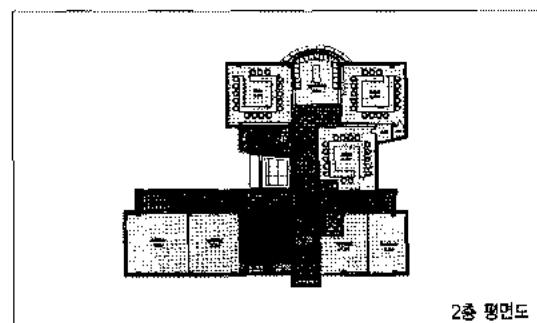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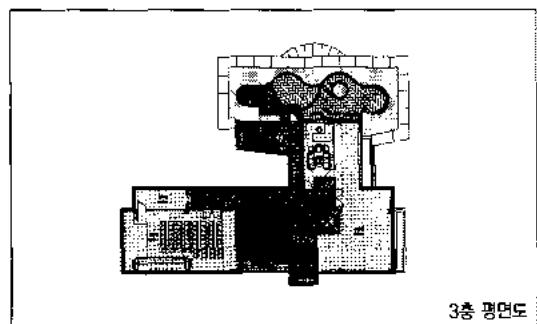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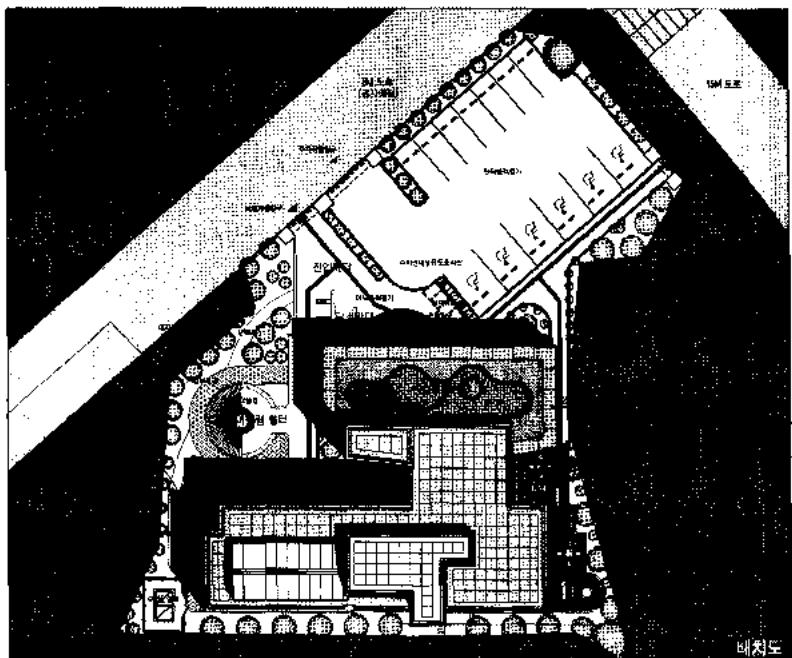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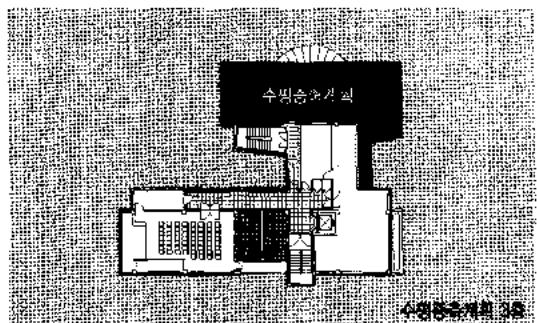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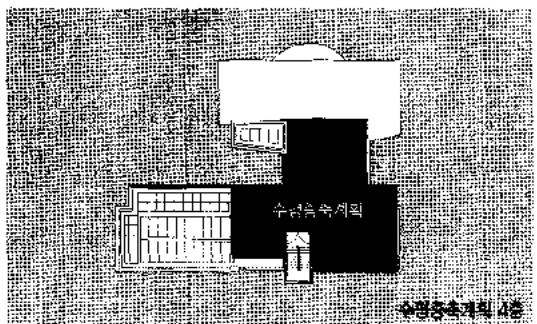
### 외부공간 및 주차계획

-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다목적 옥외휴식공간 계획.

- 보행자와 차량동선 분리하면서 친환경 주차장 조성.

- 진입마당과 주출입구에 연접하게 주차장 설치하여 접근성 확보. ■





# 건축의 공공성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건축정책과 건축센터의 역할 (네덜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 The role of Architectural Policy and Architecture Center in promoting the publicness and participation in architecture (A case of the Netherlands)

본 연재는 앞으로 2회에 걸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Architectural Policy)'과 '네덜란드의 건축센터(Architecture Centers)'의 역할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 중앙 정부와 지역이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으며 네덜란드의 건축과 도시를 조율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건축 정책의 중요한 주체로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층위의 역할과 그 협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건축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정부 주도로 수립된 건축정책을 통해 지난 20여 년 간 건축의 공공성을 표방하며 자국의 건축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는 개별적인 작가들에 의해서리기보다는 건축가(군), 건축기관, 정부 등 여러 주체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건축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

다. 네덜란드 정부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전문적 건축기관에 일임함으로써 전문가들이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건축실천의 방향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설립, 운영되는 지역 건축센터들은 지역의 폭넓은 커뮤니티에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중앙의 건축정책의 방향성을 지역의 커뮤니티에 전달하고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발전시킨다. 본 연재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개별적 주체들의 의식 성장으로 하향식 주도가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며 관심과 동기가 다른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해지고 공공성의 내변자 역할을 했던 건축, 도시계획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공공성에 대한 이해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과 건축센터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 목 차

- 건축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사례  
A case of the Architectural Policy in the Netherlands promoting the publicness of architecture
- 건축의 공공적 인식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네덜란드의 건축 센터 사례  
A case of the Architecture Centers in the Netherlands in promoting public awareness and participation in architecture

필자 : 조임식, 현 싱가포르 국립대 건축학과 조교수

by Cho, Im-sik



조임식 교수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네덜란드 베를라헤 건축대학원(The Berlage Institute Rotterdam, The Netherlands)에서 수학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에서 박사(Ph.D) 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과 로테르담(OMA)의 건축사무소에서 일했으며 베를라헤 건축대학원, 스페인 IaaC(Institute for Advanced Architecture of Catalonia), 한국예술종합학교, 울산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강의 및 설계 스튜디오를 진행하였다. 공간문화기획그룹 ACIA(Architectural Creativity Initiating Agency)의 대표를 역임했으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설립TF팀'팀원, 건축정책 국제심포지엄 기획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국가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T/F팀 위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저서로는 《12인 12색 제주도시건축 이야기》(공저), 2007), 《뉴욕, 런던, 서울의 도시재생 이야기》(공저), 2009)가 있다.

# 건축의 공공적 인식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네덜란드의 건축센터 사례<sup>1)</sup>

- A case of the Architecture Centers in the Netherlands in promoting public awareness and participation in architecture -

## 서언

지난 회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네덜란드는 국가 주도의 건축정책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건축의 공공성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주체적인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방식 변화가 진행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건축과 도시의 공공성은 더 이상 하향식으로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즉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의식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건축의 공공성에 대해 인식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일상생활 속에서의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 가능할 것이다. 이번 회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축센터는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전문가 조직으로, 전문가, 정책, 시민 등을 대개하는 역할을 한다.<sup>2)</sup> 일상생활 속에서 건축에 대한 공공성의 의의가 인식되지 않고서는 건축의 공공성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건축센터가 비록 실제적인 지역사업을 수행하거나 정책의 도구는 아니더라도 주민, 학교, 정책결정권자, 지역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 수행하는 역할의 장기적인 가치를 고려하면 건축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미래적인 가능성의 차원에서 큰 의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2008년부터 건축기본법이 시행되고 건축정책의 토대마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있어 건축의 공공적 인식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대사회적인 소통 통로의 구축과 이러한 역할을 맡을 주체의 마련은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다. 비록 훌륭한 취지로 입안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일반 국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건축정책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축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여러 외국의 사례들

에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을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로 연결하는 역할의 중심에는 다양한 건축 관련 기관이나 민간조직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건축센터의 역할

하나 포드와 브리짓 서여스(2003)에 의하면, 건축센터는 건축과 공간환경의 문화적 의의를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도시 환경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공공 토론의 장을 장려한다.<sup>3)</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건축센터는 건축과 대중 사이의 대화를, 인식과 상호소통 그리고 참여라는 측면에서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건축과 대중간의 상호방향 대화는 보다 나은 삶의 기준을 보장하는 한 편, 공간환경의 문화적 질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다.

비록 개개인이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건축과 공공 사이에는 일정한 상호 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건축센터는, 모든 가능한 형식 안에서 그리고 그것의 사회적, 문화적 관계 안에서 모든 이들이 건축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의식을 촉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이 건축의 가치를 인식하고 일상적인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공간환경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좋은 디자인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전문가와 공공이 모두 양질의 건축을 요구함으로 인해 모든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건축센터는 비정규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건축 공간환

1) 이 글의 일부 내용은 <조암식: 김광현 "건축의 공공적 인식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해외 건축센터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네덜란드 건축협회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5권, 제1호, 2009년 1월>에서 발췌, 편집하였다.

2) 네덜란드의 사례가 보여주는 의의는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을 정부가 건축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인식하고 이를 정책 지원금으로 적극 지원, 육성하고 장려한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의 당시 문화부 장관 Hedy d'Anconad는 1991년 암스테르담 건축센터 ARCAM의 갤러리 오프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건축정책 문서 '건축을 위한 공간'에서 나는 지방정부가 공간환경의 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지역정책의 효율을 위해서는, 공공의 관심을 키울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기획들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건축정책을 위한 근거지가 준비되어야 한다. 지역적 영향력을 갖는 암스테르담의 건축센터 ARCAM, 할렘의 건축센터 ABC, 그로닝언의 건축센터와 같은 기관들이나 다른 비교할 만한 지역의 기획들은 여기서 필수불가결하며 지역의 건축정책의 성공을 위해 특별한 가치가 있다." *Architecture in the Netherlands Yearbook 1991~1992*, NAI Publishers, 1992, p.170

3) Hannah Ford and Bridget Sawyers(ed.), *International Architecture Centres*, Wiley-Academy, Great Britain, p.13, 2003

경의 디자인에 공공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건축과 대중 사이의 대화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이는 건축이 단순히 건물의 생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에 대한 공공의 일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외에 더 나아가 일상의 환경과 깊이 관련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에 공공의 참여를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육을 통해, 보다 폭넓은 공공의 인식과 디자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보다 깊은 공공의 참여가 추구된다.

이러한 센터들은 단순히 건축에 그 활동범위를 한정시키지 않고, 도시 디자인, 계획, 문화 활동, 예술, 공공예술, 유산보존, 지속적 개발, 사회적, 경제적 활동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활동범위를 보여준다. 건축센터들은 단순히 건축의 경향을 자료화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넘어 일시적 전시나 영구적인 컬렉션, 강연회, 세미나, 참여 프로젝트, 이벤트 또는 자문역할과 같은 다양한 접근법과 방법을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한다.

런던 건축재단(Architecture Foundation in London)의 부국장 알리시아 피바로(Alicia Pivaro)는 디자인 결정과정에 공공을 참여시켜 왔던 건축재단의 그 간의 활동이 건축프로젝트에 공공과의 대화를 개입시키는 현재 런던에서의 관행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한다. 건축 도시 전문가들이 대중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그들의 참여를 환영하는 현재의 변화가 런던에서 나타나기까지 건축재단이 부분적으로나마 역할을 해왔다고 그녀는 지적한다.<sup>4)</sup>

결과적으로 공공의 관심과 참여로 인해 좋은 디자인을 장려할 수 있다는 데에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축에 대해 교육받고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일반 대중이 늘어 간다는 것은 건축과 도시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지할 수 있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전문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국 중요한 일인 것이다.<sup>5)</sup>

## 네덜란드 건축센터 설립의 배경과 특징

네덜란드의 경우, 중앙정부가 강력한 건축정책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을 때 대중과 보다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역 곳곳에 다양한 건축촉진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전파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문화적, 정치적 기관으로서 정책결정자, 디자인 전문가, 그리고 대중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한 건축센터들의 역할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센터들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개인이나 지역의회 또는 지역단체에 의해 설립되는데 보다 지역적인 차원에서 일반 대중을 건축과 도시에 관한 토론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주요한 기능으로는 정부 및 지역의 건축정책에 대한 지역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전시, 세미나, 연구회, 지역커뮤니티 활성 프로젝트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의 건축센터의 설립은 제1차 건축정책의 시행으로부터 활발히 촉진되었다. 공식적인 건축정책이 1991년에 발표되기 전에도 다양한 지역 내에서 선도적인 움직임들이 존재하였으나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건축지원정책은 네덜란드 건축협회(the 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나 베를라헤 인스티튜트(the Berlage Institute)와 같은 건축기관들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 외에도 수많은 지역건축센터들과 건축촉진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게끔 하는 원동력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건축센터들은 그들의 소위 '상향식(bottom-up) 역할'로 인해 네덜란드 건축 지역네트워크의 노드로서 특별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네덜란드에는 다양한 크고 작은 건축센터들이 네덜란드 전역에 걸쳐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비단 네덜란드 문화의 중심지인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뿐만 아니라 각 지방 도시들마다 각자의 건축센터를 운영하며 서로간의 교류와 조율을 담당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센터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접근방식을 취함을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독일 베를린의 도시포럼(Stadtforum)이나 프랑스 건축관(IFA: Institut Français d'architecture)이 취하고 있는 '하향식(top-down)' 접근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 보르도 건축센터(Arc en Rêve)의 경우와 같은 '상향식(bottom-up)'의 접근법을 들 수 있겠다. '하향식(top-down)' 접근법을 따르는 모델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좋은 건축과 도시 디자인의 이상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상향식(bottom-up)'의 접근법에 의한 사례들은 일정한 기준을 상정하는 것을 지양하는 대신 교육과 자문을 통해 점진적 변화를 추구한다. 네덜란드의 구조는 건축센터 지원재단(Architectuur Lokaal, AL)이라고 하는 특정 조직이 계획과 정책의 이슈들을 다루고, 일반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 디자인에 관한 전시 및 문화적인 활동은 네덜란드 건축협회(NAI)와 지역의 다른 건축센터들이 집중적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위의 두 가지 접근방식을 포괄하는 이상적인 형태로 평가되고 있다.<sup>6)</sup>

네덜란드에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수의 건축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건축센터지원재단(Architectuur Lokaal, AL)이 그 조율의 역할을 맡고 있다. 건축센터지원재단(AL)은 1993년에 중앙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건축, 도시, 환경계획 및 공공 디자인에 관한 공간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건축 관계당국에게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하고, 지역건축정책과 지역정부의 건축 관련 활동을 보조하며 지역건축정책에 관련된 조직들을 위한 자문기관으로 기능한다. 건축센터지원재단(AL)은 건축센터가 아니라 재단으로서, 문화, 도시 및 지역계획, 환경, 교통에 관련된 4개의 정부부처로부터 운영자금의 절반 정도의 기금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여행, 연구, 지역 건축정책을 위한 도구의 개발 등의 특별 프로젝트를 통해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비영리기구이다. 지역건축정책과 지역정

4) Sam Lubell, 「Architecture Centers: Bridging the Divide between Architects and the Public」, *Architectural Record*, v.192, issue 7, p.84, 2004

5) Ibid, p.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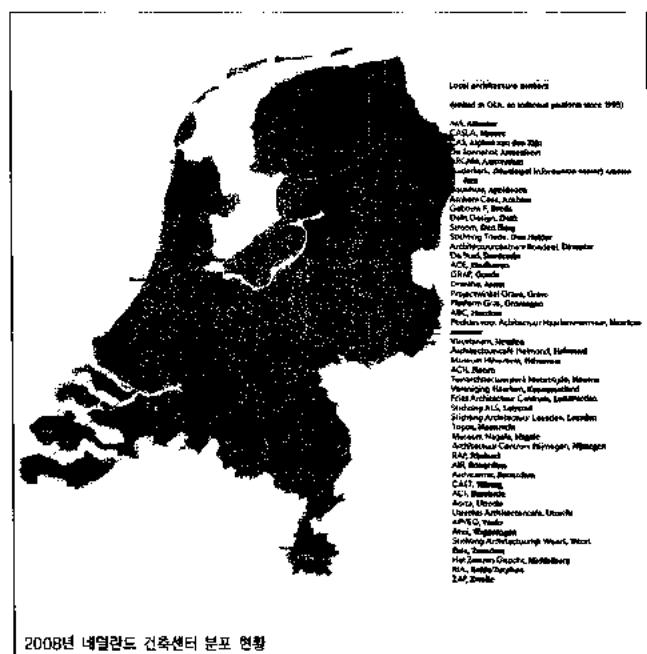
6) 「The Value of Architecture Centers」, conference, London, 2002

부의 건축 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건축센터지원재단(AL)은 지역의 건축센터들과는 다른 성격의 중앙 차원의 조직으로서 각 지역의 건축센터와 구별되는 지점은 그 대상이 주민이나 전문가 아니라, 발주자에 있다는 점이며 주로 지역정부, 사업개발자, 주택사업기업 등으로 발주자의 질이 건축환경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대상을 정한다. 그 작업 범위가 전국에 걸친다는 점에서도 지역에 초점을 두는 건축센터와는 구별된다.

이 기관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하며 건축센터들을 조율,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기관의 경우 1~2년에 한 번씩 전국의 건축센터를 모아 공통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나누고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역할을 한다. 건축센터지원재단(AL)은 중앙정부의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물로서 기금도 건축지원기금이 아닌 정부부처로부터 50% 이상의 지원을 받는다. 이는 건축센터가 네덜란드 건축재단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과 구별되며 정부차원에서 이와 같이 지원을 함으로써 그 존재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중요성에 대해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의 관심은 좋은 발주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며 건축센터가 지역의 이슈나 대중을 상대로 할 때 좋은 보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공공건축의 발주자로서의 지방정부 결정권자를 대상으로 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위한 강의, 출판, 워크숍, 투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지역의 건축센터가 직접적으로 건축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기 힘들다면 건축센터지원재단(AL)은 그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을 직접 받고 직접적으로 지방정부 고위 결정권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쟁방향 펴드백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각 지역의 건축센터의 의견이나 이슈들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지방정부들은 네덜란드 건축재단(Netherlands Architecture Fund)에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앞서, 건축센터지원재단(AL)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건축센터지원재단은 다수의 건축정책과 관련된 국가조직들이 지역건축정책을 촉진하고 지지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단합한 것으로, 지역정부와 기타 지역 관련당국은 이와 같이 건축센터지원재단의 '자문'과 건축재단의 지원기금을 통한 '지원'의 체계 속에서 활성화된다.

현재 네덜란드에는 48여 개의 건축센터와 이들을 종괄적으로 관할하는 '지역건축센터네트워크(Overleg Lokale Architectuurcentra, OLA)'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3년에 건축센터지원재단(AL)과 함께 설립된 '지역건축센터네트워크(OLA)'는 생각, 지식 그리고 정보의 교환을 위한 비형식적 네트워크로 운영된다. 여기서는 새로운 센터의 설립을 돋고, 기존 센터들의 민족의 장이 되기도 한다. 형식적 지위나 별도의 이사회를 갖지 않으며 한 명의 대변인이나 대표가 없이 건축에 대해 체계적이고 공공적 접근을 표방하는 모든 조직에 대해 열린 형식을 취한다. 이 네트워크는 네덜란드 공건축 담론 형성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건축센터지원재단(AL)이 총괄기획과 진행을 맡는다.



2008년 네덜란드 건축센터 분포 현황

네덜란드의 경우, 건축센터의 재정적 지원은 문화교육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와 주택환경건설(Minis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 지방정부의 건축정책에 근거한 건축재단(Netherlands Architecture Fund)과 같은 정부지원금과 출판을 통한 수입, 그리고 각종 후원금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건축센터의 재정지원을 맡는 건축재단이 제1차 건축정책으로 인해 설립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재정지원이 건축센터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건축센터가 담당하는 소통의 활동들은 지속적인 주의를 요하는데 반하여 사적인 후원은 보통 한시적이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더욱이, 대규모 건설 회사나 부자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후원은 질적 기준에 대한 고려보다는 투자의 조건에 최적인 상황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한시적인 후원도 매번 선거와 함께 바뀌며, 연이은 정치적 변화와 함께 방향의 수정을 거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시와 환경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은 전문가의 뜻으로 남겨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문가 집단도 정치적 결정과 행정상의 협상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 과정에서 도시 공간과 환경의 질은 수많은 중요의제 중 하나의 것으로 간과되기 쉽다. 이러한 제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건축계의 인식을 높이는 지속적인 노력 못지않게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품질없이 선도적인 작업을 기획함으로써 공공과 정부에게서 건축에 대한 활발한 인지와 그 가능성들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건축센터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네덜란드에서 최초의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건축센터의 현황(1999년 29개, 2008년 48개)과 그 활발한 활동영역은 건축센터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 네덜란드 건축센터의 활동 사례

네덜란드 건축센터의 주요 활동 사례를 보면, 이들의 활동이 현재의 건축, 도시계획에 관한 해석을 통해 폭넓은 담론 형성에 기여하며, 기존 이론이나 실무활동을 새롭게 조명하거나 확장시키고, 새로운 건축 작품이나 도시개발에 대한 통찰과 방법론 등에 대한 지식확산 및 건축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은 도시나 건축 전반에 걸친 지식 확산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며, 센터가 속한 도시와 지역의 상황에 기반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지역의 다른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긴밀한 협력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sup>7)</sup>

한편 네덜란드의 많은 건축센터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수의 교육 프로젝트는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운영되며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갖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작업으로서, 공공 공간과 건축물의 계획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인식을 갖는 세대를 교육시키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건축이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의를 갖는다.

각 건축센터는 서로 다른 목표와 접근방식을 가지고 일상의 건축, 공간환경에 대한 배움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들을 통해 어린이, 젊은 층 그리고 학교의 교사들이 학교의 정규적인 과정에서 얻기 힘든 창의성과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의 활동은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지속시키는 대안적인 배움의 방법들을 추구하고 마을, 도시의 건축 환경을 탐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배움의 과정을 제공한다. 또 일상 속에서 건축의 발견을 장려하고 교사, 건축가 그리고 이 외 다른 건설관련 전문가간의 파트너십 촉진을 위해 건물에 대한 접근, 직접적 관찰, 경험의장을 마련한다.

이들의 활동대상은 지역의 주민, 커뮤니티그룹, 학교, 학생과 전문가, 유아, 초등, 중등학교, 교사, 관련 실무자, 건축가, 디자이너와 예술가, 지역정책 입안자 등으로 폭넓고 다양하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공공건물의 경험 기회 제공, 지역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촉발하고 배움의 경계를 넘는 것을 지향한다. 건축센터가 기획하는 답사, 강연회, 전시회 등의 활동은 교육적 영향력을 염두에둔다.<sup>8)</sup>

이와 같이 건축센터들은 지역에 바탕을 둔 지식을 기반으로 공공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간환경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해를 도모하는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센터들은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관점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어전다, 관심, 요구, 의견 및 문화적 차이점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젊은이들과 그들 커뮤니티들의 이익과 참여를 증진시키는데에 활용하고 있다.

또 건축센터들이 관여하는 작업의 범위는 폭넓은데, 여기에는 지역의 젊은이, 학생, 교사, 의사결정권자, 공간환경 전문가, 지역 당국자, 문화조직, 커뮤니티 지도자, 커뮤니티 그룹, 노인층, 소수 민족, 피난민, 노숙자, 출판, 미디어 관련자, 방문객 및 여행자들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 모두가 그 대상이며, 이들이 공공, 개인, 정규-비정규 교육 영역 안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건축센터들은 폭넓은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으며, 지역, 국가적 범위에 걸쳐 그들의 전문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주체, 조직들과 협력한다. 이를 통해 보다 넓은 커뮤니티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활동은 동네의 재생에 기여할 수도 있고, 평생교육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네덜란드 지역 건축센터의 움직임은 현재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공공적 계획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적 차원에서 정보의 교환과 의견의 형성을 위한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지역의 건축센터들은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sup>9)</sup>

## 연재를 마치며

지금까지 본 연재는 2회에 걸쳐 건축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사례와 건축의 공공적 인식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네덜란드의 건축센터 사례를 살펴보았다. 네덜란드 정부는 건축정책을 수립하면서 직접적인 개입의 규제자의 역할 대신, 장려와 지원의 역할을 채택하였으며 건축정책의 수립을 통해 다수의 건축기관을 설립하였다. 이들 기관들이 시장자유화나 개인화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건축의 공공성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런 측면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제1차 건축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건축 관련 주체들을 수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네덜란드 건축의 공공성이 구축되고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이와 같이 조건을 수립하고, 공공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정책의 근본적 방향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건축적 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때에만 비로소 건축에 지속적인 질을 부가할 수 있으며 건축문화의 발전과 역사적 유산의 보존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7) 예를 들어 로테르담의 건축센터 AIR Foundation은 건축과 Urbanism, 로테르담과 그 지역의 경관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교환의장을 마련하는 등 로테르담 지역의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IR는 모든 이슈들에 대한 '문화적 담론'을 매우 중요시하며, 물리적인 건축물, 도시환경 등이 디자인적 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 마련한다.

8) 그 사례로 2007년에 건축센터 Gebouw F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진행하여 100여개의 학교그룹이 참가하는 브레타시의 문화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의 건축에 대한 경험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맡았다. 또한 학교관련 프로젝트, 학교 프로젝트 주간, 건축가나 디자이너와 학생들의 만남 등 다양한 교육관련 활동을 전개하였다.

9) 센터들은 네덜란드 건축재단에 연간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2002년에는 건축재단의 공공지원금 중 약 25%에 해당하는 기금이 지역건축센터의 활동에 지원되었다.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더 이상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국가의 건축도시계획을 주도할 수 없는 이 시대에는 건축 관련 각 주체의 공공적 인식과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실행 체계가 갖춰져야만 지속적으로 건축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네덜란드의 사례는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수립하는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건축정책은 '건축은 모든 이들과 관련된 일'이라는 정책기조를 통해 건축정책이 건축과 도시공간에 관련한 여러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속에서 좋은 건축과 좋은 환경을 만들고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만든다.

한편 고유한 지역성에 기반하여 지역의 환경과 요구에 맞춰 설립되고 운영되는 지역의 건축센터는 보다 지역 중심적이며 지역의 계획과 건축이슈, 지역민들의 참여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지역의 건축센터들은 특히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여 지역의 개별적 주체의 공공적 인식을 증진시키는 문화 활동 및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글로벌화의 조류에 대응하여 더욱 중요성이 증가하는 지역 고유의 정체성 강화와 지역 주체들의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음을 알았다.

지역의 건축센터들은 미래 건축 및 도시 조경계획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들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건축, 도시 디자인, 조경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큰 네트워크가 있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공간환경 조성의 성공적 추진은 지역의 관련주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가능하고, 참여하는 관련주체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인정한다면, 지역에 기반한 지식,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긴밀한 네트워크, 폭넓은 파트너십과 넓은 커뮤니티에의 접근성을 가지고 건축, 공간환경 및 공공 영역에의 공공의 참여를 지원, 좋은 건축과 디자인 사례를 장려하며, 건축, 디자인, 공공공간에 대한 보다 나은 공공의 이해를 촉진하는 건축센터의 역할은 지속 가능한 공간환경의 조성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역할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주체의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가 중요해지며 공공성 실천의 재정립을 요구받는 이 시대의 건축과 도시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1. Architecture in the Netherlands Yearbook 1991~1992, NAI Publishers, 1992
2. Cilly Jansen, Architectuur Lokaal and architecture policy in the Netherlands, Discussing Architectural Quality – European Forum for Architectural Policies(Seminar Report), 2003
3. Hannah Ford and Bridget Sawyers(ed.), 'International Architecture Centres', Wiley-Academy, Great Britain, 2003
4. Interministerial Platform on Architecture Policy/Architecture Policy Document Project Group et.al, Shaping the Netherlands: Architectural Policy 2001~2004 (Summary), 2001
5. Kristin Kerstein. et.al, 'Architecture and Quality of Life: A policy Book by the Architect's Council of Europe', Architect's Council of Europe, Brussels, 2004
6. Peter Blundell Jones, Doina Petrescu, Jeremy Till (ed.), Architecture and Participation, Spon Press, NY, USA, 2005
7. Sam Lubell, 'Architecture Centers: Bridging the Divide between Architects and the Public', Architectural Record, v.192, issue 7, 2004
8. The 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NAI Publishers, the Netherlands, 1998

# 사림(士林)의 도시(上)

## The town of chu-tz scholars (a first part)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둘둘미 짬을 내어 16세기 선비들이 계회를 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답사하며 생각했던 내용들을 산문의 형식을 빌려 정리한 것이다. 말하자면 서원 그리고 정원과 정자를 대상으로 자연 속에 모여드는 선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쓴 글이다. 그래서 이번 연재의 서론적인 전반부는 한국철학사와 건축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퇴계 이황이 한양을 떠나 소수서원을 거쳐 안동의 도산서당으로 가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퇴계 이황의 눈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이 왜 서원과 정자와 정원을 만들었는가를 물어보자고 쓴 글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림의 도시라는 제목의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20여 년 전 필자는 건축학회에 소쇄원에 대하여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48詠 시조 속에 내재한 시적 이미지와 상관하여 논문을 발표한 이래 평소 조선시대 사림과 경관은 매우 특이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선비들이 지닌 경관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정리할 상상으로 소쇄원과 보길도 그리고 도산서당에 대한 답사와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16세기 조선시대는 별난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당시 인물들의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면 소쇄원을 조영한 사람은 양산보와 하서 김인후는 그외는 사둔지간이었다. 그리고 김인후와 같이 성균관에 머물렀던 퇴계 이황 역시 밀년에 도산서당을 조성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퇴계 이황 이들은 서로 같은 시대를 살다가 면식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셈이다. 동시에 모두 경관이 빼어난 장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연의 실타래가 그렇게까지 모진 것인지 몰라도 양산보의 소쇄원이 있는 성산과 고산 윤선도의 보길도 사이에 기막힌 사연이 숨어있었다. 바로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호남 유림의 중심지 성산에서 차란 송강 장철이 서인의 정여립 모반사건을 취조할 때 그의 촉

독한 문초를 못 이기고 숨진 사람이 바로 고산 윤선도의 충조부였던 까닭이다. 말하자면 관동별곡을 쓴 가시문학의 대부 정철과 시선의 경지에 있던 시조의 고수 고산 윤선도 사이에 기막힌 악연이 있었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1500년에서 1650년 대 사이 한국사상사과 문학사에 가장 빛나는 영남과 호남의 인물들이 모두 하나같이 자연을 배경으로 인연의 고리에 끌려있었고 이들은 한국건축의 대표적인 정원과 서원을 남긴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이 남긴 자취는 개별적인 것으로 각론적 입장에서 다를 것이 아니라 뚜렷한 사조를 지닌 시대의 흐름으로 정리할 문제였다. 그뿐만 아니다. 이들이 남긴 삶의 궤적 속에 영남의 선비들은 서원으로 호남의 선비들은 정자로…인물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목격한 필자는 바로 이곳이 사림의 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16세기 조선에는 이를 발화시킨 자연과 생명과 삶에 대한 사고(思考)가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퇴계 이황의 이야기를 뛰어어 구체적으로 서원과 정원이야기로,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그리고 소쇄원과 관동별곡 그리고 보길도를 중심으로 상, 하 10여회씩 총 20회 분량으로 전개된다.

이 글을 통한 필자의 바램은 독자와 함께 도시라는 거대한 기계적 도구들의 틀 속에 마을과 촌락을 포함시킨 현대도시와 대별되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이시대의 학우가 되고 있는 녹색건축, 녹색도시를 풀어갈 인문학적 실마리와 출발선임을 알리고 싶다. 만약 이를 계기로 생명이 가득한 지구를 만들어 가야하는 미래의 짐을 지고 우리가 물질문명으로 가득한 도시문화의 터널 속을 제대로 걸어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여행기 비슷한 답사록과 좀 다른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소리없는 부담이 그림자처럼 필자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

### 목 차

1. 어로(解題), 영원한 생명의 도시 찾아 A journey, searching for the Eternal life giving town
2. 퍼즐\_Puzzle
3. 역사 교는 만들기 3. 단양(丹陽)지도 읽기 Making historical code 3. Reading Danyang Map
4. 퍼즐 1. 퇴계 이황과 단양학교 The Chu-tz scholar Toegae-Lee whang and Danyang haengkyo
5. 퍼즐 2. 퇴계 이황과 단양 Toegae-Lee whang and Danyang
6. 퍼즐 3. 퇴계 이황과 단양 Toegae-Lee whang and Danyang
7. 퍼즐 4. 퇴계 이황과 단양, 산과 산길 그리고 산촌\_Mountain, If's path and village
8. 퍼즐 5. 퇴계 이황과 단양\_Toege-Lee Whang and Danyang
9. 퍼즐 6. 단양, 1970년\_Puzzle 6. Danyang 1970
10. 퍼즐 7. 1970년 단양 도시구조\_Puzzle 7. The urban structure of Danyang 1970
11. 소수서원 가는 길\_A Way to the Sosu seowon

필자 : 한재수, 현 한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by Han, Jae-su, HKIRA

한재수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 신아건축에 근무한바 있으며 한국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난 10년 간 농림부 과제로 한글 산업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와 관련된 2가지 특허출원과 함께 전통목조 기법의 현대화에 관한 대수의 논문을 관련학회에 발표한 바 있다. 저서로 건축학자가 풀어낸 '횡도개경의 비밀' 2002, '도서출판 옛오늘', 이 있으며 조선시대 읍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도시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한라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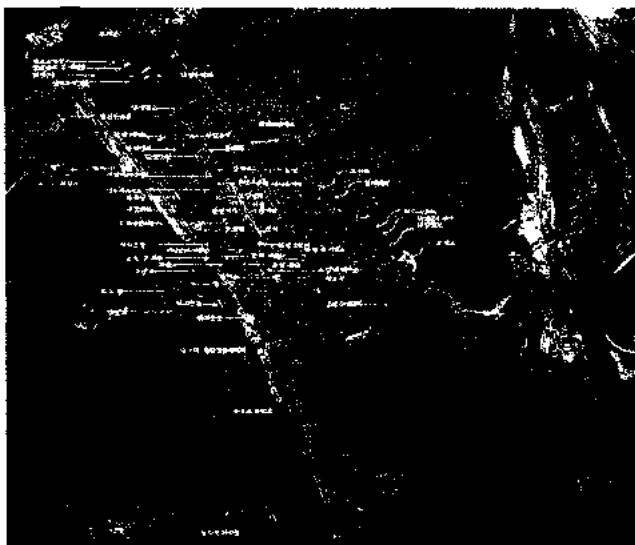


- 대한건축학회 이사, 논문집 편집위원, 역사위원회 위원장
- 한국건축학회 논문집 편집위원
-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 위원, 교통망경기위원회 위원

## 퍼즐 7. 1970년 단양 도시구조

- Puzzle 7. The urban structure of Danyang 1970 -

단양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로 이상하고 특이한데가 많았다. 인구구 모를 보면 단양인구의 절정기를 이루었던 1970년 초 군청소재인 단양 읍의 상주인구는 19,000여명이었으므로 군 전체 인구 92,000명 가운데 약 20% 정도가 이곳에 모여 산 셈이다. 인구 집중도가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으나 군청소재지로서 자리하기엔 너무도 땅이 작은 것이 흠이었다. 이런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형성된 단양은, 농촌마을이 형성되는 일반적인 관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변은 논농사를 짓기에 너무 협소했다. 그렇다고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로 보기에도 성재산이 남북으로 가로막고 서 있어 읍내와 바깥세상을 연결하려면 교통이 불편했다. 외지로 나아가려고 북하리 일대로 가려면 이 산을 돌아가거나, 놋재를 넘어야 했고 서쪽으로 충주 방향으로 진출해보려면 단양천을 건너야 했다. 사실 어들 간의 직선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곳의 자연은 그 쓰임새마저 넉넉지 않은 텃인지 나루터와 역과 역촌은 읍치와 별개처럼 여겨질 정도로 산에 가려있었고 개천이 가로막아 서로 멀어져 있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읍치를 중심으로 주변에 면, 리를 구성하며 산재해 있는 또 다른 촌락들은 비록 또 다른 산과 내와 같은 지형지물에 가려져 별개인양 서로 떨어져 있었으나 이들 사이를 이어온 산길은 재 너머 밭두령 길을 통하여 지름길로 고샅과 골목으로 이어졌고 물길은 나들목을 건너 마을과 마을을 끈끈하게 묶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온 점만은 어느 곳 하나 예외 없이 한결같았다. 이렇듯 산길의 패턴을 유지한 채 산촌과 산촌을 연결하면서 계곡과 계곡을, 마을과 마을을 서로 잇고 산자락과 산자락을 소통시킨 것은 하루거리와 반나절 거리에 산재했던 고갯마루였고 이곳을 중심으로 절점을 형성한 봉노와 주막 그리고 여각과 객주였다. 주변 도시 제천만 정기시(3, 8장) 만하더라도 북쪽으로 원주, 동쪽으로 삼척의 개장(蟹場)으로 연결되는 영월 정기시(4, 9장) 평창 정기시(5, 10장) 정선 정기시(3, 7장)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그리고 원주로 가는 길목의 매포 정기시(3, 8장)와 영월가는 길목의 영춘의 정기시(4, 9장) 이들이 속한 도시는 비록 그리 크거나 물산이 훈한 곳은 아니었으나 모두 단양과는 자척인데다가 밤을 새우면 장날인 곳으로 가근방 저자를 훑는 장돌뱅이와 장사꾼들의 용래가 제법 빈번했던 곳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이를 부지런히 걸어야 달을 수 있는 북쪽의 원주와 서쪽의 충주는 중부내륙도시에서 한 양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다시 방향을 돌려 남쪽으로 소백산 죽령을 넘어서면 단양읍은 풍기의 정기시인 건시(乾柿 / 3, 8장)와 안동의 삼베장과 연결된 영주 정기시(5, 10장) 봉화 정기시(2, 7장), 춘양 정기시(4, 9장)과 이어졌다. 바로 이런 군청소재지에 있는 재래시장과의 연계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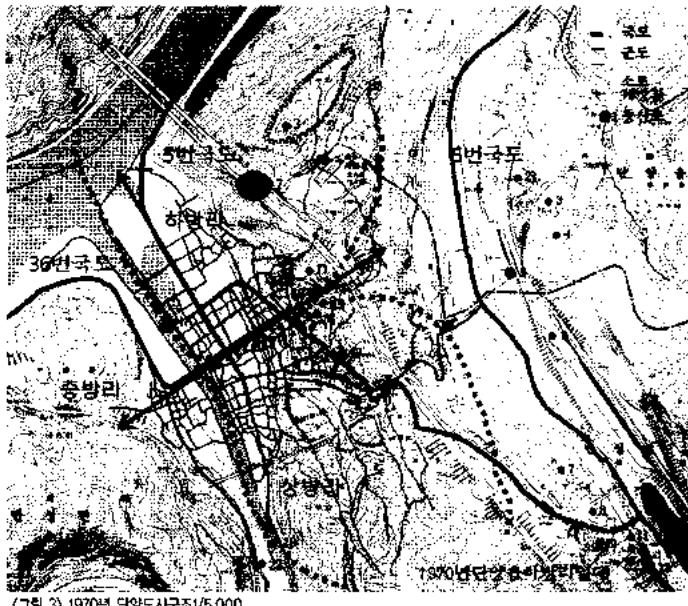


(그림 1) 1970년대 단양 도시사설 분포



(그림 2) 1970년대 단양읍 충봉리에서 바라본 하평리와 삼벌리

바탕으로 단양군에 생사되지 않는 물목인 의류와 수산물 그리고 청과류가 거래되었던 중심도시로 형성되어온 훈적이 남아 있던 곳이 바로 1970년대 단양이었다. 이곳으로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삼도에 흘러져 서로 다른 입지를 지난 산촌들에 살았던 장삿꾼들 그리고 시대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도부꾼들과 선질꾼이나 등짐장수들이 물길과 산길에 의지하여 외지로 연결되어 수집한 인근의 물류와 정보들을 갖고 모여들었고 흘러졌던 까닭에 단양은 자연스레 이곳 사람들 삶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된 도시이었다. 그래서 단양이란 도시를 움직인 활력은 이런 난장(亂場)의 흥청거림에서 전통적인 삶과 신 물결이 서로 충돌하고 변화하는 가운데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이런 도시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도시의 융광로와 같은 장터이었다. 계절에 따라 거래되는 다양한 물화, 사람과 사람들의 만남, 소통되는 지역과 지역의 정보, 이런 다양한 시장풍경에서 단양이란 도시의 생명력을 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단양이란 도시의 접근성이 좋지 않았더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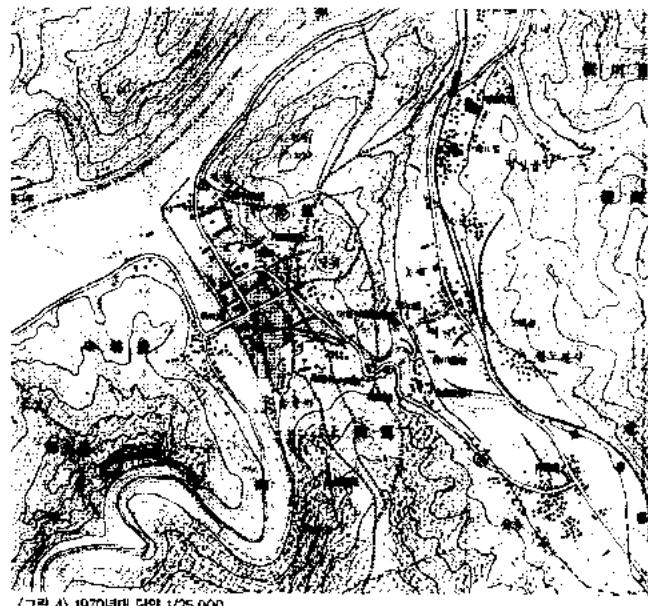


(그림 3) 1970년 단양도시구조 1/6,000

면 물류와 정보의 유통력이 이곳에 있을 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히 어느 곳도 업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곳 단양장터가 단발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예부터 계승해왔을 이곳만의 특징적인 요소라는 것을 전제하게 했다.

단양읍의 도시구조는 이런 사실을 전제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우선 단양읍은 우화교와 연결된 동서대로를 중심축으로 단양읍사무소 북쪽의 하방리, 남쪽의 상방리, 단양천 건너를 중방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방리는 지형이 저평한 관계로 격자형 가로망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격자의 패턴이 사거리가 조성되는 열십자형이 아니라 T자형이었으므로 이곳은 직선도로와 함께 이동의 안정성이 높은 삼거리가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상방리는 대부분의 주거지가 산록에 자리한 까닭에 하방리와 지형이 전혀 달랐다. 두악산 산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밭두렁 길을 집터로 만든 까닭에 산의 경사를 따라 수평이동로가 써줄처럼 형성되어 있었고 산자락의 주름진 계곡을 따라 고개를 향한 길이 날줄처럼 열려 있었다. 그런 탓인지 그 형상은 마치 유통불통한 언덕에 그물을 늘어놓은 것처럼 크기마자 제각각인 사각형 블록이 이그리지고 찌그러진 모양새로 얼기설기 엮여 있는 것처럼 펼쳐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길이야 말로 격자형에 가까운 도로망이었다. 중방리의 것도 이와 유사했으나 이곳 역시 논을 허물어 집터를 만든 까닭에 고샅을 형성한 가로의 패턴은 물을 담으려고 지세를 따라 수평을 애써 잡았던 자유 분방한 논두렁길을 벗어나지 못했다. 단양읍 내 도로망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수많은 실핏줄 같은 고샅과 골목길의 자유 분방함이 필지를 구성했고 직선을 지향하는 5번 국도 그리고 36번 국도와 59번 국도를 동맥으로 결합된 것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양천을 건너 중방리와 하방리 상방리와 중방리를 잇는 네 개의 나들목의 역할이었다. 하방리의 그것은 하진리 도선목에서부터 남한강을 건너와 모래톱을 걸어 제련소 앞에서 봉산자락 오른편으로 돌아 단양천변으로 걸어 내려가면 마주보이는 삼양제재소 고샅길을 향해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다. 단양천을 끼고 양편으로 늘어선 뚝방 길은 꼬리를 물고 두악산과 봉산 사이를 비집고 파고들었다. 흥수를 대비하여 쌓아 올린 터에 가파른 뚝방 언덕을 숨차게 기어오르



(그림 4) 1970년대 단양 1/25,000

면 성재산 넘는 고갯길 당재가 단숨에 단양초등학교 뒷마을을 거쳐 너머 갈수 있을 것처럼 가까이 눈에 들어왔다. 당재를 올라서야 비로서 사람들은 북하리 서낭들로 나아가 출렁다리를 건너 단양역에서 기차를 타고 외지로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길은 5번 국도에 접속되어 있어 소전머리와 단양장을 가는 하진리 사람들이 자주 이용했다. 중방리에서 멀리 보이는 놋재는 북하리를 지나 죽령까지 뻗어 있었다. 하지만 바로 쿄앞에서 중방리와 상방리를 가르며 흐르는 단양천을 건너면 비록 물은 얕고 여울도 폭이 넓지 않았으나 물살이 세서 맨발로 건너기가 만만치 않았다. 한달에 여섯 번이나 열리는 단양장에 가려면 단양천을 건너야 했으므로 사람들은 상류에서 흘러내린 강들이 많거나 거센 물살에 깊이 나머지 강바닥을 뛰고 솟아 오른 바위들이 많아 건너기 수월한 곳을 찾아 징검다리를 놓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중방리와 상방리를 잇는 나들목은 세 곳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중방리 한자공장에서 놋재를 향한 나들목으로 이곳은 마을근처 가까이 있는 길목이어서 기차를 타려 북하리로 가거나 죽령너머가려는 중방리 아랫녘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다. 그리고 백여보 정도 더 뚝방 길을 거슬러 올라가면 논두렁길에서 단양천을 건너 놋재와 두악산을 향한 나들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은 퇴계 이황선생이 현감으로 있을 당시 발을 셋었던 턱오대가 있는 곳으로 주로 중방리 윗녘 마을 사람들이 이용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대잠리나 가산리 사람들이 둔돌미에서 성재산으로 너머 갈 때 이용했던 길목으로 징검다리가 아니라 복도소를 막은 보였다. 그 중심통로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우화교였다. 이 다리는 두악산 줄기를 매듭지는 성재산과 봉산 사이를 흐르는 단양천 하구를 비집고 세워진 교량으로 이 고을을 경사에 따라 크게 남북으로 나누는 기준점이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단양천으로 성재산 두악산 지역과 봉산 지역을 자연스럽게 다시 양분된 이 두 지역을 하나로 묶는 구심성을 지닌 통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말하자면 단양읍이란 도시는 이곳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지역 상방리 중방리 하방리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옛터를 바탕으로 5번 국도와 36번 국도, 59번 국도 그리고 남한강과 단양천이란 물류이동통로를 동맥으로 나름의 특성을 살려 성장해온 특이한 패턴의 역사를 지닌 도시였던 셈이다. 이러한 단양의 역사성은 1811년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형을 무시하



(그림 5) 1970년 단양의 도시시설물 분포

고 엄격한 격자형 모습을 지닌 전형적인 근대 도시로 개발한 맨하탄과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닌, 도시의 유기적(有氣的) 특성이 시간의 때를 묻혀가며 배여 있는 곳이기도 했다. 마치 거대한 비행기나 선박처럼 잘 해석된 동력학적 메카니즘에 의하여 하나 둘씩 연결되는 부품과 부품의 결합처럼 세상을 정형화 시키는 구조 속에 살아 있는 기계의 혼을 추구한 아키크램(Archigram)이나 솔레리(Soleri)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생명의 신비가 이 자그마한 산촌도시의 구성원리 바탕에 감돌았다. 1970년 항공사진을 보면 볼수록 도시는 더 이상 발전소 혹은 일련의 조립공정라인처럼 엄격한 질서에 의하여 태어나고 디자인되어진 그런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엄습해 왔다. 기계가 지닌 강력하고 명확한 기능적인 형태미를 표방하는 단순함, 축을 지닌 방향성, 뛰어난 계통성, 저렴함을 추구하는 경제성등 이런 것들을 내 기억에서 내려놓을 수록… 그것이 우주를 들여다보는 거울이자 마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할수록 단양이란 도시의 모습은 생명을 담고 있는 자연의 일부이자 유기체로 다가왔다.

과연 궁벽해 보이는 이 산촌도시 단양에 활력을 불어놓은 원동력으로 볼 수 있는 접근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선 도시 분포를 탐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이곳에는 보통의 읍 단위에선 볼 수 없는 다양하고 규모 있는 도시 시설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북쪽의 대포에서 들어오는 5번국도와 우화교를 건너온 36번국도가 읍내 동서가로와 남북가로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T자로 만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가로를 따라 늘어져 있는 상점과 집화점이 읍내 중심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방리에는 조그마한 읍치에 걸맞지 않게 자리한 술 청거리, 그것을 둘러싼 시장이 읍내 중심가의 한 블록을 거의 다 차지 할 정도로 커다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탓인지는 몰라도 이곳에 오일장이 서면 장터에는 이쁜 아침부터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차일이 잇대어 쳐진 장터에는 국밥거리를 장만하거나 술국과 팔죽을 끓이느라 지끈 생솔가지 연기가 자욱하게 땅바닥을 기고 질편한 장바닥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떠드는 소리가 와자지껄하게 피어올랐다. 계산에 채운 성질 급한 사람들은 앞질러 말을 하려고 다투었고 홍

정이 이루어진 어느 대목에서는 다 함께 목청껏 웃어대곤 했다. 아침 일찍부터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에 꼭두새벽부터 술렁거리거나 부산스러운 활기가 도는 것은 장터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혼한 일이었다. 질편한 장바닥에 좌판을 벌려 놓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장터거리의 북적거림과 소란스러움은 제대로 어우러진 짹이기도 했다. 가끔 산골 아낙네의 머리에 인 쌀 보통이 위에 올라앉은 암탉은 동그란 눈을 두리번거리다가 날개를 펴득이며 꼬꼬댁 거렸고 짧은 네다리가 하나로 묶는 바람에 등이 휘어진 되지는 흔한 침을 질질 흘려가며 있는 힘껏 꽈액 꽈액 소리를 질려대며 마을 잔치나 집안 경사, 자식 놀 화비 벌려 온 농사꾼의 지게에 실려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별로 볼품없는 조판을 벌린 장뜰뱅이들이 성급하게 제각각 호객타령을 뽑아대는 소리, 들러리나 얼치기들이 호객하는 소리, 떠거머리 바람잡이나 동업자를 이용하여 흥정을 불이는 소리, 옆장수의 재담이란 장타령, 장수들은 마수걸이나 하길 기다리며 주린 배를 안고 늑장을 부리는 모습, 비령뱅이들이 어느 가게 앞에서부터 장타령을 걸쭉하게 한 바탕 뽑을까 슬슬 눈치를 보며 장터거리로 스며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단양장터 풍경이었다. 오가다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사돈도 있었고 이웃도 있었다. 놀이꾼들이 손님을 불러 모으려고 온갖 놀이를 파는 유흥이 넘치는 것이 장터의 속성이기도 했다. 같은 날도 물건값이 일정치 않아 값이 가장 비쌀 때 사는 것을 상투 잡았다고 올상을 짓는 사람도 있었고 가져온 물화가 흥정이 잘되어 값을 잘 받아 성애 되었다 하여 성랫술을 상대에게 대접하여 정을 나누는 것이 이곳 장터의 훈훈한 인심이기도 했다. 그래서 큰 남이 장에 간다고 시오쟁이 짊어지고 따라간다는 이런 장터거리는 시외버스터미널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단양군청 못 미친 사거리 복까지였고 장터는 그 중앙지점에 바로 아랫녘 골목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단양 오일장은 예로부터 제천장보다 그 규모가 배이상 커졌다. 인접한 영춘이나 매포 인구 절반이상이 단양장을 보려 몰려든 탓도 있었고 그에 따라 제천 상인들은 물론 멀리 충주 영월에서도 물길을 따라 포구에 배를 끊어둘 정도였다. 단양의 임지조건에 의해 형성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이런 이유로 단양사람들은 인근지역에 대해 묘한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 단양 읍은 단양군의 규모에 비해 의외로 지나칠 정도로 시장규모가 커졌다. 산골 저자치고는 대처를 방불케 할 만큼 내륙의 많은 물화들이 쏟아져 들어와 있었던 것은 분명했고 의지로 나가는 상인들도 그 뜻지 않게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소가 명예를 끌듯 한해의 농사일을 시작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소시장은 자식 놀 화비를 마련할 수 있는 용처가 아닐 수 없었다. 현천교를 지나 성재산 밀 얼음 창고를 지나 원편으로 돌아서면 도살장이 니았고 곧이어 남한강과 단구협을 배경으로 서 있는 넓은 공터, 단양장 쇠전머리가 눈에 들어온다. 근처에 성황당과 숯거리<sup>1)</sup>가 있었고 도살장과 쇠전머리 사이 쇠전 어름의 길목에 술국집과 쇠전이 몇 채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강 하구 선창머리엔 팔린 소와 우파를 실어 나를 당도리와 시선들이 매여 있었다. 이들은 산록을 따라 남한강을 바라보고 단양초등교 북쪽 진입로 근처 재깐 모퉁이에 백정<sup>2)</sup>과 쇠전꾼들과 도부꾼들이 흩어져 살았다. 그런 깊닭에 단양장이 서면 으레 이곳은 쇠살주들과 소 예닐곱 마리 정도를 거느린 쇠전꾼들 그리고 우파장수들이 각처에서 몰려들었고 사공들도 몰려들었으므로 재간모퉁이 근처 역시 단양장 뜻지않게

1)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곳에서 숯을 쌓다 두었다가 뗏목으로 한양으로 실어 날랐다.

복적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양장은 이미 점도 부족했던지 새로 운 시장을 장터거리 윗녘 골목에 농협을 마주보고 또 다시 개설할 정도 였으나 단양의 상권은 가히 짐작할 만했다.

현대 단양장과 쇠전 이외에도 단양 시장의 특이한 점은 장터거리 둑 지않은 술청거리가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점이다. 장터거리에서 조금 올라간 윗녘 뒷골목을 따라 자그마한 모자형 기와집들이 줄을 지어 있었던 이곳엔 술도가와 함께 세주가가 있어 장날이면 행객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심심치 않게 장병들을 흔들거리며 밝혀둔 대문채를 기웃거리며 드나들었다. 대낮에도 그늘진 이 좁다란 골목길에 들어서면 술청에서 술꾼들이 마음 놓고 떠드는 소리가 왁자지껄한 그 흥겨움 속에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 이곳의 생리였다는 사실이었다. 제법 규모 있는 술청 큰방에는 으레 걸직한 술판이 벌어지기 마련이었다. 이곳 유자들이나 거상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곤 했던 술판에는 기자기자 음식들이 제각기 자리다툼이라도 하듯 상머리까지 가득하게 차 있었다. 그리고 손님들 옆에는 제각기 색깔과 무늬가 다른 한복을 차려입은 나이 어린 기생들이 맵시 다툼이라도 하듯 분내음을 짓게 풍기며 교태를 부리며 앉아 있었고 윗목 쪽으로 여흥을 둘우는데 쓰이는 소리 북과 가야금 장구가 나란히 숨을 죽이고 있기 마련이었다. 골목 초입에는 으레 파장 무렵 한길 바닥에 험지박이나 모판 돌상을 내다놓고 밀전병이나 백설기에 수수장력을 팔고 있는 떡장수들과 들병 이들이 즐기차게 길손을 불러들였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려는 장들 병이들에게 잔술이라도 팔아보려고 멀리 행인들이 보일 때마다 소리 치고 손짓을 하곤 했다. 이를 뒤에 한 쪽에는 퇴물 같은 계집들도 있었지만 제법 얼굴이 해반주그레한 축들도 없지 않아 파장머리 일수록 잔술과 계집들의 웃음을 그런대로 심심치 않게 펼리곤 했다. 이런 질편한 장터 모퉁이에 이들을 집으로 실어 나르기라도 하려는 듯 시외버스터 미널이 있었다.

그리고 장날이면 한솔 더 뜨는 것이 우화교 초입에 자리한 극장이었다. 이맘때면 어느 때 없이 극장 스파커를 크게 노래를 틀어냈고 약간 신듯한 촉촉한 물기어린 귀에 익은 변사의 청산유수 같은 목소리가 들리기 마련이었다. 이날만큼은 으레 극장도 재미를 특특히 보는 날이어서 새로 시작한 악단이나 활동사진 내용을 설명하는 변사의 감정어린 목소리가 안개가 걷히기 전부터 읍내에 퍼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변사의 목소리에 떠밀린 사람들은 활동사진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을 즐겼다. 또 같은 여행이라도 변사에 따라 그 맛이 전혀 달랐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런 변사의 목소리를 잊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 무렵부터 극장 앞 빙터를 서성거리며 자주 찾아 온 것은 행여 공짜 구경을 노리고 숨어 들어오는 아이들의 국성이었고 읍내 공터에 드높은 천막을 치고 온갖 기발을 나부끼며 신바람 나게 나팔을 불어대는 서커스단도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장과 연결된 금융시설, 1945년 단양금융조합으로 시작된 농협 중앙회 단양지부, 1921년 설립된 산림조합, 1905년 임시 우편소로 개설된 우체국 1937년 등 일본식 목조건물이 5번 국도를 따라 남북으로 늘어서 있었다. 당재 너머 가는 성재산 산록에 남선 합동전기 대전지점 단양출장소로 발족한 한전 단양출장소가 있었고 의료시설로 의원과 보건소가 종교시설로 교회와 성당이 있었다. 행정시설로 군청을 비롯하여 1969년 이축한 교육청 1917년 구한말 순교청(巡校廳) 자리에 세운 등기소등과 같은 각종관공서가 있었고 교육시설로 1910년 개교한 단양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한 일본식 목조건축의 단양초등학교가 있었다. 바로 이 학교에서 1945년 단양공립공업 전수학교가 설립된 다음 1949년 남녀공학으로 설립된 단양중학교는 새로운 터를 재깐모퉁이 쪽에 신축하였다. 이를 근거로 남쪽 운동장에 1952년 공업고등학교로 발전한 단양공고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969년 단양공고에서 단암여중과 단암여고가 다시 분리해 나갔다. 이제 머리를 박박 깎고 검정색 모자와 교복을 입은 남학생과 단발머리에 하얀 것을 단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사용했던 단양중학교 운동장 시설로만 이 세 학교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학교부지 터를 물색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의원과 연탄공장에 이르기까지 도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구색을 갖추고 있었고 그사이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어 제법 규모가 있는 여느 도시와 견주어 보아도 거의 다를 게 없었다. 그리고 우화교 끝단에서 시작되는 동서대로를 끼고 조성된 상방리에 1919년 조선총독부령에 따라 설치된 이래 1972년 단양 대홍수로 침수되어 1975년 청사를 새로 신축한 경찰서와 1954년 설치된 단양읍사무소가 있었다. 그리고 5번 국도와 36번 국도가 만나는 교차로에 5번 국도와 연결된 중로를 끼고 소방서와 예비군증대본부가 있었고 길에서 약간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서면 술찌꺼미 냄새 구수한 술도가 그리고 언제나 무서운 기세로 돌아가는 파대소리 요란한 정미소가 있었다. 1970년대 만해도 해마다 오월의 뜬보리를 기다리는 사월이 되면 이곳을 찾는 아이들이 많았다. 죽 한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춘궁기가 극에 달하면 아이들은 어지럼증에 시달렸고 부황기는 눈에까지 퍼져 흰자위마저 누르스름하게 물들어 갔다. 그럴 때면 아이들은 어지랑이를 해치며 뱃산 성재산으로, 두악산으로 기어올랐다. 물오름이 한창이 이산에는 그나마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최소한의 먹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일부는 이곳을 찾았다.

2) 조선의 백정은 사천(私駕)의 하나로서, 일명 재우군(宰牛軍)이라 불렸다. 호적(戶籍)에서 제외된 천민계급으로 가죽류의 도살을 주업으로 하는 한편 부업으로 고리를 제작하였다. 백정이란 명칭은 원래 수(隨)나라에서는 백성을 일컬던 말로서 고려에 전래되었을 당시는 그대로 백성을 가리키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에서는 백정에 대하여 일정한 직업도, 일정한 토지도 주지 않았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군호(軍戶)에도 편입시켰고, 또 역정(驛丁)에도 보충하여 아들에 대해서만 일정한 토지를 주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천인이라 하더라도 가장 우대받는 편이었다. 그런데 고려 사회에는 병방 민족의 귀화인으로서 일반 민족과 융합되지 못하고 병방 생활을 하며 특수 부리를 형성하고 있는 족속이 있어서 이들은 양수혁(楊水尺) 혹은 화혁(禾尺)이라 하였는데, 이를 양수혁은 예구를 가장하고 민기 및 관청에 침입하여 노란질해 가는 일이 많아 일반 민족의 원성이 높았다. 조선에 들어오자 조정에서는 이들을 매우 엄격히 감독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 대부분이 도살업(屠殺業)을 생업으로 삼게 되었고, 기타 광대·고리 제조 등을 하며 살아갔다. 1425년(세종 7) 세종은 양수혁을 평민으로 대우해 주기 위하여 백정에 편입시켰고, 일반 민중은 이들은 신백정(新白丁)이라 하였으나 종래 생민 중에서 약간 천인 쪽에 있던 백정보다는 양수혁으로 백정에 편입된 신백정이 사회적으로 폐단이 될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므로 이후 백정이란 명칭은 신백정을 가리키는 말로 변질되었다. 그동안 백정은 각 지방으로 흩어져 무질서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대전회통(大典會通)에 따르면 매해 그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을 서울과 각 지방에 꼽고루 배치하여 그들의 명부를 작성하고 생활을 엄격히 감독하게 하였다. 한다. 이들은 천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없었으므로 평민 가운데 생활이 곤란해지면 백정으로 들어가는 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백정의 수는 날로 증가하였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조사에 따르면 백정의 수가 7,538호, 33,712명이었다. 하나 실제의 수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백정은 갑오경장(甲午更張)을 계기로 저도상으로는 신분적 평등권을 얻었으나 오랫동안의 습관은 간단하게 버려지지 않아 여전히 차별을 받아 오던 중, 그들 자체의 자각이 삭티 1923년 5월에는 경상도 진주에 그들의 결사(結社)인 행광사(衡軒社)를 조직하고 자기들의 사회적인 신분 향상을 요구하는 한편 직업의 자유를 외친 일이 있다.



〈그림 6〉 중방리에서 바라본 상방리와 하방리

아침부터 술도가에 버린 술찌꺼미를 먹은 아들은 교실 창가에 앉았으나 대낮부터 술에 취한 듯 따스한 봄날 햇빛 속에서 피어오른 아지랑이 속에 취한 듯 시름시름 잠에 빠져 들어갔다. 이를 본 선생님은 아이가 아침부터 술을 먹었다고 언성을 높혀 노발대발 했지만 정작 그 아이를 취하게 만든 것은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왔던 배고픔이었다.

상방리만 해도 대부분 초가와 기와 그리고 이 무렵 시작된 새마을 사업으로 자봉을 개조하기 시작한 슬레이트 지붕 집들이 하나둘 들어차는 주택가가 산길이 소로로 정리된 골목길을 따라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에 두약산과 성재산을 잇는 옛 산길의 자연스러운 패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이들을 가로 지르며 놋재를 향한 길을 따라 줄을 잇고 있었던 초가지붕의 집들이 때마침 시작된 새마을 운동<sup>3)</sup>을 따라 슬레이트로 지붕을 하나둘 바꿔어가기 시작했다. 집 빼대와 평면구조는 옛 그대로인 이들은 텃밭과 함께 자리한 민초들의 주거였고 그 속에 조선시대 도시 주거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다. 여기서 빠져나와 단양천 우화교 입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곳은 단양천을 따라 이어진 길 다란 뚝방 길과 동서대로가 만나는 초입에 동아여관과 파출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단양천 건너 중방리 쪽에는 신작로를 마주보고 음악소리 낭자했던 다방엔 아곳 웃 남성들의 시선을 끌던 차 나르던 빨간 미니스커트의 레지의 혼들거리는 엉덩이와 굽 높은 하이힐, 여고생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던 청바지를 입은 장발의 DJ가 읍내 소문을 심심치 않게 장식했고 길 건너 철공소엔 구멍 뚫린 솔이나 달아빠진 농기구를 고쳐주고 바꿔주던 아저씨의 담배연기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아른 거렸다.

그러나 중방리는 좀 달랐다. 외중방리 유다리에서 봉산을 바라보고 36번 국도를 따라 한참 내려가다 보면 서당터 둑미쳐서 남한강은 강폭을 훨씬 벌리자 넓혀졌다. 그러다 앞이 환하게 터진 용수구미 근처에 이르러 펼쳐진 모래톱을 따라 흘러내린 단양천과 만나 합수머리를 이루었고 깊은 하방리를 바라보며 봉산을 오른쪽으로 굽하게 휘돌아 감아껴졌다. 용수구미가 있는 모래톱에는 하진리에서 중방리로 건너오는 나룻터가 송정벌과 함께 있어 소나무가 즐비했다. 중도리와는 다른 운치가 있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곳에 일제강점기 무덤을 쓰도록 한 이래 무덤이 즐비해지자 정자섬 같았던 이곳의 장소성은 공동묘지로 바뀌게 되었다. 사실 제비봉을 지나 외중방리로 흘러들어온 36번 국도가 매봉재를 너머 설 즈음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것도 큰 무덤실과 무덤실이었다. 이 근처에 오면 단양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혼령을 위하여 굿을 하는 소리와 화장을 할 때마다 피어오르는 연기, 꼭소리를 지당 골을 지나칠 때마다 들큰 햇살에 평소 사람들

의 왕래가 뜨막했던 곳에 용수구미 마지 공동묘지로 변하자 충주로 길을 나선 사람들은 이 길보다 중방리 쪽 고개를 너머 제비봉으로 길을 잡았고 세월이 흐르면서 근처에 제철소와 카바이트 공장이 지어졌다. 이렇게 봉산을 휘감고 중방리로 들어온 36번 국도를 따라 단양천을 거슬러 불과 이백여보 가운데 거리를 올라가면 하방리로 건너가는 나들목이 반갑게 길손을 맞이하곤 했다. 이 나들목을 건너면 원편으로 단양 중학교와 쇠전머리 쪽으로 길을 잡게 된다. 바로 가면 성재산을 오르는 당고개를 마주보게 되는 길목이었다. 예전 내를 건너지 않고 좀더 거슬러 올라가 우화교를 지나게 되면 바로 탁오대 둑미쳐 단양천을 끼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곳의 한지공장을 잇는 나들목이 나타난다. 이 나들목은 읍사무소를 지나 놋재로 향하는 길목이었다. 그러나 탁오대를 지나 한 이백여보 떨어진 곳에 있는 복도소를 설치한 보를 통해 단양천을 건너면 상방리를 지나 두약산 산록에 즐비했던 밭두렁 길을 통해 한 가닥은 놋재로 이어졌고 또 한가닥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또 좀 더 거슬러 올라 돈돌미 근처 마당바위로 가는 나들목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길도 한가닥은 놋재로 가는 밭두렁길과 합류한 점은 마찬가지였으나 한가지 다른 점은 성재산을 향한 산길과 합류하는 길이라는 점이었다. 때문에 이 길은 등고선을 따라 상방리 중심부를 지나 성재산을 오르는 당시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상방리, 하방리와 연결된 중방리는 단양읍내에서 논농사 흔적이 남아 있는 유일한 곳으로 단양천을 따라 전형적인 계단식 논을 가꾼 농촌 풍경이 전개되어졌다. 36번 국도와 우화교 접속부에 길을 따라 가촌을 형성한 중방리 주택가, 초가지붕과 기와지붕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는 슬레이트지붕... 유일한 공장이라곤 봉산너머 가는 산길 근처에 있었던 두부집과 방앗간이 고작이었을 뿐이다. 사실 이곳의 도시 시설 분포를 조사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주변에 널브러져 있던 계단식 논에 비하여 가옥의 밀집도가 상상외로 높았다는 점이었다. 늘어나는 인구와 높은 가옥밀집도 그 바탕에 깔려있는 산촌과 농촌의 잔재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점, 이것이 중방리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상방리 일대에 주거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이러한 시대적 층위를 충분히 찾아낼 만 해보였다. 그리고 공공시설이 하방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접근성이 확보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단양은 상방리 일대를 주거지로 하방리 일대를 업무 및 상업시설 지역으로 중방리 일대를 생산녹지지역으로 발전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듯 선명한 지역구분을 토대로 도시가 발전해온 것이 바로 단양읍이란 도시의 장점이면서 문제점인지도 모른다. 산길과 한강이라는 유통경로를 배경으로 성장한 단양은 나름대로 정보와 물류의 접근성이 높은 도시적 특성을 지닌 곳이었다. 그렇다면 운송수단의 변화에 따라 이곳의 성장패턴의 차이가 역사의 공간 층위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시간의 벽, 이것은 삼차원 공간을 사차원의 세계로 전환시켜가는 요소가 아닐까.

음력 대보름이 지나면서 1970년대 단양의 모습은 겨울이 한 껌풀씩 엷어 져 가는 것처럼 서서히 본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치 무슨

3) 새마을운동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했다.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가지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새마을’을 만들라는 새마을운동의 기본이념은 국민 개개의 생활향상과 자유로운 성장을 물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증후를 이룩하려는 민족의 시대적 이념인 조국근대화 이념과 일치했다. 이후 첫째, 국민 각자가 독립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내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공동개발, 공동발전을 위해 협동하여 노력할 것을 고취했다. 둘째, 지역사회 주민이 주체가 되는 ‘민간주도’의 지역사회개발운동을 자酣했다. 셋째, 지역사회개발운동에서 나아가 국민정신을 일깨우는 의식개혁운동이자 생활운동이었다. 1970년 처음 발의된 이후 정부의 정책변화와 사회변화에 따라 다르게 재규정되었다.



그림 7) 제천 용두산의 너도바람 꽃

법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계절의 변화는 하늘에서 먼저 왔으나 땅이 먼저 알았고 살아 있는 것들 중에서 지상에 목숨 줄을 대고 있는 나무와 풀이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것처럼 음력설을 고 바로 도시구조가 완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절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은 역시 계곡물소리였다. 나는 단양천 넷가에 있었다. 안개가 자욱한 산중의 새벽 정적 속을 물이 흘러내렸다. 물 흐르는 소리는 제법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를 깨워낼 만큼 밟디밟은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다. 물이 편복도 수면위로는 안개가 진하게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는 연기같이 고리를 내리 혼들거리고 있었다. 우수(雨水)가 이곳을 스쳐 지나가자 되살아난 양 기운으로 얼었던 땅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탓이기도 했다. 이제 머지않아 모든 땅속의 생물이 땅에서 밖으로 나올 것이고 나뭇가지에 썩을 트고 씀바귀, 달래, 냉이같은 봄나물을 시장에 나올 무렵 개나리도 머지않아 꽃을 필 것이다. 봄을 만지고 싶은 충동에서 나는 손을 물에 담갔다. 하지만 아직 이른지 냉기가 일순간에 전신 구석구석으로 퍼져갔다. 삼월 초순 음력 대 보름이 지난 지 일주일이 채 못 되는 3번째 절기인 경칩(驚蟄)인데도 산중의 새벽기운이나 물은 아직도 추운 겨울을 실감시켰다. 천천히 손을 씻고 난 다음 나는 입에 물을 머금었다. 물의 냉기 속에 풍겨오는 상큼함과 함께 봄기운이 찾아오고 있음이 느껴졌다. 손을 모아 물을 얼굴에 서너 번 끼얹은 다음 얼굴을 씻었다. 수면에 입을 대고 물을 마셨다. 숨이 가쁘도록 여러 모금 마셨다. 봄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리는 향긋함이 줄을 긋듯 여실하게 느껴졌다.

보름을 기점으로 농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이제 경칩을 맞이한 농부는 기운차게 솟아오른 보리 썩을 보고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예측했고 집안을 손질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징표로 써 은행씨앗을 선물로 주고받았고 경칩이 되면 은밀히 은행을 나누어 먹었다. 나무에 암수 구별이 있어 서로 따로 마주 바라보고 있어야 사랑의 결실을 맺는 은행나무, 누구나 다 이러한 내력을 지닌 은행의 그 순결한 사랑을 귀하게 여겼던 것은 비록 맛이 쓰고 껌질이 단단하여도 땅에 심어 그 썩을 퇴우면 천년을 살아가기 때문이었다. 영원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은 사랑을 통해 영원의 길을 찾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봄이 한발 늦게 오는 단양이었지만 이곳의 삼월 초 들판은 연한 녹색으로 봄 빛깔이 점점 완연해져 갔다. 중방리 논두렁에도, 상방리 밭두렁에도 녹색기가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옅은 녹색기가 바닥에 깔렸던 보리밭은 점점 싱싱한 초록빛으로 서서히 봄을 내뿜기 시작하면서 그 두께가 두꺼워져 갔다. 하루 별이 다르게 밤을 지새우고 나면 녹색은 푸른색으로 더 진한 초록색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나 보리같이 하지 못한 논에서는 벌건 속살을 들어냈고 이런 봄분들이 날

이 갈수록 중방리에 늘어만 갔다. 비좁은 터를 길어 만든 논농사였으나 그 객토 할 흙더미가 한해 농사일이 맘마치 않게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거름에 절고 뼈에 기름기마저 빨려 잿빛으로 변한 논바닥에 봄분을 이룬 객토 흙더미는 그 빛깔이 진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그럴수록 이 땅이 좁다는 느낌이 나를 사로잡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축가란 직업적 본능 때문인지도 몰랐다. 나는 하염없는 눈길을 한강줄기へ 던지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 부질없는 생각들로 가득했다. 사라져 가는 역사 경관, 변해만 가는 시대적인 삶 그리고 잊혀진 삶의 배경이 되어 주었던 장소와 장소성,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의 무렵 속에 파묻혀지고 내 맹개쳐진 역사적 사실들 그 잡다한 생각들을 일시에 덮어버리는 일말의 생각이 있었다.

단양을 무너트린 것은 충주댐건설로 인한 수몰이 주요인이었다. 그러나 이 도시를 그동안 줄기차게 성장시켜온 동력은 정보와 물류의 접근성이라는 점 역시 이미 분명해진 사실이었다. 특히 5번 국도와 연결된 쇠전과 단양장이 5월장으로 활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 줄만큼 충분한 논리적 근거와 증거를 지닌 까닭에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단양장이 상설시인 점을 감안해본다면 이곳을 중심으로 단양읍이란 도시가 유기적인 도시로 성장해 왔을 것이라는 설명을 공감하기에는 적지 않은 의문이 떠왔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상설시장은 지역도시의 내수 기반이 없다면 아무리 접근성이 좋더라도 도시성장 동력이 되기에는 적지 않은 저항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상설시인 단양장 인근에 또 다른 잠재 구매력을 지닌 도시가 있어야 했다. 시장이 살아 움직이려면 도시는 사람들로 넘쳐나야 하지 않는가. 또 도시에 사람들이 넘쳐나려면 그만한 먹거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했다. 이러한 조건을 지닌 그곳은 과연 어디인가. 단양은 어디를 보아도 산이 커다란 모습으로 억센 자태로 있었다. 눈길을 가끼이 머물게 해도 산이 있었고 멀리 보내도 산이 있었으며 눈을 감아도 사방이 산인 곳이 단양이었다. 눈길이 가까우면 산은 앞을 완강하게 막아서는 장벽으로 다가섰고 눈길이 멀어지면 산은 무거운 물결을 일구며 뻗어간 자연의 성벽으로 줄을 이어 갔다. 그런 까닭에 눈을 감아도 가슴 가득히 들어와 차는 이곳 산은 달라진 현실을 일깨우는 거부할 수 없는 생존의 조건이기도 했다. 이러한 산을 1960년대, 단양사람들은 비로서 산이 거기 있는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삶을 의탁해야 하는 여기 있는 확실한 존재임을 발견했던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양 팔경에 취해 있던 이곳 사람들은 산은 있으되 일상과의 간격이 멀어 경관 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마음의 것으로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 이르러 산은 그들 자신이 그 품에 안겨야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동반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단양군에 명확히 드러난 것은 제2차 경제개발<sup>4)</sup>(1967~1971)이 거의 끝나갈 즈음이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

4) 제2차 세계대전 후 시장경제를 표방한 개발도상국들도 그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개발계획을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되었다. 우리나라도 일찍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1962년에 비로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그 후 6차례의 5개년계획을 끝내고 1992년 제7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었다(1996 원료). 우리나라의 개발계획은 경제기획원(현 재정경제원)에서 주관해왔으나 계획 작성 과정에 관계부처 공무원의 참여방위가 이후 계속 확대되어 계획 작성에 상당한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제3차 5개년계획(1972~1976) 때부터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복잡성의 증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획의 성격을 정책계획으로, 1978년부터는 경제운용계획이라는 명칭의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바꾸어 실시했다. 제5차 5개년계획(1982~1986) 때부터는 정책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도계획(誘導計劃)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이러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통해서 경제여건 변화에 따르는 원래 계획의 수정·보완 등이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정치·경제 여건이 크게 변동한 경우에는 원래 계획 자체를 포기하고 수정계획을 채택한 경우도 있었다. 제1, 5, 6차 계획 때의 수정계획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역개발의 균형을 이루어야겠다는 목표는 제3차 계획 때부터 사회개발을 축진하고 소득분배의 개선을 날성하겠다는 목표는 제4차 계획 때부터 차례되었으나 실적 면에서 별 성과가 없었다. 과거에도 우리 경제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어왔지만, 경제안정기반의 정착이라는 목표는 제5차 계획 때 비로소 기본목표로 제시되었다. 제6차 5개년계획(1987~1991) 때 '농률과 평평을 토대로 한 경제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제시함으로서 혁명의 뮤제를 새로이 브각시켰다. 특히 수정계획에서는 처음으로 '소외계층과 낙후부문에 대한 중점지원'을 중요과제로 제시하였다.

년도	총인구	단양읍	단성면	매포
2005	30,528	10,808	1,859	7,065
2000	36,094	-	2,247	8,392
1995	40,038	12,792	2,640	9,997
1990	49,634	17,019	-	13,161
1985	62,961	14,623	-	16,707
1980	72,905	15,658	-	20,214
1975	89,806	18,652	-	21,727
1970	91,644	18,815	-	19,744
1949	62,508	9,785	-	7,863
1935	49,068	5,742	-	5,883
1930	52,393	5,771	-	5,613
1925	48,348	5,312	-	5,369

(표 1) 통계청 자료

년 계획을 시작한 이래 정부는 4차 5개년계획(1977~1981) 까지 가장 집요하게 자립경제구조(또는 자력성장구조) 실현을 추구해 오고 있었다. 이 가운데 1·2차 계획은 경제 전반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려는 자원계획이라는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특히 제1차 계획 때 대외 지향적 공업화 전략이 시도된 이래 제2차 계획 때부터 지하자원개발과 공업화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자 석회석이 많이 나는 이곳은 당연히 국가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석회석 가공 산업의 유품인 시멘트 공장들이 삼척, 동해등에 세워진 것도 모두 이 무렵이었다. 특히 시멘트 공장이 세워지면 인근에 연관 산업인 석회산업 즉 벽돌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생석회, 소석회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석회를 분말로 만들어 유리공장이나 제지, 플라스틱 등에 총재로 사용되는 석회분말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발달하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화학공장으로도 침강탄산칼슘등의 칼슘 제품 생산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는 것이 상례였다. 때문에 석회석 산지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석회석 광산지역을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제법 큰 연관 산업이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것은 곧 공업도시가 형성됨을 뜻했다.

단양읍내는 접근성 때문에 인구 이만명 규모의 도시가 되었다 손 치더라도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단양군내에 이러한 공업도시가 들어설 만한 조건을 충족시킬만한 곳은 없어 보였다. 설사 있다면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 이런 생각에 잠긴 나는 이 무렵 북하리 일대 단양역을 중심으로 역촌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 일대가 한 때는 잘나가던 석회석 산지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죽령천 하구 현천리 동광석회와 현북교 건너 폐공장지 그리고 후곡리 한일채석장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모두 영세한 기업들이었다. 비록 석회석 광산 때문에 이 일대에 탄광촌이 밀집해 들어섰고 철도관사와 역촌이 늘어서게 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1970년대 단양읍 인구 18,815명이란 숫자 속에 포함된 인구였다. 그래서 북하리

의 시멘트 산업단지는 인구 유입과 구매력 증가에 그 이상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작 단양과 매포가 묘한 연계의 고리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경찰이 지나 춘분이 다가올 무렵이었다. 당시 단양군 인구 분포를 조사하면 나는 1970년 인구분포에서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때 단양군 인구는 91,644명이었는데 단양읍 보다 매포의 인구가 약 천 명이나 많았던 것이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1925년 통계를 보아도, 거꾸로 단양읍이 신 단양으로 이전할 때 무렵인 1985년까지 내려와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근소한 차이로 매포의 인구가 단양읍 보다 항상 많았다. 이들의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했던 것은 단양이 수몰되고 신 단양으로 모든 시설이 이전된 다음인 1990년대 이후부터였다. 이시기 단양 인구는 전례없이 1925년대 수준으로 급감하기 시작했고 신단양과 매포의 인구차이도 역전되기 시작했다. 아무튼 이 두 도시 인구를 합치면 단양군인구의 절반가량이 되었으므로 이들은 단양군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빼놓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두 도시는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을까.

석 달 전 북 단양IC를 빠져나와 5번 국도를 타기위하여 매포 읍으로 향했을 때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었다. 당시 나는 시간을 절약하자는 알맞한 계산 때문에 교통수단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패러다임이 모두 바뀌어져 버린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매포 읍에서 한 이십여 분 남짓 도담 상봉 삼거리가지 달려가는 동안 차창을 스치고 지나가는 거대한 공장 건물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매포의 석회암 산업지대를 통과했으나 애써 이들의 존재를 외면하고 있었다. 우회전 하여 십여 분만 달려가면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상진대교를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에 쫓겨 길을 죽이는데 바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절기가 바뀐 지금 이제 나는 단양 읍의 진실을 대면하게 되자 내가 애써 피하고자 했던 매포라는 도시의 역사와 정면으로 대면하게 된 것이다.

예부터 단양지역은 조선 누종군<sup>5)</sup>에 속한 지역이었으므로 이곳을 구성하는 암석들은 대부분 석회암이었다. 때문에 단양은 예부터 카르스트지형이 발달해 온 곳이었다. 이곳 지형도를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다루어지는 놀라네나 우발레라는 석회암 용식지형들이 지표에 대접 모양의 와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상례였다. 그것들은 마치 작대기로 별레를 건드리면 몸을 웅크리는 형상으로 지도에 그려져 있어 누구라도 금방 알아 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혼한 카르스트지형이 이곳에 형성된 원인은 석회암지대의 갈라진 틈으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빗물이 스며들면서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녹아내리면 지형이 깔때기 모양 또는 작은 양념절구 모양으로 오복하게 패인 웅덩 이를 만든 뒷이었다. 그 크기는 지름 1m 내외에서 100m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했으므로 형태에 따라 사용용어가 분분했는데 최근 국제

5) 석회석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세립(細粒)·과상의 부구조의 암석으로 백색 또는 회색인데, 불순한 것은 암회색이나 흑색 등을 띤다. 초상(礁狀)이라 하는 산호초 같은 과상 또는 동상의 암체를 이루는 경우와 지층 사이에 끼워져 층상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육지로부터 공급되는 해설물(碎屑物)이 적고, 비교적 pH가 높은 곳에서 탄산석회질의 경계기를 분비하는 생물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침전 고정되거나, 비단풀에서 직접적으로 무기적 화학작용에 의하여 침전하여 생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작용의 과정이나 대량 침전이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밖에 석회질 세설물 및 화석의 파편으로 된 것도 있으며, 입도(粒度)로 보아 석회질 루다이트(지름 2mm 이상), 석회질 아래나이트(1~2/16mm), 석회질 루타이트(1/16mm 이하)로 분류된다. 자질시대 전반을 통하여 보면, 석회암은 오로도비스기에서 실루리아기까지, 석탄기에서 페름기 전기까지, 쥐라기에서 백악기에 걸쳐 잘 발달되어 있다. 화석은 유공충·석회조(石灰藻)·비단나리·산호·쌍폐류(雙貝類) 등 탄산칼슘의 경계기를 가진 것이 많아서 지질시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퇴적 당시의 고환경이나 생물계의 모습을 암시하므로 지사학적·고생물학적으로 중요하다. 석회암의 이용면은 넓으며, 시멘트·제철·카바이드·비료·석재 등에 대량으로 사용된다.

6) 관련있는 여러 층군들을 묶는 공식적인 암석 층서 단위를 말한다.

적으로 내린 학술정의에 따르면 와지 저면(底面)에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의 토양 테라로사(*Terra rossa*)가 발달한 것을 돌리네라고 하기로 정하면서 용어가 통일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돌리네가 더욱 용식(溶蝕)되면서 인접된 돌리네와 연결되어 좁고 긴 와지를 이루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발레(*uvalle*)였다. 일반적으로 카르스트 지형은 돌리네가 성장하여 인접한 것과 결합하여 우발레가 되거나 돌리네가 무리를 지어 발달하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지형이 발달한 곳은 아드리아해(海) 동쪽 해안의 카르스트 지방, 일본 야마구치현(山口縣) 아키요시다이(秋吉臺)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충북 단양 일대에서도 매포를 중심으로 다수의 돌리네와 우발레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발견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기록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은 1963년 제작된 단양, 청천, 평창, 영월, 삼척 등지의 1/5,000 지형도에서였다. 이 지도를 보면 위치와 규모 분포들이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 무렵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지형의 존재는 이미 1918년 대정7년 조선총독부 육지 측지부에서 조사한 지형도에 나타나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이미 45년 전 알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보면 매포 지구는 일찍부터 입소문으로 주변에 석회석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점토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석탄산지와 인접해 있는 지하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왔던 셈이다. 그런 탓인지 매포는 이미 일제 강점기 탄광과 시멘트 산업의 메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자연환경을 개발하여 시멘트 산업기지로 조성해 간 것은 1950년대 무렵으로 그즈음 단양인구는 불과 십년 만에 13,000여명이나 증가했고 단양의 인구가 매포보다 증가율이 약간 높았다. 인구증가 양성이 자연증가에서 사회적 증가 형태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매포가 시멘트 산업기지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1, 2차 계획의 추진으로 한국 산업발전의 근간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불과 이십여년 만에 단양의 인구증가가 30,000여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산업화에 의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증가 때문이었는데 매포 인구증가가 단양들을 앞서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968년 2월 1일 경부고속도로의 역사적인 가공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967년 12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추진위원회가 조직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았고 전체 설계도도 나오지 않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추진위원회를 맡으려고 했을 정도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는 시점에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다. 당시 한국의 1년 국민총생산(GNP)이 68억 달러인 상황에서 공사비가 500억원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극렬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에 있었던 버스의 수가 1만3,000여 대였는데, 이 종 시속 80km 내지 100km로 달릴 수 있는 버스는 50여 대에 불과했던 점만 보아도 이들의 반대는 타당성이 부를 뿐나 무리는 아니었다. 따라서 정부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공사비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원래 24m로 계획되었던 도로 폭이 22.4m로 축소되었으며, 중앙 선을 비롯한 안전시설의 미비, 그리고 기층과 표층을 합쳐 아스팔트가

섞인 층의 두께가 일반 고속도로의 20cm의 반에도 미치지 않는 7.5cm로 건설되었다. 이렇게 추진된 경부고속도로는 1971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완공 일정을 1년이나 앞당겨 70년으로 정해졌고, 이는 다시 69년 말로 당겨질 정도로 질풍노도와 같이 진행되었다. 결국 이 공사는 1970년 7월 7일에 완공되었지만, 공사를 앞당기는 과정에서 77명이 학생될 정도로 대단한 역사(役事)였다. 추풍령 휴게소의 기념비에도 적혀 있듯이 경부고속도로는 전체 428km의 총연장을 감안할 때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건설된 고속도로인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 도로 중앙분리대가 없는 중앙선 문제는 이후 경부 고속 도로상에서의 중앙선 침범 정면 충돌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고 공사기간 단축은 개통 이후 몇 씩 우기 작업이 불가피 해지자 경부고속도로의 부실시공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국회의원은 '경부고속도로가 누워 있으니 망정이지 서 있었다면 벌써 와우 아파트처럼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발언할 정도였다. 이러한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가 한국 경제성장 과정에서 했던 역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전개된 경부고속도로는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의 결정체였다. 이러한 경부고속도로 공사와 매포 시멘트 사업이 구체적으로 인연을 갖게 된 것은 가장 힘든 구간은 충북 옥천의 당재터널, 500여m를 뚫는 터널 공사때였다. 당시 이 구간 공사는 낙반사고가 13차례나 있었고 7명이 숨진 정도로 난공사였다. 원인은 지층이 암반이 아니라 절암 토사였기 때문이다.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조강시멘트(High Strength Cement)개발이었는데 이 시멘트는 일반시멘트보다 20배 빨리 굳고 강도가 2~3배 강한 제품이었다. 선진국에서 개발한 이 신기술을 정주영 당시 현대건설 사장은 단양 시멘트 공장 라인을 일주일 만에 개조해 필요한 조강시멘트를 만들었다. 공영호 전 현대건설 토목담당 부사장(당시 포장과장)의 증언에 의하면 '정사장이 '주판을 엎어라(손해를 감수하라는 의미)'고 지시해 공기를 맞쳤다'고 밝혔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지난 매포는 조국근대화 건설의 허리 역할을하게 되자 대규모의 시멘트공장, 현대시멘트(1964년 7월 단양공장을 준공 하였으며 당시 연간 생산량은 20만 톤이었으나, 현재는 단양공장 300만 톤의 생산규모를 갖추고 있다. 1964년 준공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 한일시멘트(1964년 6월 단양공장을 준공 하였으며 당시 연간 생산량은 40만 톤이었으나, 수 차례 증설을 통하여 현재는 710만 톤의 생산규모를 갖추고 있다. 1964년 준공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 성신양회(1969년 12월 단양공장을 준공 하였으며 당시 연간 생산량은 100만 톤이었으나, 1998년 12월 6호 기관 준공으로 현재는 1,100만 톤의 생산규모를 갖추고 있다. 철도(중앙선)는 상진리~고양리 구간이 18km이며 역사로 도담역과 삼곡역이 있다. 단양군 매포읍 매포리) 등이 들어선 것은 1960년대 중반의 일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지역 시멘트 생산은 풍부한 석회석 매장과 철도교통으로 인하여 1984년 전국 생산량의 26%에서 1989년 28.1%, 2006년에는 30%정도로 늘어날 정도로 대단한 수준으로 급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멘트 산업이 활성화되자 매포는 공업도시에서 흔히 볼 수

7) 성신양회는 국내 2위권의 시멘트 생산업체로 국가 경제 및 지역사회에 발전에 이바지 해온 우리 단양군의 대표적인 기업체이다. 성신양회는 다른 2개 업체와는 달리 지역적으로 단양시내와 가까워 1972년과 1990년, 두 번의 수해를 단양주민들과 함께 겪고 이겨낸 경험이 있어, 태풍이나 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판, 민의 힘으로 복구가 힘들 때마다 성신양회가 앞장 서 피해 복구에 나서는 등 지역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있다.

있는 거대공장으로 시멘트 공장을 중심으로 많은 연관업체들, 시멘트의 원자료 공급과 관련된 중소공장의 집단, 공장관련 종업원들의 주택군(住宅群), 복리후생 시설 이들 생활을 뒷받침해줄 유통시설로 일반도매·소매·음식·숙박업·금융·보험·부동산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등이 차츰 매표읍내에 자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단양은 일찍부터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마늘과 같은 밭농사 특산물, 시멘트산업, 카르스트지형과 관련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단양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라 할 수 있는 도담 삼봉이나 석문, 그리고 고수동굴, 노동동굴, 천동동굴과 같은 석회동굴 등은 모두 카르스트 지형이 가져다 준 신비로운 자연의 선물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매포 일대는 중부내륙지방에서 일찍부터 공업도시화 된 근대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인구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워낙 급작스럽게 도시가 성장하게 되자 인구 규모에 비해서 지역 중심지에 시장이나 교육여건 의료시설 위력시설 사무관리 기능 등 제3차 산업 부문의 기능이 뒤떨어졌다. 또 시멘트 사업으로 도시환경이 오염되어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컸던 이곳은 환경오염대책·녹화·도시재개발 등의 방법으로 건전한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곳이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단양은 매포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 도시 이었다.

한마디로 이들의 상호관계를 말하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으나 그런 흔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1960년대 단양의 중등 교육시설 개편작업에서 였다. 한국인의 삶에서 자식교육의 중요성을 제쳐놓을 수 없는 것처럼 지역발전을 생각함에 있어서도 교육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몫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상세하게 조사해야 할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도 했지만 일의 경과를 대략 정리요약하면 대략 이러했다. 단양군에서 중등교육이 실시된 것은 1945년 단양읍내를 중심으로 비롯되었다. 그러던 것이 1951년 학제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6년 대학 4년에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으로 바뀌자 그동안 6년제였던 단양중학교는 3년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 무렵만 해도 단양에는 군내 중학교가 단양읍에 하나뿐이어서 거리가 멀어 군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기란 무척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1954년 어성천면에 단산중학교가 신설되고 1955년 영춘면에 단양중학교 영춘분교가 설립되었다가 1963년 영춘 중학교로 분리 독립하면서 군내 중학교가 늘어나 시작했다. 1968년에는 단양 읍에 단양여자중학교가 설립되기에 이르렀으나 정작 인구가 단양읍을 능가하는 공업도시 매포에 초등학교 이외의 중등 교육시설로 중학교가 신설된 것은 1970년의 일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단양에 고등학교가 설립된 것은 1952년 무렵 공업학교이었는데 처음에는 광산과만 있었다. 그러다가

1959년 가정과가 신설되면서 이 공업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단양에 시멘트 산업이 한창 기세를 올릴 무렵인 1966년 이 학교는 다시 단양실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면서 화공과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단양읍은 단양군 교육의 중심에서 있었던 것이다. 교육시설이 빈약하고 낙후되었던 산속의 공업도시 매포는 자녀교육면에서 이곳과 끊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갖을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북쪽으로 강원도 권역에 치우쳐 있는 매포장 역시 자신을 상권의 중심권역으로 형성하기에는 접근성이 부족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본다면 매포는 단양읍의 생활권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위성 공업도시였던 셈이었고 단양장은 이두 도시를 포함한 오만여명의 소비생활권을 대상으로 자리한 시장인 셈이다.

조용했던 도시 매포가 1960년대 공업도시로 탈바꿈하면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무렵 장소성이라는 문화인자가 허물어져 내리기 시작한 사실에 있었다. 장소의 중요함, 이것은 내 자신이 세계 속에 존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속성이자 나와 나를 포함하는 주변의 인정과 정체성의 원천이라는데 있었으므로 의미있는 장소를 경험한다는 것은 중요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포의 모습은 근대화 물결 속에 이런 내용들이 사라지고 장소의 다양한 경험들이 약화되는 현상 바로 무장소성이 벌어지는 진앙지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뿌리내린 삶과 뿌리 뽑혀가는 삶이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광산과 공장, 이런 인위적인 것들이 읍내에 가득 들어차면서 자연의 영속적인 리듬이 깨져버린 것이다. 댓가로 스스로 강한 경관성을 지녔던 매포라는 도시는 허물어져 갔고 대신 인위적인 공업관광도시 매포읍이 탄생했다. 도시를 기계적 원리에 입각하여 바라보는 기능주의적 입장과 대립적인 모습을 지녔던 유기적 도시단양을 동시에 바라보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은 단양을 영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유기적인 도시 단양으로 기억하게 만든 지속적인 척도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다. 날으는 모든 것은 활주로 내려야만 하는 것이 급유를 해야 하기 때문인 것처럼… 미래로 가려는 모든 사람들 역시 과거라는 추억의 장소에 내려서야 하는 것은 그래야만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처럼… 이제 단양의 도시구조를 한 께풀 벗겨 놨으므로 1960년대를 거슬러 단양현감으로 부임한 퇴계이황이 매포를 찾아 빈민을 구휼했던 1548년 2월의 단양과 매포를 찾아 가는 일은 한결 쉽고 가벼워졌다. 이제 남은 것은 유기적(有氣的) 도시 단양을 찾아 과거를 거슬러 가는 작업, 바로 시간의 벽을 허무는 일에 매진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겪는 시대와 차량이 동시대라는 두 가지 얼굴 속에 숨어 있는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을 대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일이기도 했다. ■

##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사무소수, 회: 회원수)

2010년 6월말

전체	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주체별 사무소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합계	5,273	5,273	106	212	9	27	5,388	5,512	1,836	1,636	245	490	64	132	25	100	25	171	1,995	2,589	7	7,383	8,101
서울	899	899	25	50	3	9	927	958	879	879	140	280	41	123	13	52	15	93	1,088	1,427	6	2015	2,386
부산	465	465	17	34	2	6	484	505	97	97	18	36	3	9	0	0	3	25	121	167		605	572
대구	416	416	21	42	3	9	440	467	61	51	29	40	4	12	2	8	2	10	89	131		529	598
인천	266	266	3	6	0	0	269	272	60	60	8	16	0	0	1	4	0	0	69	80		338	352
광주	201	201	1	2	0	0	202	203	39	39	7	14	3	9	2	8	0	0	51	70		253	273
대전	240	240	6	12	3	3	247	255	35	35	9	19	3	9	1	4	1	7	49	83		298	338
울산	177	177	6	12	0	0	183	189	18	18	1	2	1	3	0	0	0	0	20	23		203	212
경기	713	713	3	6	0	0	716	719	233	233	17	34	3	9	2	8	1	5	256	289		972	1,038
강원	177	177	2	4	0	0	173	175	26	26	2	4	0	0	1	4	0	0	29	34		202	203
충북	208	208	4	8	0	0	212	216	31	31	5	10	1	3	1	4	2	5	40	63		252	279
충남	233	233	1	2	0	0	234	235	44	44	6	12	1	3	2	8	6	3	53	67		287	302
전북	236	236	4	8	0	0	240	244	22	22	3	6	2	6	0	0	0	0	27	34		267	278
전남	187	187	1	2	0	0	188	188	17	17	2	4	0	0	0	0	1	6	20	27		208	216
경북	351	351	5	10	0	0	356	366	37	37	4	8	1	3	0	0	0	0	42	48	1	398	409
경남	399	399	7	12	0	0	406	413	27	27	3	6	0	0	0	0	0	0	30	33		436	446
제주	111	111	0	0	0	0	111	111	10	10	0	0	1	3	0	0	0	0	11	13		122	124

##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전체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합계	8,117	10	8,127	100.0%	23	
서울	2,396	3	2,400	33.9%	10	
부산	673	1	674	7.9%	9	
대구	596	0	596	7.7%	0	
인천	353	0	353	3.8%	0	
광주	272	0	272	3.7%	0	
대전	339	1	340	3.7%	0	
울산	212	0	212	2.6%	0	
경기	1,021	2	1,023	12.2%	2	
강원	209	0	209	2.6%	0	
충북	278	0	278	3.0%	0	
충남	298	3	301	3.1%	0	
전북	279	0	279	3.0%	0	
전남	216	0	216	1.9%	0	
경북	409	0	409	4.6%	1	
경남	447	0	447	5.0%	1	
제주	125	0	125	1.3%	0	

##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회원수	5,512	2,589	86	8,101		
비율	68.04%	31.96%	1.06%	100%		
사무소수	5,388	1,995	-	7,383		
비율	72.98%	27.02%	-	100%		

※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 현황 통계는 「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tat.mlitm.go.kr>)」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 제7회 이사회

2010년도 제7회 이사회가 지난 7월 14일 오후 4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2010 하반기 주요 법제현안 추진방향의 건, 「2010건축의 날」 개최의 건, 「제2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개최의 건, 공제사업 시행방안의 건, (가칭)법인건축사사무소협의회 구성·운영의 건, 컨테이너하우스 설계경기에 관한 건을 논의했으며, 부의안건으로 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 및 미납회비 결손처분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2010 하반기 주요 법제현안 추진 방향의 건
  - 2010 하반기 주요 법제현안 추진방향 검토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모두가 공감하였으며, 향후 검토안대로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2010건축의 날」 개최의 건
  - 「건축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적으로 건기대회 등의 연계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각 시도건축사회에 협조요청을 보내고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범국민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함.
- 제3호 : 「제2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개최의 건
  -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함.
- 제4호 : 공제사업 시행방안의 건
  - 3가지 안을 회관관리위원회에서 검토

하도록 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5호 : (가칭)법인건축사사무소협의회 구성·운영의 건
  - 원안대로 구성·운영하기로 함.
- 제6호 : 컨테이너하우스 설계경기에 관한 건
  - 컨테이너하우스 설계경기에 대하여 협회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함.

####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 및 미납회비 결손처분의 건
  - 회원 제명대상자(183명)에게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더 주기로 하고, 이미 제명된 경기도건축사회 회원(12명)의 미납회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하기로 함.

## 위원회 개최 현황

### ■ 제3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제3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산업으로서의 건축시장 발전방향에 관한 건
  -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추진키로 협의
    - ▷ 추진배경 : 국가차원에서 건축이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육성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축디자인산업의 사업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 ▷ 주제 : (가칭) 산업으로서의 건축시장 발전방향
    - ▷ 일시 : 10. 8월 말 또는 9월 초 14:00 ~ 18:00(예정)
    - ▷ 장소 :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400석 규모) or 양재동 AT센터(300석 규모)
    - ▷ 주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 후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건축사협회, 건축학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도시설계학회

## ■제4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제4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중 건축설계 포함에 관한 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제외되어 있으면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건축설계를 건설기술용역으로 규정하여 건축설계를 법적근거 없이 편법으로 계약하고 운영하는 법체계의 모순 해결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정리(협회의 방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호 : 기타사항

-‘산업으로서의 건축시장 발전방향’ 세미나 관련하여 장소는 협회강당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검토키로 함.

## ■제6회 사업위원회

제6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한국건축산업대전’ 홍보마케팅 의견
- 지자체(수도권)에 공문을 발송하여 전시회 홍보에 관한 협조를 요청토록 함.
- 건축사사무소, 건설사, 대형업체 참여는 개인 인맥을 통하여 접촉키로 함.
- 대형 건축사사무소는 공문발송과 조찬 간담회를 통하여 참여를 요청키로 함.
- 경기도건축사회 회장을 통하여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의 참여 및 홍보를 요청키로 함.

## ■제4회 친환경위원회

제4회 친환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친환경 저에너지 통합 설계 사례집” 세부계획에 관한 건  
-“친환경 저에너지 통합 설계 사례집”을 총회 전까지 발간하기로 함.
- 제2호 : 친환경건축 포럼(세미나) 개최에 관한 건  
-2010년 산업대전 기간 중 리모델링분야를 포함하여 실무위주의 “친환경건축 · 리모델링 포럼(안)”을 개최하기로 함.
- 제3호 : 기타의 건  
-한국그린빌딩협의회와 MOU체결에 관한 건  
-해외 친환경 건축물 탐방에 관한 건

## ■제8회 행정위원회

제8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개정(안) 검토에 관한 건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조문 정리한 정관개정(안) 중 제2장(회원) 제8조 ~ 제13조까지 복임과 같이 축조 · 심의함.

## ■제9회 행정위원회

제9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개정(안) 검토에 관한 건  
-제8조,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 축조심의함.
- 서울건축사회 회장이 참석하여 시도건축사회 회장단의 종합적인 의견과 행정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 ■제10회 행정위원회

제10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개정(안) 검토에 관한 건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축조심의함.

## ■제11회 행정위원회

제11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개정(안) 검토에 관한 건  
-제4장(임원)부터 제7장(사무기구)까지 축조심의함.

## ■제12회 행정위원회

제12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개정(안) 검토에 관한 건  
-제1장(총칙), 제7장(사무기구)부터 부칙 까지 축조심의함.

## ■제5회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운영위원회

제5회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운영규정 및 학사관리세칙 개정(안) 승인에 관한 건  
-운영규정 및 학사관리세칙 개정(안)대로 승인하기로 함.
- 제2호 : 2010년도 참여기관 민간지원금 모금에 관한 건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원장 명의로 참여기관에 민간지원금을 요청하기로 함.

## ■제5회 공제사업위원회

제5회 공제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1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공제규정 개정(안) 협의

-공제규정 본문 중 '규정으로 정한다'라는 용어는 규정 내에 하부 규정이 아닌 또 다른 규정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별도로 정한다'로 일괄 수정할 것을 협의함.

-제38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1항의 '임원'은 전무이사, 상무이사로 한정짓기에 무리가 있으나,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및 이사, 감사로 한다'로 수정하고, 이 외에 전무이사, 상무이사라고 기재된 부분은 '이사'로 일괄 수정할 것을 협의함.

-제48조(공제사업의 목적 및 내용) 제1항을 '공제사업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축문화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협의함.

-그 밖의 내용을 협의한 바 대로 수정하고, 그 외의 안은 원안대로 함을 협의함.

## ■제5회 회관관리위원회

제5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회관 유지·보수공사 추진에 관한 건

-난간 철부 및 주차장입구 구조물 안전표지 시설 도장공사

-대강당 음향시스템 시설 보완공사

- 제2호 : 회관 하자보수공사 추진에 관한 건

-회관 하자보수공사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협회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기로 함.

- 제3호 : 회관관리 용역도급계약서 이행실태 평가기준 및 관리운영의 건

-회관관리 용역업체에 증빙자료 요청과

현 계약서에 대한 조항별로 축조심의하였으나,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어 회관 하자보수관련 변호사가 선임되면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 계약시 활용기로 함.

- 제4호 : 회관 대강당 등 임대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건

-협회와 웨딩홀과의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무공간이 상이한데 이에 대한 답변자료와 현 계약서의 내용을 석정훈 위원이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차기회의에 제출키로 협의함.

- 제5호 : 회관관리 매뉴얼 작성의 건

-회관관리에 대한 매뉴얼 작성에 대하여는 모두 공감하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회관관리의 체크리스트 정도로 먼저 정리하기로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석정훈 위원과 담당이사가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기로 함.

- 제6호 : 보증 및 손해배상 업무와 관련된 사무공간 확보의 건

-공제사업 출범을 위하여 독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협회에서는 별도의 공간이 부족함. 따라서 입주시(6 층 도원)의 임대기간 만료(11.5.22)시까지 임시로 사용할 공간에 대하여 3가지 대안을 위원장이 검토한 후 이사회에 상정키로 협의함.

### ▲기타사항

-친환경건축아카데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세미나실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회수에 대하여 사용료 납부 측구

## ■제2회 법제위원회

제2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법시행령 일부개정 건의(안)에 관한 건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 변경

-제23조제8항제3호 관련 소속기관의 범위

## ■제5회 국제위원회

제5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제14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에 관한 건

-대표단 구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국제위원 중 참가 회망자를 조사하고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자비부담하기로 함.

-참관단 일정(파키스탄→인도→네파)은 ACA-14 일정을 고려하여, 개막식, 우정의 밤, 폐막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10. 28(목)과 29(금)에 라호르에 체재할 수 있도록 하고, 9박 10일 정도의 일정이 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호 : 제14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 개최의 건

-건축세션 '저에너지 프로젝트' 발표를 위한 한국 축 연사는 오세규 교수(전남대학교, 친환경건축재료)로 결정함.

-11. 5(금) 오전에 있을 건축물 탐방 프로그램 기획은 광주시건축사회에 위임하기로 함.

- 제3호 : 전국건축사대회 해외단체장 초청 의견

-10.22(금)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건축사대회에 본협회와 교류 추진 중인 미국건축사협회(AIA), 일본건축가협회(JIA), 태국건축사협회(ASA), 몽골건축사협회(UMA), 멕시코건축사협회의 단체장을 초청하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함.

- 제4호 : 아시아 및 기타 국제교류 추진의 건

-중국과의 교류 추진에 관해서는 중국의 건축단체들과 교선 중에 있으며(신충규 국제담당 이사) 상황을 보고 추후 논의하기로 함.

-카자흐스탄과의 교류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를 위해 해외건설협회 건축 관련 주현황을 조사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함.  
-태국 및 멕시코 건축사협회와의 교류 추진은 현재 전국건축사대회 개최(10. 22)

시 해외단체장을 초청할 예정이며, 라오스와의 교류 추진은 8월 중에 본협회 대표단이 MOU 체결을 위해 방문할 예정임.

### ■제4회 정책위원회

제4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지 500호 기념 대토론회 주제 및 초청대상에 관한 건  
-토론회 주제와 초청대상에 대한 위원들의 최종의견을 '10년 8월 6일까지 취합하여 정리하기로 하며, 미래 건축의 영역과 건축사의 역할을 주제로 함.
- 제2호 : 건축문화 60년 방송사업 계획에 관한 건  
-방송시간, 편성 등의 제반조건이 보다 유리한 YTN를 통해 방송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관련 승인절차를 진행기로 함.
- 제3호 : 설계용역 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건  
-설계·감리 용역비 제고 및 지급, 발주 등 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정보수집 및 토론을 공론화하기 이전에, 그 필요한 배경과 취지를 정리기로 함.

### ■제1회 인사위원회

제1회 인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공제사업관련 직원충원 계획의 건  
-공제사업 직원 충원과 관련하여 심의함.

### ■제3회 건축의 날 집행위원회

제3회 건축의 날 집행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단체별 포상후보자에 대한 심의

#### 의견

- 각 단체에서 추천한 포상후보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상신하고 국토해양부장관 표창대상자 중 예비인원을 추천하지 않은 2개 단체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건축기술인을 1인씩 추가 추천기로 협의함.
- 제2호 : 행사프로그램 세부내용에 관한 건  
-전시회는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전시를 검토하고 강연 및 세미나는 강연 2인과 건축영화 1편을 상영하는 것으로 협의함.
- 제3호 : 지역연계행사 추진에 대한 지침서 작성에 관한 건  
-지역연계행사는 ①건축사진공모전, ②건축문화탐방 및 지역사랑 걷기대회, ③일일교사, ④건축모형만들기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차기회의에서 확정기로 함.

### ■제4회 건축의 날 집행위원회

제4회 건축의 날 집행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행사프로그램 구성내용 확정의 건  
-전시회는 해외프로젝트 건축설계 작품을 전시하고 강연 및 세미나는 강연 2인과 건축영화 1편을 상영하는 것으로 확정함.
- 제2호 : 지역연계행사 프로그램 확정의 건  
-지역연계행사 프로그램은 ①건축사진공모전, ②건축문화탐방 및 지역사랑 걷기대회, ③재능기부행사, ④일일교사로 확정하고 각 시도건축사회에 상기 4가지 프로그램을 시달하고 택일하여 기획(안)을 8월 20일까지 제출받기로 함.

### ■제3회 여성주거복지위원회

제3회 여성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노인주거복지관련 세미나 및 시설물 견학 개최에 관한 건  
-세미나 및 시설물 견학 개최계획(안)  
▷일정 : 1안) 2010. 9. 1 ~ 9일 중 1일  
2안) 2010. 11. 1 ~ 5일 중 1일  
▷장소 : 세미나 - 본협회 국제회의실  
견학 - 순애시니어타운(구 실비노인요양원)의 1곳  
▷참가대상 : 건축사 약 80~100명  
▷강연자 : 설계분야 - 오은진 교수(총의대, 순애시니어타운원장)  
정책분야 - 서울특별시청에서 섭외  
▷기타사항 : 오은진 교수와 협의 후 일정 및 견학지를 최종 결정기로 함

### ■제1회 전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제1회 전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0 전국건축사대회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오늘 논의된 기본계획(안)에 있는 대회 예산(안) 및 예산 확보방안 등을 집행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하여 차기 조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본협회 이사회(8월 18일) 이전까지 대회 기본계획(안), 이벤트업체의 대회행사계획 등이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함.
- 제2호 : 조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전임회장인 한명수 회장님을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되 여의치 않을 경우 강성익, 김영수 부회장 중에서 선임하기로 함.

### ■제2회 전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제2회 전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조직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  
-위원장은 후원금(협찬금) 모금을 위해 현

직에서 활동중인 대표 건축사를 외부에 서 영입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대회장에게 위임함.

-강성익, 김영수 부회장은 부위원장으로 하고 강성익 부위원장은 행사기획을, 김영수 부회장은 각 시도건축사회 회원 등 원부분을 담당하기로 함.

• 제2호: 전국건축사대회 기본계획에 관한 건  
-각 시도건축사회에 참가예상인원이 이전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2,000~3,000명 내외로 하여 전체 예산을 3억으로 편성하고, 장소는 킨텍스 3층 그랜드볼룸으로 결정함.

-본행사 시간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로 조정하고 초청강연시간도 30~40분내외로 축소·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함.

-홍보동영상은 전국건축사대회뿐만 아니라 건축의 날, 건축영화제 등 올해 개최되는 협회 행사에도 상영될 수 있도록 본 협회 문화홍보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작하기로 함.

• 제3호: 2010 전국건축사대회 주제에 관한 건  
-‘녹색도시를 창조하는 건축사’로 결정함.

#### ▲ 기타사항

-2010 전국건축사대회 조직표를 현행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기로 함.

#### ■ 제3회 전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제3회 전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1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집행위원회 조직변경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 2010 전국건축사대회 기획사 선정의 건  
-우선협상대상 기획사인 K-SUM A&C로 확정하되,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기로 함.

• 제3호: 전국건축사대회 예산안 승인의 건  
-대회예산은 총 3억원 범위내로 하고, 재원은 본협회 지원금 1억5천만원 이외에 협찬금으로 본협회 9천만원, 경기도건

축사회에서 6천만원을 마련하기로 함.

#### • 제4호: 기타사항

- 조직위원장은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 이전까지 김영수 부회장이 대행하기로 함.
- 차기 회의시까지 초청인사리스트, 행사준비서비스, 대회장소 세팅 및 행사내용 등을 보완하여 논의하기로 함.
- 다음 회의는 8월 26일(목) 14시에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장소는 추후 개별적으로 협의하기로 함.

#### ■ 제2회 문화홍보위원회

제2회 문화홍보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제2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에 관한 건

-제2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함.

▷ FIKA 정책위원회 협조요청: 본 영화제 성공을 위한 건축계 홍보를 위해 FIKA정책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기로 함.(김의중 이사)

▷ 영화제 섹션: Student Edition을 두어 본 협회에서 대학교 교육을 선도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함.

▷ 영화제 포스터: 본 영화제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도 큰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웹카투니스트 오영욱 작가에게 디자인을 의뢰하기로 함. (오영욱 작가의 저서를 구매하여 자료로 보관)

▷ UCC 공모전: 1회 영화제에서 개최한 UCC공모전을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함.

▷ 시·도건축사회 연계추진: 추후 연계추진(인)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 조직위원회 개최: 조직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8월중으로 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함.

#### 서울건축사회 ‘건설VE 전문가 교육’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김영수)는 회원들의 경쟁력강화 및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제2차 건설VE 전문가 교육(Module1)’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저의 생애주기비용으로 필요 한 기능을 확실히 달성하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분석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첫 관문으로, 지난 7월 12일부터 16명의 수강생이 40시간 동안 강의와 실습을 마침으로써 국제공인자격인 CVS 취득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

한편 지난 7월 25일 치러진 국내 VE전문가 자격인 CVP 자격시험 최종단계인 면접에서 지난해 VE교육 1차 이수자 20명이 합격, 국내 VE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건축사들의 업역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 서울건축사회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제7기’ 모집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제7기를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8월 26일(목)부터 12월 16일(목) 까지이며, 매주 목요일 총 16주간 이뤄진다.

지원자격은 건축사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의 CEO 및 임원, 공직자 등이며, 교육시간은 1일 3시간(18:30~21:30), 조찬특강(07시~09시) 1~2회로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비는 80만원(교재, 석식, 워크숍비 포함)이며, 교육장소는 서초동에 위치한 건축사회관이다.

교육신청 서울건축사회 홈페이지 ([www.sira.or.kr](http://www.sira.or.kr)) 팝업창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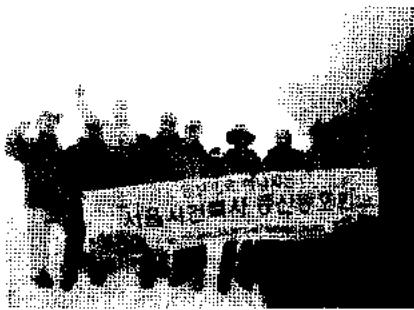
• 문의 : 서울건축사회 기획사업팀, 02-

587-7063, 587-7061 /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카페

(<http://cafe.naver.com/globelarch.cafe>)

## 서울시건축사등산동호회, 일본 북알프스 등정



서울건축사등산동호회(회장 이종호)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4박 5일간 일본의 북알프스(해발 3,190m) 종주 등반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왔다.

당초 일본 건축사 등산팀과 합동 산행을 계획했으나 여의치 못해 단독행사로 진행됐으며, 12명의 대원들이 3일 동안 악천후 속에서도 3,000m급 고봉들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40여km의 힘든 여정을 극복하여 대한민국 건축사의 기상을 드높였다.

한 여름에도 빙설이 녹지 않고 쌓여 있는 북알프스는 여름과 겨울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일본 최고의 명산이다.

서울건축사등산동호회에서는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전국의 산을 찾아다니며 체력단련과 심신수양 그리고 건축사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협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 문의 : 다음카페 서울건축사등산동호회  
<http://cafe.daum.net/siramountain>

## 인천건축사회 산악회 '울릉도 성안봉 등반 및 독도 방문' 행사 개최



인천건축사회 산악회는 지난 7월 2일부터 2박3일의 일정으로 인천건축사회 산악회원 및 가족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행사를 가졌다.

인천건축사회 산악회에서는 매년 1회 해외의 명산을 등반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울릉도 성안봉 등반과 우리 영토의 최동단 독도를 방문하여 세계에 독도가 우리만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시키고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동참하는데에 의의를 두고 행사를 추진했다.

참가자는 “일년 중 310일이 운무에 가려진다는 신비의 섬 울릉도, 아무 때나 접근을 하락하지 않는 면역스런 쌍등이 섬 독도, 이후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2박3일의 울릉도 및 독도의 여행은 날씨까지 도와주어 일행 모두 무사하게 모든 일정을 마쳤으며, 우리의 마음에 신비감과 국토애를 심어주면서 마무리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 대구건축사회 '2010 협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대구광역시건축사회(회장 이택봉)는 지난 7월 2일 '2010 협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건축사회 산하 7개 위원회가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구건축사회 기술연구소 설립계획(안), 건축물 디자인 자문제도의 운영, 건축기행(답사) 등 건축 관련 최고 전문가로서 건축주(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건축주뿐 아니라 우리 대구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해 한 차원 더 발전한 건축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충남건축사회 '2010 협회발전 워크숍' 개최



충청남도건축사회(회장 신우식)는 지난 6월 30일 전남 나주 중흥 골드스파 & 리조트에서 '2010 협회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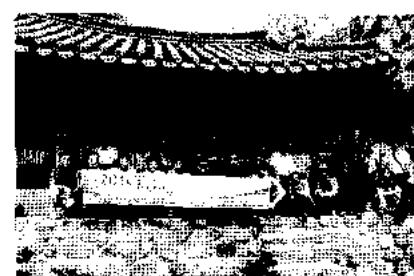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신우식 회장을 비롯해 고문, 감사, 명예이사, 이사, 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24명이 참석했다.

신우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충남건축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행사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행사에 앞서 청운대학교 장동민 교수, 남서울대학교 조경수 교수에게 명예이사 위촉패를 수여했다. 이어 장동민 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건축사사무소 비교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워크숍은 분과별 위원장으로부터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한 보고와 건축사의 위상제고 및 업역확대 방안, 불합리한 제도개선, 참여의식 고취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 충남건축사회 '테마건축기행' 개최



충청남도건축사회는 지난 7월 10일에 건축사 회원과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건축공무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0 제1차 테마건축기행'을 개최했다.

기행지는 전남 담양군에 소재한 소쇄원, 대나무박물관, 죽녹원의 답사와 강천산을 등반했다.

충남건축사회는 “이번 테마건축기행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유관단체와의 유대관계를 도모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 전북건축사회, 건축유관기관과 체육 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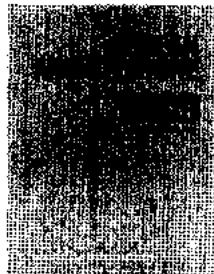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엽)는 전라북도 내 건축유관기관(전북도정, 전라북도교육청, 전주시청, 김제시청, 완주군청) 건축직 공무원들과 지난 6월 19일 완주군 문화체육센터에서 ‘2010 건축유관기관(단체)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전북건축사회 주관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230여명이 참석, 축구와 배구 등의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 결과,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북도청연합팀이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세 번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전북건축사회는 향후 보다 많은 기관 참여를 유도, 폭넓은 건축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 작품집「KOREAN ARCHITECTURE 2009」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에 한해 3만5천원에 판매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 건축계소식

#### 친환경아카데미 ‘3기 교육생 친환경 답사 및 워크숍’ 개최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원장 김광현)는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제3기 교육생 친환경건축물답사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3기 정규과정 교육생 49명과 교무위원 2명 등이 참석했으며, Green Tomorrow 답사를 시작으로 대림산업대덕연구소, 외암리 민속마을 등을 답사했다.

한편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제4기 교육은 7월 15일 개강했다.

#### 임창복 교수, KAAB 제4대 원장 취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2010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제4대 원장에 임창복 교수(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를 선출했다.

임창복 원장은 대한건축학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고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특별회원, 한국건축가협회 명예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설립추진위원장 을 역임했다.

#### 조인숙 회원 ‘독일 비스바덴시 여름예술제’ 초청강연

조인숙 회원(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이 오는 8월 10일 독일 해센주의 비스바덴시에서 개최되는 ‘독일 비스바덴시 2010년 여름예술제’에 초청강연자로 초대됐다.

조인숙 회원은 ‘정자예찬—한국인의 자연관



과 미의식’ 이란 제목으로 강연했으며, 한국인의 독특한 자연관과 미의식을 한국 정자의 특성을 통해 소개했다.

조인숙 회원은 지난 2002년 독일 뮌헨공대와 바덴뷔르템베르크 문화재청에서 ‘부석사를 통해보는 한국의 목조건축’과 2004년, 2005년에는 각각 ‘창덕궁 규장각 권역의 복원’, ‘수원화성’에 대해 발표, 한국의 건축을 독일에 알리기도 했다.

#### KCC, 고품격 창호 ‘KCC 와이드빌’ 출시



KCC는 빌라, 다세대 주택 등 보다 경제적인 소비형태를 요구하는 유통시장을 타깃으로 가격 및 품질을 최적화시킨 ‘와이드빌’을 출시했다.

KCC 와이드빌은 기존 제품 대비 약 20% 가량의 낮춘 합리적인 가격으로 KCC 제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창호의 품질은 기존 제품 대비 향상시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기존 창 대비 창틀 폭이 넓어지면서 단열성도 향상시켰으며, 용접강도, 레일 직립 하중 강도 등의 PVC 프로파일의 물성이 우수하여 내구성이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원자재와 더불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부자재를 적용하였고, 별도의 가공 및 시공 점검 체계를 통해 제품생산 및 시공단계의 품질까지 확보하여 최종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인 우수한 제품이다.

와이드빌은 창틀에 구배를 형성하고 기존 제품 대비 레일 높이를 상향 설계하여 수밀성을 향상시켰다. 이와 더불어 내측 물마이더

충남건축사회는 “이번 테마건축기행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유관단체와의 유대관계를 도모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 전북건축사회, 건축유관기관과 체육 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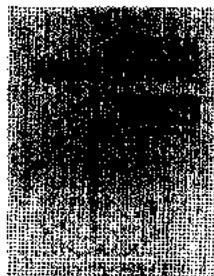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엽)는 전라북도 내 건축유관기관(전북도정, 전라북도교육청, 전주시청, 김제시청, 완주군청) 건축직 공무원들과 지난 6월 19일 완주군 문화체육센터에서 ‘2010 건축유관기관(단체)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전북건축사회 주관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230여명이 참석, 축구와 배구 등의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 결과,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북도청연합팀이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세 번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전북건축사회는 향후 보다 많은 기관 참여를 유도, 폭넓은 건축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 작품집「KOREAN ARCHITECTURE 2009」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에 한해 3만5천원에 판매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 건축계소식

##### 친환경아카데미 ‘3기 교육생 친환경 답사 및 워크숍’ 개최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원장 김광현)는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제3기 교육생 친환경건축물답사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3기 정규과정 교육생 49명과 교무위원 2명 등이 참석했으며, Green Tomorrow 답사를 시작으로 대림산업대덕연구소, 외암리 민속마을 등을 답사했다.

한편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제4기 교육은 7월 15일 개강했다.

##### 임창복 교수, KAAB 제4대 원장 취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2010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제4대 원장에 임창복 교수(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를 선출했다.

임창복 원장은 대한건축학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고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특별회원, 한국건축가협회 명예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설립추진위원장 을 역임했다.

##### 조인숙 회원 ‘독일 비스바덴시 여름예술제’ 초청강연

조인숙 회원(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이 오는 8월 10일 독일 해센주의 비스바덴시에서 개최되는 ‘독일 비스바덴시 2010년 여름예술제’에 초청강연자로 초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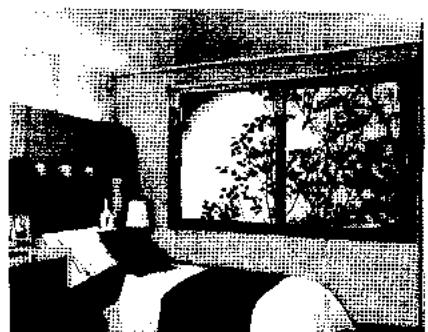
조인숙 회원은 ‘정자예찬—한국인의 자연관



과 미의식’ 이란 제목으로 강연했으며, 한국인의 독특한 자연관과 미의식을 한국 정자의 특성을 통해 소개했다.

조인숙 회원은 지난 2002년 독일 뮌헨공대와 바덴뷔르템베르크 문화재청에서 ‘부석사를 통해보는 한국의 목조건축’과 2004년, 2005년에는 각각 ‘창덕궁 규장각 권역의 복원’, ‘수원화성’에 대해 발표, 한국의 건축을 독일에 알리기도 했다.

##### KCC, 고품격 창호 ‘KCC 와이드빌’ 출시



KCC는 빌라, 다세대 주택 등 보다 경제적인 소비형태를 요구하는 유통시장을 타깃으로 가격 및 품질을 최적화시킨 ‘와이드빌’을 출시했다.

KCC 와이드빌은 기존 제품 대비 약 20% 가량의 낮춘 합리적인 가격으로 KCC 제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창호의 품질은 기존 제품 대비 향상시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기존 창 대비 창틀 폭이 넓어지면서 단열성도 향상시켰으며, 용접강도, 레일 직립 하중 강도 등의 PVC 프로파일의 물성이 우수하여 내구성이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원자재와 더불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부자재를 적용하였고, 별도의 가공 및 시공 점검 체계를 통해 제품생산 및 시공단계의 품질까지 확보하여 최종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인 우수한 제품이다.

와이드빌은 창틀에 구배를 형성하고 기존 제품 대비 레일 높이를 상향 설계하여 수밀성을 향상시켰다. 이와 더불어 내측 물마이더

쪽을 대폭 늘려 중후한 외관을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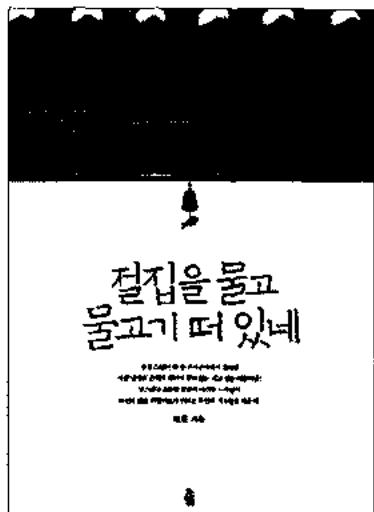
또한 와이드빌에는 기본 16~18mm에서 최대 22mm까지의 다양한 두께의 복층유리를 적용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절감에 적극적인 소비자라면 KOC로이유리 사양 적용을 통해 단열성이 우수한 창호+유리 조합을 선택할 수도 있다.

로이유리를 적용한 창호는 여름에는 실외의 태양열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므로 실내의 온도 상승을 막아 시원하고, 겨울에는 실내에서 발생되는 난방열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므로 따뜻하다는 것이 KOC 창호 기술 관계자의 설명이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ocworld.co.kr>

## 신간안내

### 절집을 물고 물고기 떠 있네\_왕가의 명당에서 폐사지까지 스님의 눈으로 보는 숨은 건축 이야기



#### 월철 저 | 354쪽 | 도서출판 틀

신간은 '절집을 물고 물고기 떠 있네'는 월철 스님이 불교적 관점에서 전통 건축에 대해 이야기한 책이다.

저자는 왕가의 명당에서 폐사지까지 각종 건축을 두루 다루며 불교적 관점에서 건축의 아름다움과 지혜 그리고 우리네 삶을 넘나드는 혜안을 다룬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는 각각의 건축물에 묵혀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는 물론, 공간적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200여컷의 사진을 통해 건축물의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된다. 저자는 숨겨진 보물을 찾듯 건축 안에 숨겨진 의미들을 훑으며, 건축물과 더불어 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역사적 인물, 그 속에서 살다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실었다.

월철 스님은 '월간 해인' 편집장을 지냈으며, 조계종총무원 재정국장 등을 거쳐 현재 불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88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8-6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등촌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회/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8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6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8 · 은평구건축사회/357-688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5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599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포항자역건축사회/(031)963-6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83-238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6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8713 · 안산지역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폐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모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856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익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청주시지역건축사회/(043)8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990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1)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곰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0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6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51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562-2356 · 충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6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牙山지역건축사회/(042)841-5725 · 경상북도지역건축사회/(041)8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시역건축사회/(054)536-8855 · 인동지역건축사회/(054)653-4456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구포·의성지역건축사회/(054)388-5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055)673-0487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미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시천시건축사회/(055)832-1301 · 양산시건축사회/(055)384-9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61-762-6434 · 진해시건축사회/(055)547-4531 · 창녕시건축사회/(055)532-9913 · 칠원시건축사회/(055)282-4364 · 통영시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시건축사회/(055)585-6583  
■ 제주도건축사회/(064)76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 The Green Schools Are Coming, The Good Schools...

넣으며 그것을 새로운 green roof(도시 학교들의 최근 요구사항)로 덮는 비용을 따냈다.

“이 학교는 이 일대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학교 될 것입니다.” 이 학교의 종축 예산이 시의회에서 승인된 지난 6월 29일, 시의회장인 Maria Del Carmen Arroyo가 말했다. “이것은 남 브롱스의, 이 지역 학생들과 이 지역 환경의 판도를 바꾸는 계임체인저가 될 것이다.”

고속도로에 둘러 쌓여 있으며, 국내에서 공영주택과 최악의 천식과 가난율에 종종 인용되는, 뉴욕시 브롱스의 하이브릿지 지역은 투쟁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의 Sustainable South Bronx와 Highbridge Community Center 같은 그룹들은 수년간 경제적인 이유로만 투쟁 해 온 것이 아니라 지역 환경의 평등을 목표로 싸워왔다. 그 결과로, 이 지역의 일부 가장 젊은 주민들은 Fletcher Thompson 건축사사무소에 의해 설계된, 뉴욕 주에서 아마도 처음으로 지어진 LEED Platinum 등급으로 시공된 중학교에서 조금 더 깨끗하고 좀 더 친환경적인 숨을 쉬게 될 것 같다.

2005년 지역법 86 통과 이후에 지어진 다른 학교들과 같이, 이 400명 정원의 건물은 LEED 규정을 맞추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 구현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 학부모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과거 이 지역에서 지원에서 등 한 시 하던 것을 원했고, 시의회에 Platinum 등급에 포함 될 수 있는 범위에서 과학실 면적을 두 배로 늘리며 또한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지붕 녹화 종축 부분이 가장 가시적인 업그레이드이다. 이 학교는 하이브릿지 기슭의 공영 주택 단지 내 어려운 경사면에 위치하여서, 40 퍼센트 적게 물을 사용하면서 침식피해를 막기 위해 혁신적인 조경법과 구조법을 섞어 설계하였다. 또한 다른 면면을 보면 저공해 재료 사용과 책임 폐기물 관리, 고효율 설비 시스템과 75퍼센트 자연 채광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채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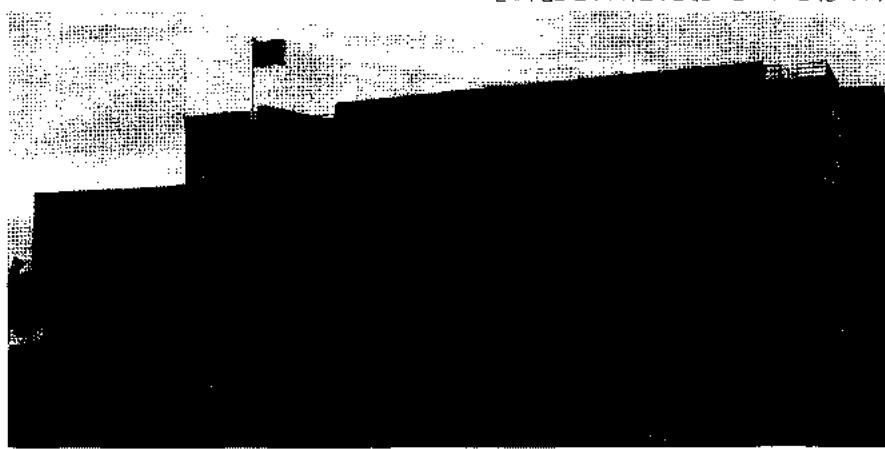
Fletcher Thompson's 건축사사무소의 뉴욕 지사 소장인 에드 로스는 이것은 단지 규정에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건축 당국의 친환경 규정을 넘어서는 것이며 그리고 계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설계에 반영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학교이고, 또한 이 지역에서도 중요한 학교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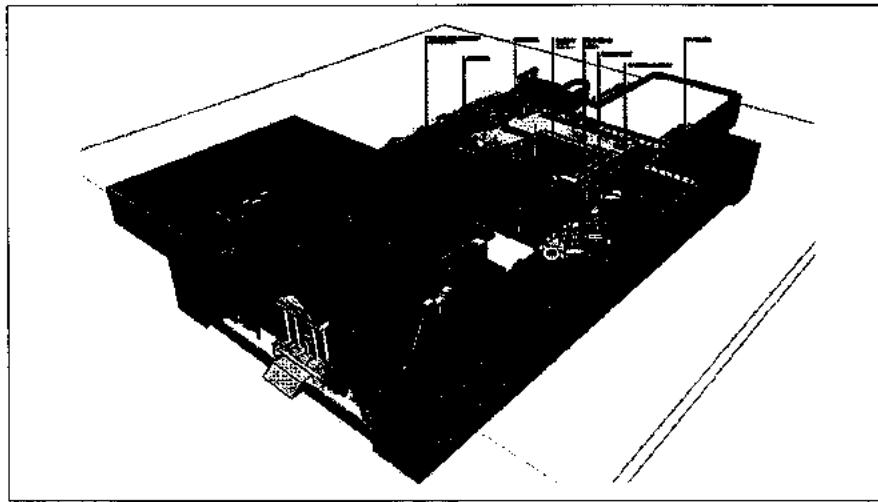
“이제 이 학교는 시작 되었고, 다음단계로 넘어 가야한다. 우리는 이 건물이 가능한한 가장 환경을 해치지 않고 시공되는 가능 확인해야 할 것이며,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춰 그 속을 배워 나가야 한다.”라고 브롱스 자치구 부대표 아우렐리아 그린이 데일리 뉴스에서 말

플래처 풀슨 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브롱스 학교 렌더링 이미지



김훈미 / Studio M,Ap  
by Kim, Eunmee





했다. 하이브릿지의 학부모 연합회 책임자인 천시 영은 낙천적으로 이 지역의 제한된 녹지 공간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활발히 사용될 친환경 공간을 만들어냈다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워싱턴 D.C. 맨하탄, 그리고 브롱스를 비롯해 우리 주변에 친환경적인 학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보스톤 라틴 학교는 그저 '최고 역사를 자랑하는 공립학교'에 머물지 않고 지붕 녹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Studio G Architects 건축사사무소에 의해 설계된 이 학교는 사이즈로서는 이들 학교들 중 최고 면적인 5,000 평방피트를 농작물 재배와 카페테리아, 그리고 과학 실험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시설로 덮었다. 크기 면에서 보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넣고도 심지어 미니 골프장과 테니스장을 위한 공간이 남을 만큼 광대하다. 위의 렌더링 이미지에 보면 태양광 전지판과 풍력 발전 시설도 이 지붕 위에 설치된다.

녹화된 지붕은 일부 실험 실습실로 사용되며 여기에 함유된 수분은 실내가 필요 이상 더워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

#### 학교측 발표문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학교인 보스頓 라틴의 지붕녹화는 영화 '불편한 진실'을 보고 형성된 학생들의 모임인 '보스頓 라틴 스쿨 환경 활동 연대'에게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은 학교 층에 지붕 녹화화를 시행하도록 로비를 하고, 설계 전개 과정에 참

여 하며, 5백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위해 자금 모금에 앞장서는 노력을 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보스톤에 위치한 Studio G Architects 건축사사무소는 이러한 학생들의 열정과 혁신에 감명을 받아 기부를 설계연역으로 하기로 했다.

이 지붕위에 자리 잡은 많은 프로그램들은 보스톤 라틴 스쿨 학생들과 메사추세츠 주의 많은 학교에게 새롭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최첨단의 과학, 기술, 수학, 공학 연구실들은 설계의 근간이 되며, 학생들이 태양광 전지판이나 풍력 발전에 의해 만들어 어진 에너지와 같은 학교의 환경 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계측하고 관찰하고 있도록 해준다. 카페테리아 정원에서는, 온실과 과수원이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재배를 시도하게 해주며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도록 도모해준다. 명상정원은 언어, 예술, 음악 수업과 또한 휴식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도시 학생들을 내재된 환경 도우미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수업효과를 차치 하더라도, 이 친환경 프로젝트는 보스톤 라틴 스쿨의 탄소배출을 녹화 조림된 미세기후 공간이 줄여 줄 것이며,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은 이 학교의 에너지 소비율을 낮추어 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새로운 지속 가능함에 대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에 영감을 주었고, 이 과정은 이번 가을 학기부터 보스톤 라틴 스쿨에 의해 주관 될 것이며, 이 프로그램들은 메사추세츠 주 내 다른 17개의 환경 활동 연대에서 수강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혁명적인 프로그램 공간 영향이 이 보스톤 라



녹화된 지붕은 일부 실험 실습실로 사용되며 여기에 함유된 수분은 실내가 필요 이상 더워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



지붕 위 정원을 가꾸는 학생들

틴 스쿨을 넘어 연장되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의 많은 학교들은 강당, 급식소 등 학교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수용하기 위해 증개축을 해왔다. 물론 당국의 규율과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하겠지만 많은 경우 최저가 입찰로 최소한의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위의 학교들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워 졌던 학교의 지붕 공간은 불량 학생들 전유 공간이거나 아니면…(확인 할 길은 없지만) 자살 방지용으로 항상 굳게 잠기워진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살펴 본 미국의 경우를 보면 (그곳 역시 교육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하여 심지어 교사들마저 해임 시키고 있다) 전통의 공립학교나 빈민가의 학교가 친환경적 공간 창출로서 얼마나 많은 긍정적 발전을 하고 있지 는 볼 수 있었다.

최근 우리의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집단 따돌리기와 학원 폭력,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황폐화된 인성… 이러한 폐해는 여러 번의 선거와 정책, 공약으로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학교 내 공간의 친환경적 변화로 내재된 인간의 바른 면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러한 폐해를 고치는 더 빠른 방법이 아닌가 하고 공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 본다. ■

한글판 입체판은 <http://blogsearchpaper.com>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